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무하당 홍주원의 「燕行錄」 연구

2013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전공

이 상 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후수

## 無何堂 洪柱元の「燕行錄」研究

A study on 「Yeonhaengrok」 of Muhadang, Hong Juwon



2013년 6월 일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전공

이 상 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후수

## 無何堂 洪柱元の「燕行錄」研究

A study on 「Yeonhaengrok」 of Muhadang, Hong Juwon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6 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전공

이 상 우

이상우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6 월 일



HANSUNG  
UNIVERSITY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 국 문 초 록

## 無何堂 洪柱元의 「燕行錄」 研究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국어문학전공  
이 상 우

본 논문은 無何堂 洪柱元이 네 차례에 걸쳐 正使의 자격으로 淸 나라에 연행을 다녀온 후 남긴 「燕行錄」을 연구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본고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청에 대한 홍주원의 의식이다. 홍주원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직접 겪었고 명청교체기의 현실을 직접 목도하였는 바, 청에 대한 그의 의식은 강력한 반감(反感)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연행록」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다양한 시적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2장에서는 홍주원의 생애와 각 연행별 상황, 「연행록」의 구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홍주원의 생애에서 주목되는 것은 홍주원이 이정귀의 외손으로서 당대 문인들에게 인품과 학문적 재능을 널리 인정받았다는 점과 선조의 부마가 되어 대청 연행에 네 차례나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홍주원의 네 차례 연행은 1647년, 1649년, 1653년, 1661년으로 홍주원의 정치적 능력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행록」 구성상의 특징은 모두 시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시들이 각 연행별로 기록되지 않고 형식별로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18세기 연행록이 산문 중심으로 구성된 것과 변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연행시의 특징을 도출하였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에 대한 否定 意識과 使臣으로서의 自愧感’이다. 청이 중원의 패권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주원은 청 왕조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강력한 비

판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식은 오랑캐 나라의 신하로서 사신 가야하는 자  
신에 대한 자괴감으로 드러나고 있다.

둘째, ‘明王朝에 대한 恨歎과 復興에의 期待’이다. 홍주원은 정통한족왕조  
인 명나라가 멸망하고 오랑캐인 청나라가 중원을 장악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  
하였다. 이는 하늘에 대한 원망이나 흥망성쇠에의 한탄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한편, 홍주원은 명나라가 멸망했지만, 당시 남명세력이  
잔존해 있던 사실을 통해서 명왕조의 부흥을 기대하였다. 이는 ‘鑢鐙劍’, ‘一  
旅’ 등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使行길의 어려움과 人間的 交遊를 통한 解消’이다. 청나라에 대한  
홍주원의 부정의식은 홍주원으로 하여금 사행길의 어려움을 배가시켰다. 이는  
육체적·정신적 괴로움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 사신단 일행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시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홍주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사신단 일행들과 수창  
(酬唱)을 하거나 중국 관료문인이 아닌 일반 문사들, 또는 역관들에게 시를 주는 등 인  
간적 교유를 통해서 해소하였다.

홍주원은 아직 학계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바가 없어 우리 문학사에서 익숙한 인물이  
아니다. 이에 본고는 홍주원의 「연행록」을 대상으로 하여 홍주원의 생애, 연행록의 구  
성 및 특징, 연행시에 나타나는 홍주원의 의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고가 17세기  
중반 대청 연행의 초창기 양상과 연행록의 특징을 살펴보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주요어】 홍주원, 연행록, 연행시, 대청의식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2 장 洪柱元의生涯와「燕行錄」 .....	6
제 1 절 洪柱元의生涯 .....	6
제 2 절 燕行 狀況과「燕行錄」의 構成 .....	12
제 3 장 洪柱元 燕行詩의 特徵 .....	25
제 1 절 淸에 대한 否定意識과 使臣으로서의 自愧感 .....	25
제 2 절 明王朝에 대한 恨歎과 復興에의 期待 .....	47
제 3 절 使行길의 어려움과 人間的 交遊를 통한 解消 .....	58
제 4 장 결론 .....	81
【참고문헌】 .....	83



# 제 1 장 서 론

본 논문은 홍주원(1606~1672)의 「燕行錄」을 연구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홍주원은 우리 한시사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일찍부터 시적 재능을 인정받았으며, 정치적 삶이 제한된 부마였지만, 14년간 정사의 자격으로 네 번씩이나 연행을 다녀와 정치적 능력을 인정받았다. 따라서, 홍주원의 「연행록」을 살펴보는 일은 17세기 중반 지식인의 대청의식과 연행록의 특징을 살피는데 유효하리라 판단된다.

지금까지 연행록에 대한 연구는 임기중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임기중은 방대한 양의 연행록들을 집적하여 『연행록 전집』<sup>1)</sup>을 출간한 바, 연행록 연구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후, 연구자들에 의해 18세기 연행록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연행록 연구는 이른바 3대 연행록인 燕巖 朴趾源의 『熱河日記』, 老稼齋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湛軒 洪大容의 『湛軒燕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열하일기』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열하일기』의 문학성에 관한 연구<sup>2)</sup>, 『열하일기』에 나타난 對中 인식을 논한 연구<sup>3)</sup>, 『열하일기』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연구<sup>4)</sup> 등이다. 『노가재 연행일기』에

1) 임기중 편, 『연행록전집』,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2) 김명호, 「연행록의 전통과 열하일기」, 『韓國漢文學研究』11, 1988; 김효순, 「燕巖의 文學論 考察」,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김명호, 『熱河日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전재강, 「熱河日記 所載 插入詩의 성격과 기능」, 『伏賢漢文學』8, 1992; 전부용, 「燕巖 朴趾源의 熱河日記 研究」,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이학당, 「『熱河日記』 中の 筆談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이강엽, 『熱河日記』의 寓言文學的 解釋, 『국제어문』27, 2003; 박상영, 「『열하일기』에 나타난 산문 시학 : 〈환회기〉의 담론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144, 2006; 정일남, 「『열하일기』 「양엽기」 일고」, 『東方漢文學』35, 2008; 이선웅, 「『熱河日記』 研究:文學의 特性을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3) 김명호, 「『熱河日記』와 清朝 文藝」, 『韓國學報』14, 1988; 최소자, 「18세기 후반 조선지식인 朴趾源의 對外認識」, 『韓國文化研究院論叢』61, 1992; 최경자, 「〈熱河日記〉에 나타난 燕巖의 中國認識 考察」,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박기석, 「『熱河日記』와 燕巖의 對淸觀」, 『論文集』5, 1997; 박기석, 「『열하일기』와 연암의 대청관」, 『고전문학과 교육』2, 2000; 김철조, 「燕巖 朴趾源의 淸 현실 이해」, 『국제한국학연구』1, 2003, 박기석, 「『열하일기』에 나타난 연암의 중국문화 인식」, 『문학치료연구』8, 2008; 허권수, 「연암(燕巖)의 북경(北京)에 대한 인식(認識)의 한계」, 『漢文學報』19, 2008; 사명동, 「朝鮮後期 朴趾源의 淸國認識:『熱河日記』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김동국, 「『열하일기』를 통해서 본 한중문화교류 : 박지원의 상대문화주의를 중심으로」, 『언어와문화』8, 2012.

4) 김은미, 「熱河日記의 敘述形態 考察」,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2; 이중주, 「『熱河日記』의 敘述原理」,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2; 강동역, 「『열하일기』의 표현기법에 대한 소고」,

관한 연구 역시 『열하일기』의 연구방식과 대동소이 하며, 『노가재연행일기』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고찰한 연구<sup>5)</sup>, 『노가재연행일기』에 나타난 조선 문인들의 대청의식을 밝힌 연구<sup>6)</sup>가 주를 이룬다. 『담헌연기』에 관한 연구는 앞의 두 연행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연구의 양이 부족한 편인데, 『담헌연기』에 실린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와 『담헌연기』와 타 연행록과의 비교 연구, 『담헌연기』에 나타난 교우활동과 교육적 의의를 논한 연구<sup>7)</sup>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18세기 연행록 전반의 특성을 다룬 연구<sup>8)</sup>도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3대 연행록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18세기 개별 문인들의 연행록을 연구하는<sup>9)</sup> 추세여서, 18세기 연행록에 대한 전모는 대부분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연행록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집중되고 있다. 19세기 연행록 연구

- 『한국학논집』10, 1983; 최천집, 「『열하일기』의 표현방식과 그 의도」, 『문학과언어』18, 1997; 「이념담론의 글쓰기 방법연구:『열하일기』의 표현전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최인자, 「연암 <열하일기>에 나타난 글쓰기 발상법의 한 원리」, 『목원국문학』, 1996; 이지호, 「글쓰기 발상법으로서의 연상 -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韓國國語教育研究會 論文集』61, 1997; 김태준, 「동아시아적 글쓰기의 전통론 사고 : 『열하일기』의 글쓰기론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36, 2000; 서현경, 「열하일기 정본의 탐색과 서술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정순희, 「박지원 산문의 문체적 특성 일고(一考) -어휘와 주제의 관련 양상을 통해」, 『韓國漢文學研究』42, 2008.
- 5) 이경자, 「노가재연행일기(老稼齋燕行日記) 소고」, 『漢城語文學』3, 1984; 박지선,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김아리, 「『老稼齋燕行日記』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태준, 「연행록의 교과서 『노가재연행일기』 연행록의 교과서 『노가재연행일기』」, 『국제한국학연구』1, 2003.
- 6) 박지선, 「『老稼齋燕行日記』의 書誌的 考察」, 『語文研究』23, 1995; 유재임, 「『老稼齋燕行日記』에 나타난 對淸意識 研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서정아, 「稼齋燕行錄을 통해 본 金昌業의 淸文物에 관한 인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상조, 「김창업(金昌業)의 노가재연행일기(老稼齋燕行日記) 연구」, 『영주어문』10, 2005; 서의, 「김창업과 청조 문사의 교유에 대한 고찰」, 『淵民學志』, 2010; 위홍, 「『老稼齋燕行日記』研究 : 對淸意識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7) 김태준, 「湛軒燕記와 을병연행록의 比較 研究 : 特히 漢詩 번역을 中心으로」, 『民族文化』11, 1985; 배원환, 「湛軒 洪大容의 『燕記』 研究」,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최두진, 「담헌 홍대용의 연행 중 교우활동과 교육적 의의」, 『教育思想研究』25, 2011.
- 8) 김태준, 「18세기 燕行使의 思考와 자각 : 『熱河日記』를 중심으로 여행자 문학론」, 『明大論文集』11, 1978;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최소자, 「조선 후기 진보적 지식인들의 중국방문과 交遊」, 『명청사연구』23, 2005; 최소자, 「18세기 金昌業, 洪大容, 朴趾源의 중국인식」, 『명청사연구』32, 2009; 박향란, 「燕行錄 所載 筆談의 研究 : 洪大容, 朴趾源 등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9) 신익철, 「이기지(李器之)의 『일암연기(一菴燕記)』와 서학 접촉 양상」, 『東方漢文學』29, 2005; 윤경희, 「18세기 초 장동 김씨 일문의 연행 체험 : 김창집(金昌集)의 『연행훈지록』을 중심으로」, 『漢字漢文教育』19, 2007; 도유미, 「18세기 후반 燕行을 통한 이암의 대외인식의 확대와 그 적용」,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정영문, 「홍창한의 『연행일기』 연구」, 『한국문화과학예술훈』, 2010; 김미순, 「『庚子燕行雜識』를 통해 본 李宜顯의 淸文物 認識」,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정은진, 「표암 강세황의 연행체험과 문예활동」, 『漢文學報』25, 2011; 현진환, 「鶴山 徐浩修의 『熱河紀遊』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의 특징은 18세기 연행록 연구를 수용하면서 보다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문사들과의 교유관계를 통해 드러내는 봉명 반청의식을 논한 연구나 사신들의 중국 문화 체험을 자세히 밝힌 연구, 기생 등 하층민의 삶을 주목한 연구, 조선과 청나라 지식인들과의 교유에 초점을 맞춘 연구 등이 그러하다.<sup>10)</sup>

이상과 같이 연행록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18세기, 19세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17세기 연행록에 대한 연구는 17세기 초반 對明 사행에 대한 연구<sup>11)</sup>가 대부분이며, 청나라 건국 이후 대청 연행의 모습을 보여주는 연행록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sup>12)</sup>.

본고는 첫 번째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청나라 건국 초기 대청 연행의 모습을 보여주는 홍주원의 『연행록』을 연구하고자 한다. 시기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결과가 집적되어 있는 18, 19세기 연행록이 모두 대청 연행이기

10) 전일우, 「『燕輶直指』研究」, 『崇實語文』19, 2003; 홍성남, 「『夢遊燕行錄』研究 - 19世紀 朝鮮知識人の意識世界를 中心으로」, 『國文學論集』19, 2003; 김유경, 「19세기 연행 문학에 나타난 중국 체험의 의미 : 전·중반기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21, 2005; 김남기, 「『燕輶日錄』에 나타난 기녀의 생활과 애환」, 『돈암어문학』20, 2008; 이관성, 「홍석모의 <황성잡영(皇城雜詠)> 소고(小考) - 조선인의 눈에 비친 19세기 연경의 시적 형상화」, 『어문논집』58, 2008; 이춘희, 「燕行路程에 관한 詩와 燕行心理의 변화 고찰」, 『한국어문학연구』50, 2008; 임영길, 「心田 朴思浩의 燕行과 韓中文學交流」,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배기표, 秋琴 姜瑋의 海外紀行詩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전수경, 「韓弼教의『隨槎錄』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장진영, 「海藏 申錫愚의『入燕記』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김현녀, 「金進洙의『燕京雜詠』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이춘희, 「19세기 燕行文인의 文學交流 양상 및 의미 : 藕船 李尙迪을 中心으로」, 『한국어문학연구』45, 2005; 주승택, 「강위(姜瑋)의 연행록(燕行詩)에 나타난 한중(韓中) 지식인의 교류양상」, 『한국문화연구』11, 2006; 천금매, 「『海隣尺素』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장지에, 「淸人 繆公恩과 朝鮮使臣 朴來謙의 교유」, 『한국학연구』22, 2010; 박중훈, 「19세기 朝淸 문인들의 교유 양상 : 藕船 李尙迪의 懷人詩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32, 2011; 왕림동, 「19세기 조선과 청조 지식인의 교류 : 金景善의『燕輶直指』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천금매, 「18~19世紀 朝淸文人 交流尺牘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정후수, 「晩淸 人士들이 李尙迪에게 전해 온 無聲의 메시지 : 奉明反淸 意識을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46, 2012.

11) 김영한, 「청음선생의 명말 해로사행기(海路使行記)」, 『古文研究』4, 1992; 임형택, 「조선사행(朝鮮使行)의 해로(海路) 연행록(燕行錄): 17세기 동북아의 역사전환과 실학」, 『한국실학연구』9, 2005; 최윤정, 「명(明), 청(淸) 교체가 조선문사(文士)의 사행체험」, 『한국고전연구』11, 2005; 김지은, 「17세기 전반 해로사행문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박현규, 「17세기 전반기 대명(對明) 해로사행(海路使行)에 관한 행차 분석」, 『한국실학연구』21, 2011; 조창록, 「전식(全淸)의 『차행록』과 해로 사행의 체험시」, 『東方漢文學』46, 2011.

12) 이영춘, 「麟坪大君의 燕行錄:『燕途紀行』」, 『史學研究』82, 2006; 안나미,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의 연행시(燕行詩) 일고찰」, 『漢文學報』17, 2007; 진영숙, 「明末의 中國社會와 朝鮮使臣의 外交活動 : 金垓의『朝京日錄』과『朝天錄』의 분석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31, 2009; 황만기, 「淸(淸) 김상헌(金尙憲) 《조천록(朝天錄)》 고찰(考察) -한시작품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43, 2009; 조영호, 「歸巖 李元禎의 燕行錄 研究」,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조영임, 「鄭世規의『燕行日記』에 대한 일고찰」, 『고전문학과교육』24, 2012.

때문에 홍주원의 연행록이 대청 연행의 초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홍주원은 문학적 재능에 있어서도 그 연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쓴 비명(碑銘)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기도(器度)가 있어 또래 아이들과 달라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가 데려다 가르치고 길렀으며, 무릇 글을 지으면 선배들에게 칭상받았다. … 또한 선조(宣祖) 이후로 부마(駙馬)를 간택할 때 외모도 준수하고 글재주도 뛰어난 자를 뽑았는데, 당시 시남(市南) 유계(兪槩)가 ‘그 됃됨이와 문장을 합쳐서 논하자면, 마땅히 무하공(無何公)이 가장 뛰어난 부마(駙馬)이다.’ … 그 문장은 대체로 월사공의 연원(淵源)에서 나왔는데 스스로 일가(一家)를 이루어 비록 전문(專門)의 노련한 솜씨를 지닌 자들도 모두 공에게 일두지(一頭地)를 양보하였다.”<sup>13)</sup>라며 극찬한 바 있다.

또한 송시열은 『無何堂文集』, 〈序〉에서 홍주원의 문장을 평가하길, “오직 학문과 문사(文詞)를 즐기고 익혀서, 모당과 월사 두 분의 의발(衣鉢)을 거의 전수받았다. …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열독(閱讀)해 본 바 음운(音韻)이 맑아서, 사치스러운 굴레로 치장한 말을 타고 봄 거리를 달리는 호사스러운 기상이 아주 없고, 구어(句語)가 풍성하면서도 가끔 맹교(孟郊)의 빈한(貧寒)함과 가도(賈島)의 청수(淸瘦)한 시사(詩思)가 들어 있으니, 어찌 비단부채에다가 겨울 숲과 눈 속 대나무를 그린 격이 아니겠는가.”<sup>14)</sup>라고 칭송했다.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은 만사(輓詞)에서 “유운(劉尹)의 깨끗한 이름에 왕령(王令)의 재주이니”<sup>15)</sup>라고 하면서, 진(晉) 나라의 명사였던 유운과 왕희지(王羲之)의 아들 왕헌령(王獻之)에 비유하여 홍주원의 인품과 재능을 높게 평가하기

13) 宋時烈, 『宋子大全』卷163, 「碑」, <永安尉洪公神道碑銘 并序>, “髫髻有器度, 文才異品流, 月沙公取而教育之, 又受學于北渚金公瑬, 凡有製作, 必爲先輩所賞. … 自宣廟以後則不然, 必擇其傑然而秀窈然而文者, 故彬彬乎皆可尚也, 然市南俞公槩嘗曰, 其人其文合而論之, 當以無何公爲最云. … 其文章蓋出月沙公淵源, 而自成一派, 雖專門宿手, 皆讓一頭地.” 이하 『송자대전』을 인용할 경우, ‘송시열, 「碑」, <永安尉洪公神道碑銘 并序>.’의 형식을 따르며, 원문과 번역은 『(국역)송자대전』, 민족문화추진회, 1984.를 따랐다.

14) 송시열, 「序」, <無何堂文集序>, “惟文學詞華, 是耽是習, 兩翁衣鉢之傳. … 余嘗玩閱其始末, 聲韻瀏亮, 而絕無珂馬春陌之氣象, 句語瞻蔚, 而時有郊寒島瘦底意思, 豈所謂紈扇上寒林雪竹者非耶.”

15) 南九萬, 『藥泉集』第二, 「詩」, <永安尉 遷葬輓>, “劉尹清名王令才 無何當日畫堂開 凝塵久闌琅玕簾 明月長寒琥珀杯 此奉衣冠移福地 還看鳳凰集僊臺 西隣孺子今頭白 再聽虞歌不盡哀.” 번역과 원문은 한국고전종합DB에서 인용하였다.

도 하였다.

세 번째로 동시기에 정사의 자격으로 네 차례나 연행을 갔던 부마는 홍주원이 유일무이 했으며, 부마가 아닌 경우에도 네 차례의 북경행은 결코 적은 경우가 아니다. 더욱이 1649년의 연행에서 정사로 선발되었을 때는 부친의 죽음과 모친, 형제의 병환 등을 이유로 연행길을 면하고자 상소를 올렸고, 효종 역시 이를 윤허하였으나 당시 일을 맡은 담당자가 결국 홍주원으로 낙점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네 차례나 정사의 자격으로 북경을 향했다는 것은 홍주원의 외교적 능력이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청 연행이 시작된 이후 약 60여 년 간 다른 부마들도 정사로서 연행길에 오르기는 했으나, 한 두 번이 고작이었다.<sup>16)</sup> 또한 당시 부마로서 「연행록」이라고 할 수 있을만한 집적물을 남긴 것은 홍주원이 유일하다.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홍주원의 「연행록」은 그 연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여겨지며,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장 1절에서는 홍주원에 대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홍주원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홍주원의 생애를 살필 것이며, 2절에서는 네 차례 다녀온 각 연행별 상황과 「연행록」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홍주원 연행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 1절에서는 명칭 교체로 인한 조선 지식인들의 대청의식을 살펴보는 일환으로서 홍주원의 청 왕조에 대한 否定과 그러한 청으로 사신 가는 자괴감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3장 2절에서는 명 왕조에 대한 한탄과 부흥하리라는 기대에 관한 시를 고찰하고, 3장 3절에서는 이러한 청에 대한 홍주원 의식들과 연계되어 사행길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작품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풍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연행 중 드러나는 홍주원의 개인적 의식을 살펴보고, 대청연행 초창기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데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16) 부마가 정사의 자격으로 연행을 간 경우는 朴澮(1638. 9), 洪得箕(1660. 1), 沈益顯(1666. 2, 1680. 6), 鄭載崙(1670. 6), 朴弼成(1685. 3, 1694. 8)이 있다.



## 제 2 장 홍주원의 生涯와 「燕行錄」

본 장에서는 당시 동아시아의 정국과 청 건국에 대한 조선에서의 인식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이러한 상황 내에서 홍주원의 삶을 살펴보고, 네 차례 正使의 자격으로 북경을 방문한 홍주원의 연행별 구성과 각각의 상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동시기에 기록된 연행록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구성의 측면에서 홍주원의 「연행록」이 지니는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제 1 절 洪柱元의 生涯

홍주원이 활동했던 17세기 중반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1616년 누르하치(奴爾哈赤, 太祖)가 후금(後金)을 세우고 1621년에는 遼東을 장악하면서 천하의 패권을 다투게 되었는데, 1636년에는 그의 아들 황타이지(皇太極, 太宗)가 국호를 청(淸)으로 개칭하여 1644년 북경으로 천도하였다.<sup>17)</sup> 이로써 명은 멸망하고 청이 건국되는 역사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청의 등장과 부흥은 소중화(小中華)를 자처했던 조선에 적잖은 영향력을 미쳤다. 명(明)에 대한 명분을 강조했던 조선은 청나라의 침략을 받아 정묘호란(1627)과 병자호란(1636)을 겪어야 했고, 그 결과 청과의 불평등조약 체결했으며, 조선은 명과 청이라는 양대 세력 사이에서 외교 노선을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sup>18)</sup> 당시 조선의 대명, 대청관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당시 後金)이 요동 지방을 함락시키자 다급해진 명 조정은 누르하치 정벌계획을 세우게 되고,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한 후금과 명, 조선의 복잡한 관계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당시 조선 조정의 분위기는 이른 바 ‘再造之恩’의 명분론에 입각하여 현실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17) 임형택, 「朝鮮使行의 海路 燕行錄 : 17세기 東北亞의 歷史轉換과 實學」, 『韓國實學研究』9, 2005.

18) 이에 대해서는 최소자, 『明清時代 中·韓關係史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참조.

① “우리나라는 중국 조정에 대해서 부자(父子)의 의리가 있고 또 나라를 되찾게 해 준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 만큼, 이번에 징병하는 일에 관하여 어떻게 감히 병력이 단약(單弱)하다는 이유로 난처한 기색을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양서(兩西)의 군대를 뽑되 많은 병력보다는 정예 위주로 해서 서둘러 조련시키고 미리 정리하여 칙유가 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인데 ….”<sup>19)</sup>

② “삼가 성상의 분부를 받들건대 뜻밖의 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계시는 것이 지극하고도 곡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중국 조정은 우리에게 있어 부모의 나라로서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가 있는데 지금 외부로부터 수모를 당하여 우리에게 징병을 요청해 왔고 보면 우리의 도리를 살펴볼 때 어떻게 달려가 응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sup>20)</sup>

①은 좌의정 한효순(韓孝純)의 상소이고, ②는 박홍구(朴弘耆) 등 17명이 올린 헌의이다. 당시 조정의 분위기는 대체로 명에게 받은 은혜와 그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징병에 응해 명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광해군은 이와 달리 신증론으로 맞섰다. 조선이 보잘 것 없는 병사로 원조할 형편이 되지 못하며, 차라리 조선의 국토를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하였고, 후금에 있어서는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국서를 교환하거나 물자를 보내주는 등<sup>21)</sup> 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인조반정 이후, 이괄의 난을 비롯한 조선 정국의 불안정, 친명 사대주의의 표명과 척화론의 대두, 청의 극심한 기근 등은 청의 침략을 자극하는 원인이 되어 정묘호란이 발생하게 되고, 후금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무기력하게 강압적인 화의를 맺고, 형제의 관계가 되었다. 그러나 和約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양국 간의 불만, 모문룡과 동강진 문제, 범월·쇄환의 시비, 開市에 대

19) 『光海君日記』10年, 「閏4月 23日」, “第我國於天朝, 有父子之義, 有再造之恩, 今此徵兵之舉, 何敢以兵單力弱, 而少有持難之色? 惟當抄發兩西之軍, 務精不務多, 汲汲操鍊, 預爲整理, 以俟勅諭之至.” 이하 조선왕조실록의 원문과 인용문은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에서 인용하였으며, 이하도 마찬가지이다.

20) 『광해군일기』10年, 「閏4月 24日」, “伏承聖教, 以意外之變爲慮, 至矣盡矣. 但天朝是我父母之國, 而有再造之恩. 今有外侮, 徵兵於我, 則在我之道, 安可不爲之馳援乎”

21) 『광해군일기』13年, 「9月 10日」, “뒷날 추장이 사람을 시켜 물기를 ‘조선은 대국인데, 멀리 차관을 보내어 찾아주고 또 예물까지 많이 주니,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우리쪽에서도 서울로 차인을 보내 조정에 사례하려고 하는데, 차관께서 데리고 가겠는가?’(後日, 僞使人問曰, 朝鮮卽大國, 辱遣差官遠問, 且有所贈厚禮, 不敢當. 吾亦欲送差人, 偕至京城, 以謝朝廷, 差官能帶去否).”

한 마찰 등 조선과 후금간의 관계는 날로 악화되어 갔다.<sup>22)</sup>

그러나 병자호란을 통해 인조는 결국 주화론에 동의하고 청과 군신관계의 수립을 포함한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호란의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고, 이는 최명길, 김자점을 위시한 주화파가 정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반청론(反淸論)을 주장하는 산림세력이 성장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송시열을 필두로 한 반청적 사림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는데, 효종이 즉위하자 북벌론의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sup>23)</sup> 이후에도 이른 바 삼전도한비(三田渡汗碑) 사건,<sup>24)</sup> 연호 사용 문제<sup>25)</sup> 등을 비롯하여 조선 조정 내에서는 청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조선이 40여 년의 기간 동안 3차례의 큰 외침을 받게 되어 물리적·정치적 혼란에 빠지게 된 상황에서 1606년 홍주원은 예조참판 홍영(洪靈)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월사(月沙) 이정귀(李正龜)의 딸이다.<sup>26)</sup> 태어나서 사흘 간 우는 소리를 내지 않아 조부(祖父)인 모당(慕堂) 홍이상(洪履祥)이 귀하게 될 징조라 하였다. 어려서부터 기도(器度)가 있어 이정귀가 데려다 가르치고 길렀으며, 북저(北渚) 김유(金瑬)에게서도 수학하였다.

글을 지으면 선배들에게 항상 칭사를 받았으며, 관례(冠禮)를 치루기도 전에 장옥(場屋)에 응시하여 발해(發解)에 합격하였다. 1623년에 인목 왕후(仁穆王后)가 서궁(西宮)에 10년 동안 윤패(幽閉)되었다가 다시 위호(位號)가 복귀되었고, 외동딸인 정명 공주(貞明公主)도 오랫동안 고폐(錮廢) 당하여 있었는데, 인조가 공주를 위하여 부마(駙馬)를 골랐다. 당시는 인조반정 초기였기 때문에 명문(名

22) 김종원, 이장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9, 1995, 236-272면 참조.

23) 안명진, 「17세기 북벌정책의 전개와 정치적 의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5-11면 참조.

24)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치욕스런 항복을 한 삼전도에 청 태종의 공덕을 칭송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한 사건이다. 조선을 시간을 지연시키고자 하였으나, 청의 강압에 못 이겨 장유(張維) 등에게 비문의 초안을 작성케 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소략하고, 은연중에 황제를 얕잡아보는 대목도 있어 다시 지을 것을 강요했다. 인조는 문신들에게 새로 지어 올릴 것을 명했으나 아무도 청 태종을 찬양하는 글을 지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은 대제학 이경석(李景奭)에게 짓게 하였고 비석은 세워지게 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95-296면 참조.

25) 전쟁 후에도 청의 연호인 “崇禎”을 사용하지 않고, 명의 연호인 “崇禎”을 사용하거나 명이 망한 후에도 “崇禎紀元之後某年” 등 명 나라 최후의 연호를 사용했다. 그렇지 않으면 청의 연호 대신 “上之某年” 등을 사용했다.

26) 이하의 논의는, 송시열, 「碑」, <永安尉洪公神道碑銘 并序>, 金壽恒, 『文谷集』卷19, 「墓誌」, <永安尉洪公墓誌銘 并序>, 李敏鉞, 『西河集』卷16, 「行狀」, <永安尉洪公諡狀>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門) 우족(右族)과 노성(老成)한 현호(賢豪)들이 모두 조정에 있었고, 그들의 자제와 문생(門生)들도 모두 뛰어난 준재(俊才)와 영특한 인물이었으나, 홍주원이 특별히 간택(簡擇)되었다.

1624년 이괄의 난 때에는 자전(慈殿)을 호종한 노고로 한 품계를 올려 성록대부(成祿大夫)가 되었으며, 주원(廚院)과 총부(總部)를 관장하였다. 병자호란 때에는 아버지와 함께 어가(御駕)를 호종해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으며, 난리가 끝난 뒤에는 분개한 심정으로 왕실을 걱정하여 눈물을 그친 적이 없다고 한다. 홍주원에게 보이는 청에 대한 반감의 큰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부마라는 지위의 특성상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지만, 조정 내에서 나름의 교유관계를 확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1651년 잠곡(潛谷) 김육(金堧)이 홍주원의 재능을 아까워 해 상소를 올려 파격적으로 부례(附禮) 제조(提調)가 되었는데, 비용이 절감되고 일의 진행이 매끄러웠다고 한다.

또한 1654년에는 연행을 다녀온 후 평소 두텁게 지내던 조석운(趙錫胤)과 박장원(朴長遠)이 언사(言事)로 인해 유배되자, 이를 구명하기 위해 상소를 올렸으나 부마가 국정에 간여한 것은 국법에 어긋나기에 파직되기에 이른다. 상소 자체는 효과가 없었으나, 이 일로 사론(士論)에서는 홍주원을 더욱 어질게 여겼다고 한다. 그리고 파직된 홍주원을 위해 얼마 지나지 않아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와 승지(承旨) 김익희(金益熙)가 상소를 올렸고, 이에 용서를 받고 관직이 복구되었다.

홍주원은 말년에 병으로 고생했는데, 현종이 의원과 약재를 지속적으로 보내주었으나 1672년 9월 14일 숨을 거두었다. 시호는 문의(文懿)이다. 그의 묘지는 처음 파주에 자리 잡았으나, 정명공주가 죽은 이후에 술인(術人)이 홍주원이 묘터가 좋지 않다고 하여 풍덕(豐德)의 모처로 옮겨 합장하였다.

이상에서 홍주원의 문학적 연원과 일생의 정치적 사건들을 간략히 고찰했다. 그러나 인격적인 측면이 연행시 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다룰 필요가 있다. 따라서 증언에 의한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공의 뜻은 香火의 폐지 여부는 남에게 있고 폐지되지 않도록 힘쓰는 도리는 나에게 있으므로 나에게 있는 도리야 내가 감히 힘쓰지 않을 수 없지만 남에게 있는 것이야 따져서 무엇하겠느냐는 것이리라. 그러나 사람이란 반드시 제가 할 일을 다한 뒤에야 남에게도 요구할 수 있는 법인데, 지금 공이 후인에게 요구하는 바가 이와 같은 것을 보면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되어서 그 성효(誠孝)를 다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 27)

② 일찍이 심한 비바람이 몰아쳐서 물줄기가 땅바닥에 쏟아져 흐르자 공은 갑자기 슬퍼하는 기색을 지었는바, 자제들이 그 까닭을 물으니 공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다. 대체로 공이 일찍이 그 선고인 참판공(參判公)의 묘소를 이장(移葬)하였는데 물이 묘소의 흙을 깎아낸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그 일을 떠올리고서 스스로 이와 같이 상심한 것이라고 한다. 세상의 교화가 쇠퇴한 뒤로부터 조상에게 보답하는 예의가 먼저 없어져서 사람들은 벼슬이 높고 나이가 많으면 더욱 제사에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공은 매양 천향(薦享)하는 때를 당하여 비록 몹시 추운 겨울일지라도 반드시 그 몸을 깨끗하게 씻었고 청소하고 진설하고 장만하는 일들을 모두 자신이 감독하고 살피었다. 공의 선행을 비록 모조리 기록할 수 없지만 이것은 가장 민물(泯沒)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sup>28)</sup>

①의 내용은 홍주원이 향화의 폐지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은 그 도리를 마땅히 힘써야만 하는 것이고, 또한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정성과 효에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라는 평이다. ②의 내용 역시 조상과 제사에 관한 홍주원의 평소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심한 비바람으로 인해 이장한 조상의 묘가 훼손된 것을 자신의 잘못이라 여기고 눈물을 흘렸으며, 지위와 나이에 상관없이 제사를 대하는 태도는 항상 경건하였으며 작은 일까지 직접 살피보았다. 위의 두 인용문은 조상에 대한 예의와 효에 대한 홍주원의 인식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7) 송시열, 「記」, <追遠堂記>, “公之意, 蓋曰其廢不廢, 存乎人, 使不廢, 存乎我, 存乎我者, 我不敢不勉, 其存乎人者, 又何知焉. 雖然人必有諸已而後能責於人, 今公之所以責於後人者如此, 則其自爲人之不知之人而盡其誠孝, 可知矣.”

28) 송시열, 「碑」, <永安尉洪公神道碑銘 并序>, “嘗值大風雨, 水流迸地, 公忽有怵惕之色, 子弟問其故, 公泫然泣下. 蓋公嘗遷其考參判公墓而有水齧痕, 故追思而自傷如此云. 自世教衰, 報本之禮先亡, 人位高而年老, 則益衰怠於祭祀, 而公每值薦享, 雖隆冬盛寒, 必澡浴其身, 至於灑掃陳設, 洗滌裁割, 無不監省. 公之善行, 雖不可盡書, 而此最其不可沒者也.”

① 공은 법도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 자란 까닭에 본래부터 규도(規度)가 있었고 성품이 독후(篤厚)하고 온아(溫雅)하고 관대하고 침착 신중하였다. 몸가짐을 올바른 방도로 유지하고 남을 공경한 태도로 접하였으며, 또 집안에서의 행실도 순박하고 지극하였다. 부모를 섬김에 그 효성을 다하였고 형제 사이에 처할 때 우애가 극진하였으며, 구마(裘馬)와 성색(聲色)이나 전원(田園), 재물 등에는 한번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 항상 문학으로써 자오(自娛)하였고 또 스스로 거실(巨室) 세족(世族)으로서 비록 바쁜 일이 없는 지위에 있을지라도 항상 국가에 대한 걱정을 잊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사류(士流)와 명승(名勝)들이 공과 기꺼이 교유하지 않으려는 자가 없었는바...<sup>29)</sup>

② 당시의 명사(名士)들도 그 가별(家閥)들을 내세우지 않고 즐거이 벗하여 서로 수창(酬唱)함이 마치 훈지(塤簋)와 같았고, 화해(和諧)함이 궁상(宮商)과 같았다.<sup>30)</sup>

③ 공은 신분이 귀한 데도 예의가 있었고 살림이 부유한 데도 검소하게 살았다. 네 번이나 연산(燕山)에 사행하였는데 저들에게 전례로 받은 선물들을 모두 하인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갖지 않았으며, 친구들을 두루 보살피 도와줌이 자기 집 안사람에게보다 더 두터웠다. 향리(鄉里)에 강종효(姜宗孝)라는 자가 있었는데 월사공(月沙公)의 먼 친속(親屬)으로 공의 인후(仁厚)함을 믿고서 무람없이 드나들었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공에게 얻어냈다. 일찍이 그가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에게 그 일을 자랑하니, 문경공이 찬탄하기를, “강종효는 미천한 사람인데도 그에게 이처럼 대우를 받았다니, 참으로 아무나 따를 수 없다.”고 하였다. 아! 그 이름이 세워지고 선비들이 붙좃는 것이 마땅하도다.<sup>31)</sup>

①은 홍주원의 평소 몸가짐과 행실에 대해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올바른 처신을 보여주고 있으며, 높은 신분과 지위에 있음에도 재물을 비롯한 겉치레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검소한 생활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오로지

29) 송시열, 「碑」, <永安尉洪公神道碑銘 并序>, “公生長法門, 自有規度, 篤厚而溫雅, 寬平而凝重. 方以處己而恭以接人, 又內行淳至, 事父母盡其誠, 處兄弟極其友, 裘馬聲色, 田園財賄, 未嘗一經於心. 而常以文學自喜, 又自以巨室世族, 雖處無事之位, 常不忘國家之憂. 以故士流名勝莫不樂與之遊.”

30) 송시열, 「序」, <無何堂文集序>, “以故一時名流, 亦不有其家, 樂與之友善, 酬唱如塤簋, 和諧如宮商.”

31) 송시열, 「碑」, <永安尉洪公神道碑銘 并序>, “公貴而有禮, 富而能儉. 四使燕山, 彼中例贈, 皆散之僉率而不自累, 其周恤親舊, 甚於己私. 鄉里有姜宗孝者, 月沙公疏屬, 恃公姻厚, 冒昧出入, 有求必得. 嘗以詫於金文敬公集, 文敬歎曰, 以姜之微而見待如此, 誠不可及也, 噫, 其名立而士附也宜哉.”

국가에 대한 근심과 ②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듯이 문학에 대한 애정, 교유 관계에 집중하였다. ③에서도 역시 검소한 습관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유연한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 제 2 절 燕行 狀況과 「燕行錄」의 構成

본 절에서는 네 차례의 걸친 각각의 연행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연행록』의 구성적 특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첫 연행인 1647년은 홍주원의 연행 시가 180여 수 남아있고, 당시 서장관이었던 이시만(李時萬, 1601~1672)의 문집인 『묵전당문집(默全堂文集)』 내에 연행 일정 및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반면 나머지 연행들에 있어서는 홍주원의 시 이외에 동행했던 부사와 서장관들의 사적(私的)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홍주원이 정사로 처음 선발된 해는 9년 전인 1638년 심양(瀋陽)으로 향하는 연행이었다. 그 때 당시 아버지인 홍영(洪靈)이 갑자기 중풍을 얻어 반신불수가 되었고, 침과 약도 소용이 없어 근심이 크니 사신을 면하게 해 달라는 상소<sup>32)</sup>를 올려 사신행을 면했던 사실이 있다.<sup>33)</sup>

명과 청의 지속적인 대립으로 인해 청이 북경에 입궐하고, 대청연행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주화론과 척화론의 대립 등 조선 조정의 혼란함 속에서 홍주원은 1647년 42세의 나이에 사은겸冬至使(謝恩兼冬至使)의 정사의 자격으로 북경으로의 첫 연행길에 오르게 된다.

32) 洪柱元, 『無何堂遺稿』冊五, 「筭」, <因親患乞免使臣疏 戊寅>, “伏以微末小臣, 濫蒙天恩, 驟躋巍班, 徒窃厚廩, 尋常戒惧, 若無所容. 不意今者, 節使之行, 遽及於無似之臣, 夫儀賓之不預於朝家大小事, 其來尙矣. 非但意有所在, 豈不以年少驟陞之人, 不能解事故也. 無前之事, 不合之狀, 固不暇論, 而臣又有罔極之私情, 不得不大聲疾呼於天地父母之前. 臣父於上年六月在摠府直所, 卒得中風, 半身不遂, 言語蹇澁, 鍼藥無效, 轉輾沉痾, 委身床席, 已過一年, 種種危證, 難一二言, … 中略 … 只緣父病甚篤, 痰塞頻數, 時月分離, 方寸莫定. 又伏想節使之往, 非止此行, 倘父病少差, 則他日之行, 亦何敢辭. 承乏奉使, 前後何間, 私情悶迫, 干瀆宸嚴, 伏願天地父母, 曲垂慈憐, 臣所差節使, 特許違免, 臣無任涕泣祈懇之至.” 원문은 『한국문집총간 續』 30권, 민족문화추진회, 2005.를 인용하였으며, 이하 『무하당유고』를 인용할 경우 ‘홍주원, 「筭」, <因親患乞免使臣疏 戊寅>’의 형식을 따름.

33) 1638년 다섯 번의 연행 중에 어떤 연행의 정사로 발탁되었는지는 상고할 수 없으나, 9월의 謝恩陳奏兼聖節冬至使의 정사가 유일하게 부마의 신분인 것으로 보았을 때 가장 유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정사는 선조의 다섯째 딸인 정안옹주(貞安翁主)와 혼인하여 금양위(錦陽尉)에 봉해진 박미(朴彌)이다.

첫 연행이 될 수도 있었던 1638년 연행사 정사의 자격을 사양하고, 1647년에 첫 연행길에 오르게 된 홍주원은 이후의 연행에서도 정사의 자격으로 세 차례 더 북경을 방문했는데, 그의 연행 상황을 도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각 연행별 구성과 일정

西紀	資格	正使	副使	書狀官	歸國	其他
1647. 11. 1	謝恩兼冬至使	洪柱元	閔聖徽	李時萬	1648. 2. 27	
1649. 6	告訃兼秦請使	洪柱元	金鍊	洪瑱	1649. 11월 이전	
1653. (閏)7	謝恩兼陳奏使	洪柱元	尹絳	林葵	11. 30	
1661. 2. 20	陳慰兼進香使	洪柱元	李正英	李東老	6. 7	順治皇帝· 皇后의 死亡

그의 첫 번째 연행은 사은겸동지하례(謝恩兼冬至賀禮)를 위한 것으로 세폐(歲幣)를 감해준 데 대해 사례하고, 겸하여 동지(冬至)와 정조(正朝)를 축하하려는 것<sup>34)</sup>이었다. 또한 이 연행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국내에 최초로 서양 역법인 시헌력(時憲曆)을 소개한 점<sup>35)</sup>이다.

이 때 연행은 당시 서장관이었던 이시만이 『묵전당문집』 내에 그 일정과 경로 및 그 날의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비교를 통하여 상고할 수 있다. 이시만의 기록은 날짜별로 노정과 특기할 만한 사실들을 적고, 그 날 지은 시를 부기(附記)한 형식이다. 총 157 수의 시가 남겨져 있는데, 그 중 100수 이상이 홍주원과 서로 차운하며 주고받은 작품이다. 이시만의 기록을 토대로 한 당시의 대략적인 노정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34) 『仁祖實錄』25年, 「10月 4日」, “以永安尉洪柱元爲謝恩使。謝減幣, 兼賀冬至、正朝也。…”

35) 『인조실록』 26年, 「2月 27日」, “사은사 홍주원(洪柱元)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청인이 자문을 보내면서 역서(曆書)도 보냈는데, 이른바 시헌력(時憲曆)이다. 그 역법(曆法)은 우리나라의 것과 같지 않은 것으로 곧 서양(西洋)에서 새로 만든 것이었는데, 절기(節氣)에 조금 앞서거나 뒤진 것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3월을 윤달로 삼는데 이른바 시헌력에는 4월이 윤달이다(謝恩使洪柱元回自北京. 清人移咨送曆書, 所謂時憲曆也. 其曆法與我國不同, 卽西洋國新造者也, 節氣稍有先後. 且我國則以三月爲閏, 而所謂時憲曆則四月也).”

〈표2〉 1647년 연행노정

고양(高陽) → 파주(坡州) → 장단(長湍) → 송도(松都) → 금천참(金川站) → 평산(平山) → 충수참(蔥秀站) → 검수참(劍水站) → 봉산(鳳山) → 황주(黃州) → 중화(中和) → 평양(平壤) → 순안(順安) → 숙천(肅川) → 안주(安州) → 가산(嘉山) → 정주(定州) → 운흥참(雲興站) → 임반(林畔) → 거련관(車輦館) → 양책(良策) → 소곶참(所串站) → 의주(義州) → 구련성(九連城) → 탕참(湯站) → 봉황성(鳳凰城) → 책문(柵門) → 송참(松站) → 통원보(通遠堡) → 계수참(憩水站) → 사하보(沙河堡) → 사령(沙嶺) → 고평역(高平驛) → 만산역(盤山驛) → 대릉하(大凌河) → 송산보(松山堡) → 탑산보(塔山堡) → 영원위(寧遠衛) → 중우소(中右所) → 전둔위(前屯衛) → 산해관(山海關) → 심하(深河) → 무녕(撫寧) → 영평부(永平府) → 사하(沙河) → 풍운(豐潤) → 옥전(玉田) → 계주(薊州) → 삼하(三河) → 통주(通州) → 북경(北京)

남겨진 시가 다수이고, 대부분 詩題에 장소를 밝혀두고 있기 때문에 노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고할 수 있다. 이 연행에서 들렀던 대표적인 장소를 꼽아보자면, 영원위(寧遠衛)의 향교, 산해관(山海關)의 누대(樓臺), 호랑구(虎狼口), 각산사(角山寺), 이제묘, 왕상(王祥)의 묘, 청절사(淸節祠), 조대수의 패루<sup>36)</sup> 등이다.

북경으로 향하는 도중에는 자제군관이 아닌 정사라는 신분과 시일의 촉박함이 주된 원인이었겠지만, 노정에서 크게 벗어나 산수를 유람하거나 사적지를 방문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대체로 영원위에 있는 조대수(祖大壽)의 집과 패루<sup>37)</sup>, 백이숙제(伯夷叔齊)의 사당인 이제묘(夷齊廟), 독락사(獨樂寺), 향화암(香花庵)<sup>38)</sup> 정도를 둘러보았으며 이와 관련한 시를 남겼다.

돌아오는 여정에서도 앞서 들렀던 이제묘만 방문했을 뿐, 일절 노정을 벗어난

36) 홍주원, 「燕行錄」, 언급한 순서대로 영원위 향교에 대한 것은 <56. 入接寧遠衛鄉校有感>, <260. 入接寧遠衛鄉校有感>, 산해관 누대는 <59. 入接山海關察院, 登後樓口占>, 호랑구는 <66. 過虎狼口>, 각산사는 <120. 四月初一日, 副使書狀, 偕往角山寺, 余雖以曾已登眺辭之, 實坐衰憊, 不勝羨歎, 錄成一律>, 이제묘는 <123. 到夷齊廟. 有感記懷>, 왕상의 묘는 <248. 過王祥墓>, 청절사는 <261. 又次外祖淸節祠韻>, 조대수의 패루에 관한 것은 <275. 寧遠城中, 見祖大壽牌樓>이다.

37) 홍주원, 「연행록」, <187. 次寧遠城感懷 七絕 其二, 其三>. 시제 앞의 번호는 편의상 필자가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연작시에는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시제에만 번호를 부여했음을 밝혀둔다.

38) 홍주원, 「연행록」, 순서대로 이제묘를 읊은 시는 <15. 夷齊廟感懷>, <16. 又次夷齊廟韻>, <27. 永平道中, 次追憶夷齊廟韻>, <85. 次夷齊廟韻>, 독락사에 대한 시는 <196. 次獨樂寺韻>, 향화암에 대한 시는 <86. 次香花庵韻>가 있다.



유람은 없었는데, 이는 당시 북경으로 향하던 여정에서 유명(幽冥)을 달리한 부사 민성휘(閔聖徽)의 상행(喪行)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다는 사실도 큰 원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추측된다.<sup>39)</sup>

두 번째 연행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대해 현재까지 해제된 연구에서 차이를 보인다. 『연행록 연구』<sup>40)</sup>의 연행날짜별 정리 목록에는 1649년 6월 출발로 되어 있고, 『연행록해제』<sup>41)</sup>에는 1650년 5월 14일로 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본다면, 전자의 해제가 옳다. 1649년 5월 14일 기사에서는, ‘홍주원(洪柱元)을 고부청시청승습정사(告訃請諡請承襲正使)로, 김련(金鍊)을 부사(副使)로, 홍진(洪瑱)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았다.’<sup>42)</sup>라는 기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해 11월 2일에 ‘…참찬관 김익희(金益熙)가 아뢰기를, “새로 즉위한 처음이어서 저들이 반드시 의심하고 염려할텐데 신이 고부사(告訃使) 홍주원(洪柱元)의 말을 들으니 우리나라 경계에 들어오면서부터 곳곳에서 척화(斥和)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sup>43)</sup>라는 기록을 통해서 홍주원이 이미 고부사로 연경에 다녀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당시 사행의 목적은 고부청시청승습사(告訃請諡請承襲使)로 인조의 죽음을 알려 시호를 받고, 효종의 왕위 승계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므로, 1649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당시 올린 홍주원의 상소를 보자면, 개인적으로도 괴로운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5월 14일에 정사로 차출된 그는 익일인 15일에 부친의 죽음과 모친의 오랜 투병 생활, 두 형제의 병환 등을 이유로 이번 사행을 면하게 해달라는 상소문을 올린다. 특히 모친의 경우를 상세히 설명했는데, 부친을 여읜 후 수 십년 간 병이 누적되어 있으나, 밤낮으로 간호하여도 겨우 실낱같은 목숨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1647년 연행 때 모친의 병환이 더욱 심해진 점 등을 들어 사행을 면하고자 하였다.<sup>44)</sup> 이에 효종은 홍주원의 상소를 들어주려 하였으나, 당시 일을

39) 민성휘는 북경에 체 도착하기도 전에 병이 들어 12월 20일 사하(沙河)에 머물게 되었고, 다른 연행사들보다 뒤쳐져서 따라오게 된다. 북경으로 먼저 향하는 내내 홍주원과 이시만은 그에 대한 걱정을 시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결국 12월 27일 북경에 이르러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민성휘가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홍주원의 시와 서장관 이시만의 기록과 시를 통해 자세히 남아 있다.

40) 임기중, 『연행록 연구』, 일지사, 2006.

41) 한국문화연구소, 『연행록해제』, 한국문화연구소 연행록해제팀, 2003.

42) 『孝宗實錄』即位年, 「5月 14日」, “以洪柱元爲告訃請諡請承襲正使, 金鍊爲副使, 洪瑱爲書狀官.”

43) 『효종실록』即位年, 「11月 2日」, “…參贊官金益熙曰: “新服之初, 彼必有疑慮, 而臣聞告訃使洪柱元之言, 則自入我境, 到處聞斥和之說云…”

44) 홍주원, 「疏筭」, <陳情乞遙使臣疏 己丑五月十五日>, “乙酉之夏, 臣父見背, 臣母以數十年積病之人,

맡은 담당자가 결국 홍주원으로 낙점하였다.<sup>45)</sup>

세 번째 연행인 1653년 역시 당시 연행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실록 자료나 홍주원의 기록 또한 적은 편이다. 그나마 1649년 연행에 비해 확정할 수 있는 시가 몇 편 있고,<sup>46)</sup> 이 때 연행에서도 첫 연행과 마찬가지로 이제묘(夷齊廟)를 들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당시 상황을 탐문하고 조정에 아뢴 것이 실록에 남아 있는데, 당시 중국 남쪽 지역엔 전란의 겁화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sup>47)</sup>

마지막 연행인 1661년에는 56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陳慰兼進香使의 정사로 발탁되어 북경으로 향하게 되었다. 당시 황후와 황제의 상(喪)이 잇달아 일어나며 선발 과정에서 약간의 혼란함을 빚었으나, 결국 황후와 황제의 상의 사행단을 둘로 나누고, 서장관만이 두 사행의 임무를 겸하게 하였다.<sup>48)</sup>

草土哭泣，所患轉劇，臣晝夜救護，僅延縲命，服闋數月。臣旋差謝恩使，是時母病猶重，而臣不敢言私，泯默就道，上年二月，纔得復命，母子重見，何莫非賴天之靈也。臣母今年六十五歲，以其年歲言之，則非如七八十衰甚之比，而種種之疾，皆是難醫之証，血崩爲祟，床席沉痾，百藥未效，元氣日鑠，加以心火極熾。夜不交睫，廢食引冷，柴毀到骨，閨房之內，坐臥須人。自今年二月，兩臂又不運用，轉側之狀，呻痛之聲，人子之情，何忍一刻安心，家又不幸，臣之兩弟，皆得狂易之症……”

45) 송시열, 「碑」, <永安尉洪公神道碑銘 并序>, “…己丑, 孝宗卽位, 差告訃使, 上以公纔使還, 又以母老欲勿遣, 任事者竟以公行…”

46) 홍주원, 「연행록」, <99. 大凌河>, <140. 夷齊廟>, <231. 重陽>.

47) 『효종실록』4年, 「11月 30日」, “사은사(謝恩使) 홍주원(洪柱元), 부사 윤강(尹絳), 서장관 임규(林葵)가 북경에서 돌아왔다. 홍주원 등이 탐문한 연중(燕中)의 사정은 다음과 같다. “청주(淸主)가 명나라의 항장(降將) 오삼계(吳三桂)를 서평왕(西平王)으로 삼고 누이를 그의 아들에게 시집보내면서 남방의 일을 전담시켰다 합니다. 옥전성(玉田城) 안에서 한인(漢人) 이연성(李連城)이라는 자를 우연히 만나서 남경(南京)의 소식을 은밀히 물었더니, 말하기를 ‘송정 황제(崇禎皇帝)의 형 노왕(魯王)의 아들이 광서(廣西)에 도읍을 세운 뒤 연호를 영력(永曆)이라 하고 군사가 1백만이라 하는데 다 백포(白布)로 머리를 싸맸으므로 백두병(白頭兵)이라 한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관(館)에 머문 지 자못 오래 되었으므로 사람을 시켜 한거원(韓巨源)에게 은밀히 물었더니, 말하기를 ‘황제의 형 홍기왕 상(紅旗王廟)이 남정(南征)하였다가 패하여 죽어서 남은 군사가 시체를 싣고 돌아왔으므로 상하가 우려하여 다른 일에는 거를이 없어 이 때문에 지연된다.’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신이 자주 왕래하기는 하나 노정(虜情)은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그 소문도 죄다 확실하지는 못합니다(謝恩使洪柱元, 副使尹絳, 書狀官林葵回自北京. 柱元等探問燕中事情, 淸主以明降將吳三桂爲西平王, 以妹妻其子, 專委以南方事云. 玉田城中, 偶逢漢人李連城者, 密問南京消息則言, 崇禎皇帝兄魯王之子, 建都於廣西, 年號永曆, 軍號百萬, 皆以白布裹頭, 號白頭兵云. 臣等留館頗久, 使人密問於韓巨源則言, 皇帝兄紅旗王廟南征敗死, 餘軍輿尸而歸, 上下憂慮, 不遑他事, 以此遲延云. 我國使价, 雖頻數往來, 虜情無由得知, 而其所聞, 亦未盡的云).”

48) 『憲宗改修實錄』2年, 「1月 30日」, “이 때 청국에는 앞서 후상(后喪)이 있어서 영안위(永安尉) 홍주원(洪柱元)·호조 참판 이정영(李正英)을 진향사(進香使)로 삼았기에, 이때에 와서 청주상 진향사(淸主喪進香使)를 겸하게 하였다가, 곧 비국의 계사로 인하여 좌운 심지명(沈之溟), 예조 참의 이진(李珍)을 후상 진향사로 차정하였으며, 서장관 이동로(李東老)는 두 사행(使行)을 겸하여 살피게 하였다(時淸國先有后喪, 以永安尉洪柱元, 戶曹參判李正英, 爲進香使, 至是, 兼淸主喪進香使, 旋因備局啓辭, 以左尹沈之溟, 禮曹參議李珍, 差后喪進香使, 書狀官李東老, 兼察兩行).”



홍주원이 연행했던 시기는 명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남명(南明)의 형태로 잔존해 있었으며, 청 나라 역시 그 국가적 기반이 완벽하게 잡혔다고 보기 어려운 과도기적인 시기이다. 일례로 사신단의 통행에 있어서도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였다. 사신단 통행에 대한 것은 다음 서장관의 기록을 통해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른 아침 성 북쪽으로부터 관문에 들어가니 수성장(守城將)이 일행의 인마에 점을 찍은 후 비로소 나가는 것을 허락했다. 역관을 보내 청 나라 사람에게 물어 보니, “이번 연도부터 관법(關法)이 심히 엄해져 제일관문(第一關門)은 다만 왕자나 칙사(勅使)만 출입할 수 있고, 다른 나머지는 모두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sup>49)</sup>

본국으로 온 사신단이라 할지라도 그 출입통제에 엄격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경을 점거(1644년)한 지 3년 밖에 지나지 않아 관리체계를 보다 엄중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 나라는 이후 시국이 안정된 18세기에 비해 조선사신단의 북경 체류일자를 지극히 짧게 했으며,<sup>50)</sup> 실제로 북경 체류기간 동안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 북경 시내를 다닌 행보는 전혀 기록된 것이 없으며, 홍주원의 시에도 북경 내의 여타 장소를 찾아가 남긴 것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또한 1647년 연행 당시 북경에 이르기 직전에 목숨을 잃은 부사 민성휘의 관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엄격하게 다루는 등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의 기록은 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49) 李時萬, 『默全堂文集』, 「1月 24日」, “早朝由城北●關門, 守城將點●一行人馬, 始許出. 送問譯清人, 則自今年關法甚嚴, 第一關門則只令王子及勅使出入, 他餘皆不德許云…” ●은 필사 상태에 의해 확실히 확인이 되지 않는 글자이다. 이하도 마찬가지이다. 이시만의 기록은 한국문학연구소, 『국학고전 연행록해제』1, 유성문화사, 2003.를 참조하였으며, 필자의 판단으로 원문을 통해 번역은 일부 수정한 부분이 있으며, 이하의 기록들 역시 마찬가지임을 밝혀둔다. 이하 『목전당문집』을 인용할 경우 ‘이시만, 「1月 24日」’의 형식을 따름.

50) 모든 연행의 정확하게 북경 체류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1647년 연행의 경우, 11월 1일에 출발하여 12월 25일 옥하관에 도착했다. 이후 1648년 1월 13일에 옥하관을 떠났으므로 북경 체류일자는 도착일과 출발일을 제외하면 19일이 된다. 나머지 연행 역시 1647년과 연행에 걸린 시일이 4개월~5개월인 것으로 보아 북경체류일자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① 정(鄭)이 예부(禮部) 아문(衙門)으로부터 객사 밖에 이르기까지 역관을 시켜 말을 전하기를, “사신의 관을 관내에서 머물게 할 수 없다. 하대문(河大門) 밖 7, 8리 즈음에 묘당(廟堂)이 있으니 속히 관을 옮겨라.”라고 하며 재촉하는 것이 급했다 한다. 사신 이하 원역(員役)들이 곡을 하며 관을 관소(館所) 중문(中門) 밖으로 전송하니, 아역(衙役)과 역관 무리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sup>51)</sup>

② 예부(禮部)에서 사신 일행을 맞아들여 아문(衙門)에서 하마연(下馬宴)을 베풀어 행했다. 이 날 저녁 예부에서 부사의 상수(喪需)로써 관 값 은(銀) 12 兩, 명정(銘旌)으로 무늬 있는 명주 1 疋을 보내왔다.<sup>52)</sup>

③ 예부(禮部)에서 황제의 명으로 부사의 제사를 내려주었다. 집사관(執事官) 4인, 제사 음식은 돼지와 양 각각 한 마리, 과일 다섯 종, 떡 4그릇이다. ...<sup>53)</sup>

①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민성휘는 관은 3일장을 제대로 치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숨을 거두고 3일 뒤에 청의 요청으로 인해 관외의 묘당으로 급히 옮겨졌다. 이후에 ②와 ③에서의 기록처럼 공식적인 절차는 이루어졌으나, 이는 애도의 감정은 느껴지지 않는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근거로 민성휘의 사후 3일간은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지만, 사신단은 12월 30일부터 북경을 나서는 날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했다. 또한 절차상 시일이 걸렸다고 하기에는 후속조치에 꽤 많은 시일이 걸렸다는 점도 걸린다.

이외에도 홍주원이 여행지에서 전반적으로 보이는 흥미로운 점은 북경 내에서 지은 시와 청 나라 인사들과 주고받은 시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북경 내에서 작시(作詩)하지 않은 것은 그 일정상의 촉박함 때문으로 보인다. 자제군관이 아닌 정사의 자격으로 갔으며, 대청연행 초창기 조선사신을 향한 호의적이지 못한 인식으로 북경체류일자 자체가 짧았고, 거의 매일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해야만 했다. 청 나라 문인과의 교류가 없었던 것은 청에 대한 홍주원의 반감이 적나라하

51) 이시만, 「12월 30日」, “鄭自禮部衙門到館外, 使譯官傳言, 臣喪柩不可留殯館內. 河大門外七八里許有廟堂, 速爲移柩云. ●督甚急. 使臣以下員役等哭, 送喪柩于館所中門外, 衙譯輩皆流涕...”

52) 이시만, 「1월 4日」, “禮部邀請使臣一行, 設行下馬宴于衙門. 是夕禮部以副使喪需, 送棺價銀十二兩銘旌次紋綯一定.”

53) 이시만, 「1월 9日」, “禮部以帝命, 賜祭于副使喪. 次執事官四人, 祭膳猪羊各一口, 果五種, 餅四器...”

게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시를 통해 언급하도록 하겠다.

홍주원의 「연행록」은 그 구성적인 면에 있어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 『무하당유고』는 홍주원이 사후(死後)에 아들 홍만용(洪萬容, 1631~1692)과 손자인 홍중기(洪重箕, 1650~?)에 의해 수집되어 1684년에 편찬된 것이다.<sup>54)</sup>

그렇기 때문에 문집 내에 수록되어 있는 순서 자체는 홍주원의 뜻에 의해 편집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무하당유고』 자체의 구성이 아닌 「연행록」의 구성과 작품의 형태이다.

「연행록」 내 작품 중 산문은 전혀 남겨진 것이 없고, 漢詩만이 303題 364수가 실려 있다. 수록은 五言律詩, 七言律詩, 五言絶句, 七言絶句, 排律의 순서로 되어 있다.

전술하였듯이 1647년 연행을 제외하고는 홍주원 이외의 연행사들의 사적 기록은 현재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할 방법이 없으나, 1647년과 1661년 작으로 밝혀진 작품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1649년과 1653년의 작품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649년 연행에서는 부사였던 김련이 김자점(金自點)의 아들로서 그 일파가 역모로 인해 죽임을 당하였고, 사행의 목적 자체가 엄숙했다. 그의 연행시들이 대부분 여정에 따른 감회이거나 일행들과 주고받은 것들이 많은데,<sup>55)</sup> 일행들의 개인적인 불우함과 엄숙한 사행의 목적, 정치적인 상황 등이 더해져 시를 별로 짓지 않은 듯하다.

연행록의 구성은 먼저 형식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같은 형식 내에서 연도별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일한 연행이라고 하더라도 여정의 순서대로 실려 있지는 않다. 시의 비율로 보면, 오언율시가 70수, 칠언율시가 82수, 오언절구 11수, 칠언절구 193수, 배율 8수(칠언 4수, 오언 4수)로 칠언절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명나라로 연행하여 남긴 연행록들은 주로 시의 형태로 남겼지만, 청으로 바뀌면서(1637년) 시와 산문이 혼용되던 시기를 거쳐 점차 산문의 비중이 커져갔

54) 송시열, 「序」, <無何堂文集序>, “...蓋既歿而其胤宗伯公萬容伯涵。孫重箕九以。哀稔平日詩什。爲若干編以示余...崇禎關逢困敦仲冬日。恩津宋時烈序。”

55) 한국문학연구소, 『연행록해제』, 한국문학연구소 연행록해제팀, 2003, 252면.

다.<sup>56)</sup> 홍주원이 활동했던 17세기 중반의 다른 연행록들도 대부분 일기체 형식이 많다. 1637년부터 1699년<sup>57)</sup>까지 총 87종<sup>58)</sup>의 연행록의 구성을 확인해 본 결과, 詩가 수록되어 있는 연행록은 총 34종이다. 이 중 같은 연행의 기록물을 산문과 운문으로 분리해서 엮은 경우가 9건, 일기체와 시가 혼효된 양상을 보이는 것이 2건이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3〉 1637년~1699년의 연행록 구성<sup>59)</sup>

번호	연도	연행록명	저자	구성	기타
1	1637	同行錄	未詳	일기체	
2		燕中聞見	據崔鳴吉 記外	일기체	
3		瀋陽日記抄	未詳	일기체+시	
4		瀋陽日記	未詳	일기체	
5		瀋陽日記	未詳	일기체	
6		瀋陽日乘	金宗一	일기체	
7		承槎錄	未詳	명단만 존재	
8		使行錄	未詳	일기체	
9	1639	燕薊搜聞錄	鄭致和 外	일기체	
10		瀋館錄	申濡	시	
11	1641	赴瀋日記	李景嚴	일기체	
12		瀋陽日記	未詳	일기체	
13	1643	瀋館錄	李昭漢	시	
14	1644	瀋陽日記	未詳	일기체	
15		西行日記	未詳	일기체	
16	1645	燕行詩	麟坪大君滄	시	
17		燕行日記	成以性	일기체	
18	1646	燕行日記 上·下	郭弘址	일기체	
19		燕行錄	李景奭	시	
20	1647	赴燕詩	李時萬	일기체+시	
21		燕行錄	洪柱元	시	
22	1648	燕行日記	李埰	일기체	
23	1649	飲水錄	鄭太和	일기체	
24		燕山錄 上·下	仁興君李瑛	일기체	
25	1651	燕行詩	黃戶	시	
26	1652	燕臺錄	申濡	시	

56) 임형택, 「朝鮮使行의 海路 燕行錄 : 17세기 東北亞의 歷史轉換과 實學」, 『한국실학연구』9, 2005, 3면.

57) 비교 층위를 이와 같이 설정한 까닭은 1637년이 대청사행의 시작이고, 17세기 말엽부터 시작하여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차츰 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홍주원이 활동한 시기와는 인식의 차이가 다소 있으리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58) 87종이라는 수는 임기중에 의해 정리된 『연행록전집』에 최근 개별 연구로 이루어진 연행록을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59) 자료는 전적으로 임기중, 『연행록충간』에 수록된 연행록들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최근 연구가 이루어진 개별 연구가 두 종(1660년, 1670년 이원정의 「연행록」과 「연행후록」) 추가 되었다.

27	1653	燕行日乘	沈之源	일기체	
28		燕行錄	洪命夏	시	
29	1656	燕途紀行 上·中·下	麟坪大君潛	일기체	
30		北行酬唱	金南重	시	
31	1657	丁酉燕行日乘	沈之源	일기체	
32	1660	翠屏公燕行日記	趙珩	일기체	
33	1660	燕行錄	李元禎	일기체	
34		燕行路程記	姜栢年	노정과 거리만 기록	
35		燕京錄	姜栢年	시	
36	1662	飲水錄	鄭太和	일기체	
37	1663	朗善君癸卯燕京錄	李俁	일기체	
38	1664	燕行錄	洪命夏	시	분리해서 엮음
39		燕行錄	洪命夏	일기체	
40	1666	燕行錄	南龍翼	시	
41		燕行錄	孟冑瑞	일기체	
42	1668	西溪燕錄	朴世堂	시	분리해서 엮음
43		使燕錄	朴世堂	일기체	
44	1669	燕行錄	閔鼎重	시	분리해서 엮음
45		老峯燕行記	閔鼎重,	일기체	
46		赴燕日錄	成後龍	일기체	
47	1670	慶尙道漆谷石田村李 進士海澈燕行錄	李海澈	일기체	
48		燕行後錄	李元禎	일기체	
49	1676	燕行錄	鄭哲	시	
50	1677	燕行日錄	孫萬雄	일기체	
51	1678	北征錄 上·下	李夏鎭	시	
52		燕行錄	金海一	시	분리해서 엮음
53		燕行日記	金海一	일기체	
54	1680	燕行錄	申晷	시	
55	1682	藩使啓錄	未詳	일기체	
56		燕行日錄	韓泰東	일기체	
57	1683	燕行日記	尹攀	일기체	
58		擣椒錄 上·下	金錫胃	시	
59	1684	甲子燕行雜錄	南九萬	잡록	
60	1686	燕槎錄	吳道一	시	분리해서 엮음
61		丙寅燕行日乘	吳道一	일기체	
62		丙寅燕行雜錄	南九萬	잡록	
63	1687	燕行詩	任相元	시	
64	1688	燕行日記	金洪福	일기체	
65	1689	燕行續錄	金海一	시	분리해서 엮음
66		燕行日記續	金海一	일기체	
67		葵亭燕京錄	申厚載	시	
68	1690	燕行日錄	徐文重	일기체	분리해서 엮음
69		燕行雜錄	徐文重	시	
70	1693	燕行日記	柳命天	일기체	분리해서 엮음
71		燕行日記	柳命天	시	
72		연형별곡	柳命天	국문본	
73		燕行日記	申厚命	일기체	

74	1694	後燕槎錄	吳道一	시	
75		日記草	俞得一	일기체	
76		西征別曲	朴權	일기체	국문본
77	1695	燕行錄	洪受疇	시	
78		燕行錄	崔啓翁	시	
79	1696	燕槎錄	洪萬朝	시	
80		館中雜錄	洪萬朝	일기체	분리해서 엮음
81	1697	蕉回錄	崔錫鼎	시	
82		椒餘錄	崔錫鼎	시	
83		燕行日記	權喜學	일기체	
84		燕行(日)錄 上·下	權喜學	일기체	
85		星槎錄	宋相琪	시	
86	1698	燕行詩	李健命	시	
87	1699	燕行錄	姜銑	일기체	

여기에서 홍주원의 「연행록」만을 놓고 봤을 때, 두 가지 정도 주목할 만한 사실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평생 자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 중화의 선진문물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연행별 기록을 따로 집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홍주원 이외에도 따로 연행록의 제목을 짓지 않고 엮은 인물들은 다수 있으나, 여러 번 연행을 다녀온 인물들은 대부분 그 결과물을 따로 집적해 엮었다.<sup>60)</sup>

특히 어려서부터 홍주원의 학문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외조부 이정귀의 경우에도 4차례의 연행 경험을 각각 따로 엮은 전례가 있다.<sup>61)</sup> 그가 이정귀의 연행록을 지참하여 연행길에 올랐는지, 평소 이정귀에 시를 애독하여 외우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홍주원의 연행시가 대부분 차운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행과의 차운시를 제외하고는 두보와 이정귀의 시가 유일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sup>62)</sup>

외조부의 학문적 영향, 후대 연행에 있어 월사의 연행록이 갖는 위치<sup>63)</sup>로 보았

60) 대표적인 예로 申濡(1610~1665), 洪命夏(1608~1668), 金海一(1640~1691), 吳道一(1645~1703) 등이 있다.

61) 월사 이정귀의 연행록은 『戊戌朝天錄(1598)』, 『甲辰朝天錄(1604)』, 『丙辰朝天錄(1616)』, 『庚申朝天錄(1620)』이 있다.

62) 이정귀의 연행시를 차운한 작품으로는 홍주원, 「연행록」, <113. 靑石嶺. 次外祖記行韻>, <115. 遼東. 次外祖記行韻>, <117. 沙嶺次外祖記行韻>, <119. 望長城. 次外祖記行韻>, <122. 永平府路中. 次外祖記行韻>, <124. 榛子店. 次外祖記行韻>, <125. 眞武廟. 次外祖記行韻>, <128. 北京. 次外祖燕都韻>, <261. 又次外祖清節祠韻>, <301. 連山關道中. 奉次外祖記行錄中和杜甫赤谷詩韻>, <303. 早發豐潤. 次外祖記行韻>이 있다.

을 때에도 월사의 형식을 충분히 참고하여 구성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일행 이외의 차운시는 두보의 그것보다 월사의 양이 도드라지게 많으며, 여타 인물의 차운시는 전무하다. 전술하였듯이 어려서부터 월사에게 수학하였고, 문학적 평가에 있어서도 홍주원 문장의 연원이 월사에게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월사 역시 네 차례의 연행으로 남긴 「조천록」에서 시를 위주로 남겼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은 홍주원의 연행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당시 청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홍주원은 연행시를 통해 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오랑캐인 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4차례의 연행의 결과물을 당시 성행했던 방식대로 연행별로 엮지 않고 모아두기만 한 것이 아닐까 한다.

둘째, 연행록 구성에 있어서 산문에 비해 서술적 제약이 따르는 운문만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후일 3대연행록이라 불리게 될 정도로 대작이 된 연행록들이 등장하게 된 18세기에는 산문이 연행의 중심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7세기에도 여전히 시보다는 일기체 형식의 산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지하듯이 운문은 산문에 비해 그 형식적인 면에서 제약이 많다. 자연히 함축적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형식은 사물이나 경치를 묘사하는데 있어 산문에 비해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문만을 고집했으며, 더욱이 근체시로 규정되는 絶句와 律詩, 排律의 형태로만 작품을 남겼다.

홍주원이 활동했던 시기에 연행록에 시만을 남긴 경우가 드물지는 않기 때문에 홍주원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문집 내 남아 있는 작품의 형태로 보았을 때에도 운문에 대한 홍주원의 인식은 특별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 7冊 중 산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편지 2통을 제외하고, 1661년 연행 당시 서장관이었던 이정영(李正英, 1616-1686)에게 써 준 題後<sup>64)</sup>가 유일하다.

이러한 점은 홍주원의 시에 特長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며, 특히나 앞서 언급한 명청교체 직후라는 시기에 언론통제가 심했던 청나라<sup>65)</sup>로의 연행길이이었기에

63) 월사는 1604년 조선 연행사로써 처음으로 千山, 角山, 醫巫呂山을 유람하였다. 이후, 김창업(金昌業, 1658-1721)이 월사의 유기(遊記)를 가지고 세 산을 유람하였고, 이외에도 홍대용(洪大容, 1731-1783), 서유문(徐有聞, 1762-1822), 김경선(金景善, 1788-1853) 등이 참고하였다. 안나미, 「月沙 李正龜의 燕行詩 一考察」, 『漢文學報』17집, 2007, 383-384면 참조.

64) 홍주원, 「題後」, <題子修手抄自警編>.



산문에 비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시로 자신의 뜻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홍주원 개인의 생애와 연행별 상황에서의 사실들을 기반으로 하여 홍주원이 네 차례에 걸친 북경행에서 남긴 연행시들을 통해 청에 대한 그의 인식을 살펴보고, 나아가 그의 정신세계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

65) 최소자, 「燕行錄 연구를 위한 제언」, 『明靑史研究』第三十輯, 2008, 2-3면 참조.



### 제 3 장 洪柱元의 燕行詩의 特徵

홍주원의 연행시는 정사로서 총 네 차례의 걸친 연행노정의 정신적 산물이다. 한 연행에서 정사로서 참여했다는 것은 개인이 국가를 대표하는 중요한 일이었다. 따라서 국가의 결정과 자신의 내면세계가 충돌하더라도 국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떠한 연행이든 대상국에 대한 연행자의 인식이 중요시 되지 않을 수는 없다. 더욱이 대청연행 초창기였던 17세기 중반 그가 남긴 연행시에서 청에 대한 인식들은 더욱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2장에서 「연행록」의 출간과 구성에 대해 반청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으리라 서술한 바 있다. 본 장에서는 홍주원의 연행시를 통해 그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 제 1 절 淸에 대한 否定意識과 使臣으로서의 自愧感

조선은 점차 세력이 강대해지는 청을 보며 직면한 명청교체를 실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17세기 초부터 명과 청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인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었다.

광해군은 명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사대정책을 취하면서, 후금에 대해서는 기미책(驅靡策)을 펼치면서 평화를 유지하려 한 반면에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폐위하고 복인 정권을 무너뜨린 인조와 서인일파는 임진왜란 당시 명이 베푼 소위 ‘再造之恩’을 강조하고 그에 보답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병자호란 발생 후 조선 지배층 내부에서는 다시 주화론과 척화론이 격렬하게 대립했다.<sup>66)</sup>

부마로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었으나 피부로 직접 현실을 느끼고 있던 홍주원의 노선은 인조와 서인 일파의 그것과 같다. 홍주원과 교유한 인물들이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계통이 주였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66) 한명기, 「명청교체기 동북아 질서와 조선 지배층의 대응」, 『역사와 현실』37집, 2000, 137-140면 참조.

### 3. 1. 1. 淸에 대한 否定意識

전술하였듯이 홍주원이 연행했던 시기는 이미 청 나라에 의해 명이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북경에 청 왕조가 들어선 후, 대대적으로 국권 안정을 위해 치안을 비롯한 외교 문제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홍주원은 오랑캐가 중원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청 왕조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당시 청에 대한 조선 조정의 인식도 효종이 북벌론에 집중하면서, 반청의식이 심화되고 있었다. 일례로 왕실의 일원으로 1656년 연행길에 올랐던 인평대군(麟坪大君)도 청에 대한 인식은 홍주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sup>67)</sup>

연행길에 오른 홍주원은 청을 중원의 새로운 패권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식을 국가적 차원에서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홍주원은 청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과 현실에 입각한 국가의 상황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그의 의식은 연행시에 고스란히 투영되었고, 청 왕조에 대한 부정의식은 다소 직접적인 표현들이 늘어나게 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 〈湯站曉起口占〉

탕참(湯站)에서 새벽에 일어나 구점하다

毳帳重經夜 취막(毳帳)에서 여러 날 밤을 보내는데  
春寒欲逼人 봄추위가 사람을 핼박하려 하네  
任他身遍栗 멋대로 몸에 소름이 돋으며  
便覺鬚成銀 문득 수염이 세어버린 것을 깨달았다  
坐愛溪山勝 앉아서 시내와 산의 뛰어난 경치를 즐겼지만  
行愁虎豹鄰 떠나자니 범과 표범 같은 이웃들 근심이네  
那堪入柵後 어찌 견디랴 책문으로 들어간 후에

67) 대표적인 예로 청 나라에 굴복하고 사치를 누린 조대수 일가에 대한 비판이 남아있다. “대수는 금주에서 죽지 않고 늙어서 연산(燕山)에서 죽었으며, 대락은 송산에서 살기를 탐내다가 남복(南服)에서 전몰하였다.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것은 어린이도 아는 바인데, 한 때의 살기를 탐해서 그 가정(家聲)을 떨어뜨렸으니 진실로 천고의 죄인이로다(大壽不死錦州, 老斃燕山, 大樂貪生松山, 戰歿南服. 有生必有死, 孩提所知, 一時貪生, 隳厥家聲, 誠可謂千古罪人矣).” 민족문화추진회, 『연행록선집』Ⅲ, 『연도기행(燕途紀行)』中, <9월 9日>.

이 시는 1661년 북경으로 향하던 도중 지은 시이다. 이때의 연행은 2월 말에 출발하여 6월 초에 돌아오는 여정이었는데, 계절상 봄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꽤나 매서웠던 모양이다.

1-4구가 날씨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꽃샘추위는 몸에서 저절로 소름[栗]이 돋을 정도이다. 4구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수염이 은빛으로 변한 것을 깨달았다는 말인데, 자신이 내쉬는 숨이 수염에 서리가 되어 맺혀서 은빛으로 반짝거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체감 날씨는 겨울 같으나 산하에는 봄빛이 완연했을 것이기에 취막에 앉아 근처 시내와 산의 뛰어난 경치를 감상해보지만, 앞으로의 여정길을 생각하면 오랑캐[虎豹]에 대한 근심이 절로 일어난다. 탕참(湯站)은 봉황성 근처에 있는데, 이른바 비무장지대라고 할 수 있다. 탕참에서 약 50리를 가게 되면 책문[柵]인데, 이곳을 넘어서면 비로소 중국 땅이라고 실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세 차례의 연행을 경험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여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근심할 정도로 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오랑캐를 비유한 범과 표범이라는 단어가 잘 보여주고 있다.

압록강에서 책문까지 약 100여리 정도로 이틀 정도가 소요되는데, 책문은 북쪽으로 탐라(嗒刺)에서부터 남쪽으로 해문(海門)에 이르는 2천여 리에 70개 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이다. 두 나라 사이에 획정된 경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 구절은 비린 먼지 자체가 청을 이미지화시킨 것으로 중원 땅에 오랑캐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에서 청에 대한 부정의식은 “범과 표범”, “오랑캐 먼지”로 압축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부정만 한 것이 아닌 어느 정도 현실을 인지한 부정의식으로 볼 수 있다. “범과 표범”은 “이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범과 표범처럼 사납고 미개한 존재이지만, 이웃처럼 자신들 곁에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오랑캐 먼지” 역시 청을 부정하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시야 끝까지 들어차 있는 것이 중원을 장악하고 있는 청과 동일한 것이다.

다음의 시도 같은 연행의 동일한 장소에서 지은 것이다.

〈湯站途中, 有感口占〉

탕참(湯站) 길에서 느낌이 있어 입으로 읊다

中原消息近何如 중원 소식 요즘은 어떠한지  
遼左城池百戰餘 요동성은 백 번의 싸움을 치룬 뒤라네  
遂使邊氓爲異物 마침내 변방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고  
終教驕虜奠新居 끝내 교만한 오랑캐로 하여금 새로운 집에서 제사 지내게 했다  
山川莽蒼知誰地 우거진 산천은 누구의 땅인지 알고  
樹木依稀認舊墟 아련한 나무들도 옛 터를 알고 있겠지  
從古興衰同一致 예로부터 흥망성쇠는 동일하게 이르니  
不堪西望重唏歔 서쪽을 바라보며 거듭 탄식함을 견딜 수 없구나

앞선 홍주원의 연행은 연행간의 간극<sup>68)</sup>이 세 번째 연행과 마지막 연행에 비해 짧았다. 8년 만에 다시 찾은 중원이기에 1구에서 소식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이 아닌 청이 집권한 중원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구는 요동성에서의 전투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말인데, 수많은 전투의 결과로 무고한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요동성의 함락은 명 나라 멸망의 시작 단계에 불과했던 것이다.

오랑캐의 침략전쟁으로 무고한 변방의 백성들은 수없이 목숨을 잃었고, 결국은 북경마저 장악해 청 나라의 조정을 세우고 제사까지 지낼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이 되어 버렸다. 정당하지 않은, 인정할 수 없는 정복전쟁이었기 때문에 4구에서 “교만한 오랑캐(驕虜)”라고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5-6구에서는 앞선 비판 의식이 한탄의 심정으로 변화한다. 전쟁의 상처를 입은 요동성과 달리 산천은 우거져 있다. 또한 이 땅이 정복전쟁으로 인해 주인이 바뀌긴 했어도 본래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 쪽이 어디인지 오래전부터 같은 자리에서 지켜봐온 산천은 알고 있으며, 그것은 6구의 나무들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인간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 자연은 알고만 있을 뿐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러나 홍주원 자신 이외에도 이 땅의 정당한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것이다.

68) 첫 번째(1647년)와 두 번째 연행(1649)의 간극은 2년, 두 번째와 세 번째 연행(1653년)은 4년이다.

마지막 7-8구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극도로 표출하면서 청 왕조에 대한 부정의식을 기저에 깔고 있다. 흥망성쇠가 동일하게 이른다 [興衰同一致]는 말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청의 입장에서 보면 흥이 되고, 명과 조선, 그리고 홍주원의 입장에서 보면 쇠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에서 자신의 뜻을 시로만 표현할 수 있을 뿐, 타개할 방법이 없는 홍주원은 국가에 부여받은 책임을 가지고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지만, 거둬지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은 멈출 수 없는 것이다.

다음의 시는 위 두 편을 지었을 때의 여정에서 며칠 지나지 않아 요양(遼陽)에 이르러 지은 시이다.

# 〈次涇字韻〉

‘경(涇)’ 자(字) 운에 차운하다

地入腥膻窟 이 지역은 비린내 나는 소굴로 들어갔으니  
何分渭與涇 맑고 탁함을 어찌 나누리  
驚沙連白草 바람에 움직이는 모래는 흰 풀에 잇닿았고  
落日數長亭 떨어지는 해는 장정(長亭)을 헤아리게 하네  
俗混今華夏 풍속이 혼탁하게 된 지금의 화하(華夏)라  
民思舊輯寧 백성들은 옛날의 태평함을 생각한다네  
唐宗駐驛處 당 태종이 말 머물렀던 곳에서  
回首暮山靑 머리 돌리니 푸른 산에 해는 저무는구나

오랑캐가 지배해 중원 땅이 비린내 나는 소굴이 되었다는 표현으로 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비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1구의 ‘腥膻’은 1차적인 의미로는 냄새 맡기 어려운 비린 맛이지만, 세상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비유하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사용된다.

2구의 ‘渭與涇’는 모두 중국 섬서성에 있는 물의 이름인데, 위수(渭水)는 물이 맑고 경수(涇水)는 물이 탁하여 사물의 청탁시비(淸濁是非)를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즉, 위수는 정통한족이 지배하던 맑았던 때를 의미하고, 경수는 청을 의미한다. 맑고 깨끗한 곳에 비린내 나는 탁한 경수가 합해져 중원 땅은 혼탁한 곳이

되었다는 뜻이다.

3구의 “바람에 움직이는 모래”와 “흰 풀” 역시 2구의 표현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희디 흰 풀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래에 더럽혀 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4구에서 드러나는 현실은 이런 오랑캐의 땅에 들어서고 나서도 사행길의 여정은 계속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해가 저물어 가자 마음이 다급해져 앞으로 머물 곳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헤아려 보고 있다. 이렇게 당장 눈 앞의 고민에 대해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있는 곳은 정당한 중화의 땅이 아닌 청 나라의 영토임을 잊을 수가 없다.

5-6구에서는 오랑캐의 집권으로 중원의 풍속은 이미 혼탁하게 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비판하고 있다. 5구의 “혼탁[混]”은 2구의 위수, 경수와 같은 의미로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원에 남아있던 정통의 풍속에 오랑캐의 풍속이 유입되어 서로 섞이게 된 중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완벽하게 한족과 오랑캐의 통합을 이끌어낸 것이 아닌 정복전쟁으로 차지한 영토이기 때문에 6구에서 보이듯 백성들은 오랑캐가 아닌 漢族이 집권하던 때가 태평성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서 백성은 좁은 의미로는 홍주원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넓은 의미로 보자면 한족과 조선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청의 정복행위는 홍주원 자신도 중원의 원래 주인들도 조선의 백성들까지도 모두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7-8구는 앞선 구절의 시상이 이어지고 있다. 당 태종이 말 머물렀던 곳은 주필산(駐驛山)을 지칭하는 것이다.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당 태종의 공적이 새겨져 있는 곳으로 여기에서는 앞선 시구절의 시상이 연결되어 한족의 영토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홍주원 자신이 현재 밟고 있는 곳은 오랑캐 땅이 아닌 한족의 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을 통해 청 왕조의 지배를 부정하고 있다. 8구에서는 해가 지는 모습을 통해 홍주원의 안타까운 마음이 배가되고 있는 듯하다.

다음 시는 외조부인 月沙의 연행시<sup>69)</sup>를 차운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월사

69) 李正龜, 『戊戌朝天錄』上, <次長城韻>, “辦此當年事亦奇 秦人復使後人悲 壁遺滴水應前識 劍賜扶蘇奈不疑 威震五丁驅石日 禍成三戶揭竿時 須知仁壘眞天險 莫道金湯可制夷.” 이정귀가 1598년 부사로 다녀온 연행인데, 당시에 후금과 명의 대치 상황으로 인해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던 시기

역시 누군가의 시를 차운한 것이다.

〈望長城。次外祖記行韻〉

장성을 바라보며 외조부의 기행시에 차운하다

秦帝長城計未奇 진시황의 장성 계획은 기이한 것은 아니니  
後人堪笑又堪悲 후인은 우스우나 또한 슬프기도 하다  
勞民豈但千金費 백성 부림에 어찌 다만 천금만 썼겠느냐  
築怨初萌一字疑 원망 쌓는데 처음 싹 튼 것은 한 글자를 의심하는 것부터였다  
莫道隄防由地利 제방이 지리(地利)에 말미암는다 말하지 마오  
向來興廢恨天時 예로부터 흥망이 하늘의 뜻을 못 만난 것이 한스러웠다네  
何人蕩掃腥膻窟 어떤 사람이 비린내 나는 굴을 쓸어버릴지  
不遣窮荒着醜夷 넓은 황폐한 땅에 추한 오랑캐를 붙어 있게 하지 말아라

1-4구는 내용들이 이어지며 백성을 무리하게 노역에 동원한 진시황을 비난하고 있다. 1구에서는 진시황의 주된 업적 중 하나인 만리장성을 쌓은 계획에 대해 월사와는 상반되는 기이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2구에서 우스우면서도 슬픈 역설적인 표현은 만리장성에 대한 후인의 평가와 성을 축조할 당시 백성들의 고역을 생각했을 때의 상반되는 감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웅장하다는 말로 표현이 부족할만큼 거대한 장성을 보면 누구나 감탄하고 놀라워하는 것은 우습지만, 그것을 지은 백성들을 생각했을 때는 마냥 놀라기보다는 슬픔이 앞서는 것이다.

3-4구는 이러한 당시 백성들을 대변하고 있다. 장성 축조, 운하 건설 등 백성들이 동원된 노역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썼을 것이지만, 이것은 백성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원망을 사는 것은 이러한 큰 사건 뿐만이 아니라 한 글자를 의심하는 것 같은 작은 일에서부터 서서히 싹 터 자라나는 것이다.

5구는 하늘의 때(天時)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월사의 시 8구에서도 “굳건한 성벽으로 오랑캐 제어할 수 있다 하지 말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서 6구에서는 지리에 연유한 제방이 있었음에도

였다. 시의 내용은 장성과 관련된 고사들을 언급하며, 장성만으로는 오랑캐를 제어할 수 없으리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불구하고 흥망이 하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스러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현재 청이 흥하고, 명이 쇠하는 상황이 하늘의 뜻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7-8구는 결국 중원 땅이 비린내 나는 오랑캐의 소굴로 전락해 버렸지만, 인정할 수 없는 현실에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누가 되었던 구원자가 나타나 쓸어버려 주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땅이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추악한 오랑캐[醜夷]들이 붙어있을 만한 공간이 아니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으로 청에 대한 부정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다음의 시는 1647년 12월 2일 북경으로 향하던 중 서장관의 〈요양 길에서(遼陽途中)〉를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次華表鶴韻〉

화표학을 차운하여 읊다

遼陽酷被帀狼威 요양(遼陽)에 범과 이리의 위세를 혹독하게 입었으니  
 丁鶴千年亦不歸 정학(丁鶴)은 천년동안 또한 돌아오지 않았네  
 舊跡莫尋華表柱 옛 자취를 화표주에서 찾지 말라  
 向來人世事全非 이후부터 인간사 완전히 잘못되었으니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이 시는 한(漢) 나라 때 신선이 된 전설상의 인물 정령위(丁令威)의 고사를 인용하였다. 그는 일찍이 영허산(靈虛山)에 들어가 선술(仙術)을 배우고 뒤에 학으로 변화하여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성문의 화표주(華表柱)에 앉았는데, 한 소년이 활을 가지고 그를 쏘려 하자, 그 학이 날아올라 공중을 배회하면서 말하기를 “새여 새여 정령위가, 집 떠난 지 천년 만에 이제야 돌아왔네. 성곽은 예전 같은데 사람은 간 곳 없어라, 어이해 신선 안 배워 무덤만 즐비하고.”라고 하고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는 전설이 있다. 전하여 화표학이나 화표주는 요동을 뜻하는 시어로 자주 쓰였는데, 시를 쓸 당시 서장관의 원운 제목이나 기록을 통해 보면 요양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구는 오랑캐의 무자비함을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 청 나라를 ‘범과 이리



[虎狼]’에 비유했는데, 이 두 동물은 맹수의 대명사로 그만큼 청의 흉악함을 비판코자 한 의도로 보이고, 그들의 행위 역시 ‘혹독하다[酷]’라는 말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원래 고사에 의하면, 정령위는 학으로 변해 천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홍주원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4구에서는 스스로 지금의 인간 세상은 예전과 같지 않아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시간의 흐름과 세상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정령위가 없던 천 년이라는 시간동안 고향이 변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 홍주원이 말하고자 한 변화는 자연의 섭리에 따른 변화가 아닌 지독한 범과 이리에 의해 무력으로 바뀌어 버린 세상인 것이다. 정령위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요동 땅을 지배하고 있는 청에 대한 부정의식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4구는 2구의 비유적 표현에 이어 강력하고도 직접적으로 청을 비난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요동 땅을 대변하는 화표주에서 옛 자취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현재 인간 세상은 ‘완전히[全]’ 잘못되었다고 한다. 이는 청이 중원을 지배한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홍주원의 의식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구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시는 1647년 12월 11일에 서장관이 지은 <조대수의 집에 분개하여 짓다(祖大壽家舍慨然而作)>를 차운한 것이다. <영원성 감회에 차운한 칠언절구(次寧遠城感懷 七絕)> 중 마지막 시로, 청 나라에 항복한 장수인 조대수를 비판하며, 청에 대한 부정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其三〉

그 세 번째

千門萬戶極華奢	천문만호(千門萬戶)는 호화로움의 극치이니
別有飛樓世共誇	별도로 높은 누각 있어 세상에 다 자랑하는구나
看取漢朝名將傳	한 나라의 명장전(名將傳)을 들여다보았는데
凶奴未滅敢爲家	흉노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는데 감히 집을 다스리랴

서장관의 원운은 연작시가 아닌 별개의 시이지만, 세 편의 시를 각각 차운하여 연작시로 지었다. 첫 번째 시는 영원성에 대해 읊었고, 두 번째 시는 조대수의 패루<sup>70)</sup>에 대해 읊었다.

이 시는 自註에 의하면 조대수의 집을 읊은 것(右祖將家舍韻)이다. 1-2구는 청에게 복속된 세상과 청에 항복한 장수인 조대수에 대한 비판의식이 돋보인다. ‘千門萬戶’는 당시 청 나라에 붙어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이 호화롭게 사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이고, 그 중 대표적인 조대수는 자신의 나라가 오랑캐에게 점령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게 누각을 세웠다. 천문만호의 인간들이 하나같이 청에 복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조대수는 멸망한 자신의 조국을 버리고 호의호식하는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화려한 누각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조국을 배신하고 청의 승리에 일조한 조대수를 1, 2구에서 비판하고 이어 3, 4구에서는 한 나라 명장전에 등장하는 명장들의 행위와 조대수의 행위를 비교하여 조대수를 비판하고 있다. 즉, 조대수와는 달리 한 나라 명장들은 흥노를 정벌하기 전에는 자신들의 집을 다스릴 일이 없었던 것이다.

다음 시는 1661년 풍운 길에서 곳곳에 있는 관우의 사당과 불당을 보고 지은 시이다.

#### 〈豐潤道中〉

풍운(豐潤) 길에서

處處皆關廟 곳곳마다 모두 관우(關羽)의 사당이고

村村揔佛堂 마을마다 모두 불당이구나

人誰無禍福 사람이라면 누가 화복(禍福)이 없을 것이며

70) 金堉, 『潛谷遺稿』十四, 「錄」, <朝京日錄 丙子>, “남문 안에는 남경(南京)의 병부 상서(兵部尙書)인 진수(陳壽)의 패루(牌樓)가 있었고, 또 조대수(祖大壽)의 패루가 있었다. 조대수의 패루는 돌로 깎아서 3층의 고각(高閣)을 만들었는데, 위층의 안과 밖에는 ‘옥음(玉音)’ 두 자를 쓰고 금으로 칠을 하였으며, 중간층의 안에는 ‘확청지열(廓淸之烈)’이라 쓰고 밖에는 ‘충정담지(忠貞膽智)’라고 썼다. 아래층의 안과 밖에는 ‘사세원용소부(四世元戎少傅)’라 쓰고, 그 아래에 조진(祖鎭), 조인(祖仁), 조승훈(祖承訓), 조대수(祖大壽)·조대락(祖大樂) 4대의 성명을 쓰고 관직도 갖추어 놓았으며, 성명은 금으로 칠을 하였는데, 이 패루가 가장 높고 컸다. 또 하나의 패루가 있었으나 이름은 알 수가 없고, 세월이 오래 되어 곧 무너지려고 하였다(南門之內, 有南京兵部尙書陳壽牌樓, 又有祖大壽牌樓. 祖樓則以石爲之, 刻鏤作三層高閣, 上層內外, 書玉音二字, 金塗之, 中層內書廓淸之烈, 外書忠貞膽智. 下層內外, 書四世元戎少傅, 其下, 書祖鎭, 祖仁, 祖承訓, 祖大壽, 大樂四代之名, 而具官職名, 則以金塗之, 最爲高大. 又有一牌樓, 不知其名, 年久將頽矣).” 원문과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에서 인용하였다.

國亦有興亡 나라라면 또한 흥망이 있다네  
 颯爽英風在 시원스런 모습과 영웅의 풍모가 있고  
 慈悲普濟長 자비롭게 널리 구원함이 길이 있으리  
 何時掃陰翳 어느 때 어두운 그늘을 쓸어버리고  
 日月便回光 일월이 다시 돌아와 빛을 발할꼬

사당과 불당을 보고 홍주원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禍와 福이 있기 마련이고, 국가라면 당연히 興과 亡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고 있다. 禍福과 興亡은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인데, 그 시기는 하늘만이 알고 있을 뿐이다.

사당에 모셔진 관우의 모습을 보면 튼튼하고 특출난[颯爽]한 영웅의 풍모가 있고, 불당에 부처는 자비로운 모습으로 중생들을 구제할 것이라는 바람을 품어보지만, 허황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

허황된 기대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홍주원이기에 언제 다시 오게 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흥망에 대한 바람은 尾聯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때가 되는 어느 때에 현재 청이 흥하게 된 어두운 상황[陰翳]이 사라지고 명[日月]이 돌아올지 막연하게 한탄하고 있다.

이 마지막 두 구절은 대비와 함축의 미가 잘 표현되어 있다. 어두운 그늘로 대변되는 청과 해와 달 돌아올 빛으로 대변되는 명은 양립할 수 없는 상반된 존재인 것이다. 또한 그늘과 일월은 다른 의미로도 볼 수 있다.

‘日月’은 세월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에는 단순히 시간이라는 개념보다는 문맥상 ‘時運’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앞서 인간의 화복과 국가의 흥망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라는 뜻을 내비쳤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나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해석상의 차이는 있겠으나, 홍주원이 말하고자 했던 현재에 대한 부정과 막연한 희망에 대한 의미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 3. 1. 2. 使臣으로서의 自愧感

앞서 본 것과 같이 청에 대한 홍주원의 인식은 일말의 여지없는 反感이었다. 자괴감을 통한 표현은 청에 대한 그의 인식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부정의식의 표출에 비해 간접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신하의 신분으로 오랑캐를 향해 사신길에 오르고 있는 자신들을 부끄러워하면서, 동시에 청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드러내는 이중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시는 1647년 12월 19일 연경 가는 도중에 지은 것이다.

#### 〈夷齊廟感懷〉

이제묘(夷齊廟)에서의 감회

地勝夷齊廟	이제묘(夷齊廟)의 경치는 좋은데
天寒孤竹城	고죽성(孤竹城)의 날씨는 춥기만 하네
碑傳千古跡	비석은 천고의 발자취를 전하고
門揭二難名	문은 이난의 이름을 걸어놓았다
薇蕨青山在	고사리는 청산에 있고
乾坤白日明	천지에 태양은 밝기만 하다
精靈若不昧	만약 백이숙제의 혼이 어둡지 않다면
應笑我曹行	응당 우리들 가는 것을 비웃으리라

이제묘는 중국 영평부(永平府) 고죽군(孤竹郡)에 위치해 있다. 이제묘를 처음 방문하고 나서 그 감회를 읊은 것인데, 흔히 백이숙제의 절개를 읊는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3, 4구에서는 그들의 자취가 아직까지도 비석에 남아 전하고, 형제의 명성[二難]이 이름나 ‘이제묘’라는 편액까지 문에 걸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6구는 끊어지지 않고 변함없이 전해지는 백이숙제의 절조를 읊고 있다. 청산에는 백이숙제가 굶어 죽었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고사리가 있고, 태양은 여전히 밝기만 하다. 자연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지만, 나라의 운명은 시운에 따라 흥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소화(小華)로서 소중화(小中華)의 의지를 저버리고, 오랑캐이자 정복국가인 청에 사신 가는 자신들을 백이숙제가 응당 비웃을 것이라 자조(自嘲)한 것이다. 백이숙제는 주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의 주(紂)를 토벌하자, 무왕의 행위가 인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여 주나라의 곡식 먹기를 거부하다 굶어 죽은 절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의리를 지켰던 백이숙제에 비해 자신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청의 정복이 인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백이숙제가 청으로 사신 가는 자신들을 비웃을 것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sup>71)</sup>

같은 날 지어 바로 다음에 수록되어 있는 시도 이제묘에 대해 읊은 것인데, 은(殷) 나라가 망한 뒤, 기자(箕子)가 백마를 타고 주(周) 나라에 조회하면서 지은 맥수가(麥秀歌)를 통해 기자가 주 나라로 조회해야만 했던 것을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sup>72)</sup> 다음 시는 명과 청의 대규모 전쟁 중 하나였던 송산에서의 느낌을 읊은 것이다.

〈松山〉

송산(松山)

每過松山路    매번 송산(松山) 길 지날 때마다  
 令人感慨偏    사람으로 하여금 유독 슬픔을 느끼게 하는구나  
 將軍自赴火    장군은 스스로 불로 나아갔고  
 士卒共隨烟    군졸들은 함께 연기처럼 따랐다  
 天地冤氛結    천지에는 원통한 기운이 맺혀 있고  
 城池殺氣連    해자에는 살기가 이어지는구나  
 無由酌義魄    의로운 넋에 제사지낼 방법이 없어  
 空咏國殤篇    부질없이 국상편(國殤篇)만 읊어보네

71) 이후 연행에서도 이제묘를 들러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백이숙제의 절의를 칭송하고,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작품이 있다. 홍주원, 「연행록」, 101. <夷齊廟>, “孤竹城中清節祠 滿庭松柏碧參差 君臣大義扶持處 兄弟天倫遜讓時 香火不隨人代變 姓名長與日星垂 吾儕此役誠堪愧 爲問英靈知不知.”, 123. <到夷齊廟. 有感記懷>, “青山如畫水粼粼 古廟荒涼草又春 天地綱常扶植處 君臣父子兄弟倫 江河不廢高名在 日月長懸正氣新 想得精靈應笑我 向來何事此行頻.”

72) 홍주원, 「연행록」, 16. <又次夷齊廟韻>, “爲拜夷齊廟 驅車經故丘 高標瞻岳立 清節見江流 舊跡千年在 行人萬里愁 偏憐麥秀曲 當日忍朝周.”

송산은 탑산과 대릉하와 더불어 명과 청의 대규모의 전투가 벌어진 대표적인 지역이다. 전투의 규모가 상당했고, 병자호란으로 인해 三田渡에서 맺어진 조약으로 조선의 군사도 일부 파견되었기 때문에 실록에도 전투의 경과에 대해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다.<sup>73)</sup>

다소 과장된 부분은 있겠지만, 13만의 군사가 송산에서 죽었다고 하는 기록으로 보아 그 당시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sup>74)</sup> 燕巖 朴趾源이 자체 군관으로 다녀와 남긴 『熱河日記』에도 이때의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장렬한 격전의 자취를 느낄 수 있다<sup>75)</sup>하니, 그 전투의 치열함을 가히 짐작할 만하다.

그 당시 명 나라의 장수들은 거듭되는 패전과 몰아치는 청의 기세에 놀려 곳곳에서 항복하는 사태를 보였었다.<sup>76)</sup> 특히 조대수(祖大壽)와 홍승주(洪承疇)는 결정적인 순간 항복해 명의 멸망을 가속화 시킨 장본인으로서, 조선에서 지속적으로 비판 받게 된다. 홍주원의 경우도 조대수의 패루 등을 보고 그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시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3, 4구는 당시의 어려운 전황에서도 끝까지 국가를 위해 성을 死守했던 장수를 칭송한 내용으로 보인다. 북경으로 향하던 중 홍주원 일행은 漢人에게 당시 전쟁의 일화를 전해들은 바 있다. 그 장수가 어떤 인물인지 자세하진 않으나 이시만이 기록해 놓은 내용으로 보았을 때, 3구는 당시 죽음으로 성을 지킨 無名의 장수를 칭송한 것이 아닐까 한다.<sup>77)</sup>

73) 『인조실록』19년, 「9月 18日」, 「9月 21日」, 「10月 8日」, 「11月 14日」, 『인조실록』20년, 「3月 18日」 등 당시의 전황이 조선왕실까지 면밀히 보고되고 있었다.

74) 이시만, 「12月 9日」에 지은 시인 <松山堡感懷作>의 細註에 “금주위(錦州衛)가 포위 당했을 때, 원병 13만 명이 송산 뒤 고개에 웅거해 있다가 패해서 남김없이 몰사했다고 한다(錦州衛被圍時, 援兵十三萬據松山後嶺敗沒無遺云.)”라고 기록되어 있다.

75) 朴趾源 著, 리상호 옮김, 『열하일기』, 보리, 2004, 274면.

76) 『仁祖實錄』19년, 「11月 14日」, “영병 대장(領兵大將) 유정익(柳廷益)이 치계하였다. ‘송산성(松山城) 밖에 남아 있던 원병(援兵)들이 보병은 선두에 서고 기병은 그 뒤를 따라 도망갔는데, 청병(淸兵)이 그 사실을 알고 기병을 거느리고 추격하여 한병(漢兵) 1천 4백여 인을 죽였으며 청장(淸將) 한 사람과 군병들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항복한 한인의 말이 ‘홍군문(洪軍門)과 영원(寧遠) 주도야(朱道爺), 조(曹)·왕(王) 두 총병(總兵), 서(徐)·최(崔)·유(劉)·장(蔣) 부총병 등이 다 항복했다.’고 하였습니다…(領兵大將柳廷益馳啓曰, 松山城外援兵之餘存者, 以步兵先導, 騎兵隨後而遁, 淸兵知之, 率騎追擊, 殺漢兵一千四百餘人, 淸將一人及軍兵, 亦有所傷. 漢人來降者言, 洪軍門及寧遠朱道爺, 曹王兩總兵, 徐崔劉蔣副總等皆降云.)”

77) 이시만, 「12月 10日」, “새벽에 출발해 탑산보(塔山堡)에 이르러 여관에서 머물렀다. 이 날 60리를 갔다. 대릉하, 송산, 탑산 세 성[堡]의 성지(城地)는 한 모양으로 모조리 망했는데, 탑산이 더욱 심해 성터가 모두 사라져 남은 것이 없었다. 역관으로 하여금 한인(漢人)에게 물게 했더니 답하기를, “그 때 수성장(守城將)이 힘써 막고 있었는데, 송산 군문(軍門)의 홍승주(洪承疇)가 나와 항복한 후에 스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목숨 버리기를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불로 뛰어들어간 장군과 병사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에 승천하지 못하고 천지 곳곳에 그 기운이 맺혀 있고, 해자에도 역시 죽은 자의 기운이 끊이지 않고 기다랗게 이어져 있는 듯 느껴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넋을 위해 제사조차도 지내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부질없이 국상편(國殤篇)<sup>78)</sup>만 읊을 수밖에 없다. 그 넋들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제사를 지내주어야 하나, 유일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위로의 노래를 공연히 읊어보는 것뿐이다. 읊어봤자 넋들을 달랠 수도 없고, 아무 소용없는 노래를 읊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sup>79)</sup>

앞서 살펴 본 두 시가 자신을 향한 자괴를 응축했다면, 다음에 살펴 볼 시는 청 나라로 사신 가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수치심을 시 전반적으로 퍼뜨려 표현하고 있다.

〈聞姜譯以車牛疲病，欲令行次留宿沙嶺，使趙東立以下爭之。不勝駭憤，繼爾口占〉

듣자 하니 강씨 역관이 수레 끄는 소가 지치고 병들어 행차를 사령(沙嶺)에서 유숙하게 하고자 하여, 조동립(趙東立) 이하들을 다투게 하였다. 놀라고 분개함을 견딜 수 없어 대강 입으로 읊다

스로 일이 끝내 구제받지 못할 것을 알고 모든 장군과 병사들을 불러 모아 논하여 말하기를, ‘동료들이여. 마땅히 이 성과 함께 죽어야 할 것인데 너희들은 하필 앉아서 사지(死地)를 지킬것이나?’하자, 모든 장군이 함께 분함을 느껴 함께 성을 지키다가 죽으려 했다. 이에 화약을 나누어 공급하여 두루 성 안 집과 마을에 두게 하고, 4개의 문을 열고 기다렸다. 적병이 들이닥치기 시작하자 불을 놓도록 명하니, 성이 모두 불타고 적 역시 많이 불타 죽었다. 고로 그 견고하게 지켜 항복하지 않음을 분하게 여겨 성지의 나머지를 부순 것이 이에 이르렀다고 한다. 수성장은 총병(總兵)이라고 하나 그 성명을 알 수 없다.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총병에 조의를 표한다(平明發行到塔山堡止宿店舍。是日行育十里。○大凌河松山塔山三堡城地，一樣蕩滅，而塔山爲尤甚，址皆拓去無餘。譯官問於漢人，則答以其時守城將偏禦甚力，松山軍門洪承疇出降之後，自知事終不濟，招集諸將軍兵論之曰，僚當與此城俱亡，爾等必坐守死地。諸將感憤願，與同死守城持。乃分給火藥，使之遍置城內家舍洞，開四門以俟敵兵。欄始入令放火，舉城盡燒敵，亦多燒死，故憤其堅守不降，殘破城池至此云云。○守城將總兵云，而未知其姓名吊死節總兵。)’

78) 『초사(楚辭)』, 「구가(九歌)」에 있는 편명(篇名)으로 나랏일에 몸 바쳐 죽은 것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다.

79) 동일한 연행에서 유사한 심정을 읊은 시가 또 있다. 81. <次塔山堡嶺>, “城池莽蒼任耕耨 鬱結冤氛上微霄 可惜男兒千載恨 終隨士卒一時燒 堂堂壯氣山河在 烈烈芳名簡冊昭 悵悵國殤何處吊 斜陽駐馬倍魂銷.” 역시나 焚身한 군사들에 대해 역사책에 길이 남을 것이라 칭송하면서도, 나라가 망해 조문할 곳조차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到處難堪痛 가는 곳마다 괴로움을 견디기 어려운데  
 生爲弱國臣 나면서부터 약소국의 신하가 되었다네  
 平居常扼腕 평소에 항상 늘 분개했는데  
 老境又啣綸 노년에 또 사신으로 가는구나  
 闔關由俘虜 가다 서다 하는 것은 포로로 말미암기 때문이고  
 咆哮任彼人 성내는 것은 저 사람들에게 맡겨둔다  
 滿腔悲憤意 슬프고 분한 뜻 마음 속에 가득하지만  
 羞對舌官嗔 역관의 성냄을 부끄럽게 대하네

이 시는 1661년 연행길에 지은 시로 당시는 명 나라의 遺臣들이 세운 南明의 세력도 급격히 약화되고 있던 시기였으며, 청 나라의 국가적 기반이 어느 정도 잡혀 있을 때이다. 더욱이 홍주원은 당시에 이미 나이가 56세에 이르렀고, 10년 전부터 왼쪽무릎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연행길에서의 고된 생활이 몸에 축적되는 등<sup>80)</sup> 무리가 되고 있었다. 이처럼 국제적인 정세로 봤을 때도 그렇고, 홍주원 개인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도 앞선 연행들에 비해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않았다.

이미 청 나라의 땅이 되어버려 곳곳에 오랑캐의 문화들이 즐비해 있고, 명 나라의 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지만, 가장 한스러운 것은 약소국의 신하인 자기 자신의 처지이다.

분한 마음에 평상시엔 청을 향한 분노의 심정으로 주먹을 움켜쥐곤 하지만, 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알아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도 야기할 수 없는 혼자만의 감정인 것이다. 그러나 약소국의 신하인 자신은 결국 국가의 명을 받들어 사신길에 오를 수밖에 없다.

감당하기 어려운 이 순간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슬프고 분한 뜻이 마음 속 가득하다. 이러한 사신 가는 자신들이 부끄럽기 그지없는데, 하물며 우리끼리 다투고 있는 모습은 상대하기조차 부끄러운 상황인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시는 1648년 作으로 귀국길에 서장관이 지은 시<sup>81)</sup>를 차운하여 지은 〈次追記燕京韻〉

80) 홍주원, 「疏筍」, <因脚患。乞免永思殿獻官疏。辛卯>, “...左邊脚膝, 常患麻痺, 頃年再度燕行. 適當極沍極炎之節, 野處露宿, 寒濕交傷, 病根既痼, 作痛無常, 而姑未床席委頓之憂, 故臣亦治之不早矣.”

81) 이시만, <追述北京所觀記以寓傷感之懷>의 두 번째 연작시, “萬里乾坤續紫宮 十陵佳氣鬱蔥蔥 臺城

의 연작시이며, 총 세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其二〉

그 두 번째

雲端依舊大明宮 구름 끝 대명궁(大明宮)은 예전 그대로지만  
望裡全銷氣鬱葱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을 멀리서 바라보니 기운이 울적하네  
天地不隨兵革變 천지는 전쟁의 변화를 따르지 않고  
山河無語市朝空 산하는 말이 없고 시장과 조정은 텅 비었다  
園陵寂寞悲殘月 적막한 왕의 묘 새벽 달빛에 서글프고  
廟社淒涼起夕風 처량한 사당에는 저녁바람 일어나는구나  
堪媿此行終底事 부끄럽구나 이 여정 끝내 무슨 일을 했는지  
趨班還與羯胡同 반열에 나아갔으나 도리어 오랑캐와 함께하네

연작시의 첫 번째와 세 번째 시 역시 청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자조적인 수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82)</sup>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경 내에서의 일을 추후에 기록한 시에 차운한 것이다. 대명궁(大明宮)은 일반적으로 당태종(唐太宗)이 지은 궁을 가리키지만, 여기에서는 전통적으로 명맥을 이어온 중국의 궁으로 보는 타당할 것 같다. 다시 말해, 오랑캐가 지배하고 있지 않은 궁인 것이다.

이미 북경을 떠나서 북경 쪽을 바라보니 궁궐은 구름 끝 저 멀리 보이는 것만 같다. 궁 자체는 변함없는 모습이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을 뒤돌아보니 그 기분은 울적하기 그지없다. 궁은 예전 모습 그대로 의연히 남아있어 홍주원의 눈에 인식되고 있지만, 그 이외에는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궁 안에서 정사를 돌보는

箭雨金甌缺 鴛并龍沈●閣空 北極星辰長晦彩 西樓羊馬恣騰風 多慙惜死憑烝相 指點東人裸浴同.”

82) 홍주원, 「연행록」, 첫 번째 시는, “山河表裡控燕都 成祖神謨壯軌模 禮樂衣冠千載盛 梯航玉帛萬方趨 誰教鐵馬中原滿 忽報城烏半夜呼 回首殷墟多感慨 漫將興廢問耕夫.”로 3구부터 간략히 보면, 천 년 동안 성했던 중국 땅에 철마를 가득하게 만든 이가 누구냐고 물으며, 완곡하게 청을 비판하고 있다. 쓸쓸히 남은 성에 까마귀만 홀로 한밤중에 울고, 은 나라 터로 멀리 돌리니 서글퍼 부질없이 농부에게 홍망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은근히 청을 비판하며, 물어도 소용없을 농부에게 홍망을 물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세 번째 시는 “朝班非復舊威儀 辮髮羌兒夾路馳 天意未應傾社稷 人心無賴壯城池 南州日月底何處 北極風雲異昔時 最是三韓蒙再造 祇今追憶不勝悲.”로 직접적인 비판과 명이 처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벼슬아치, 모든 법식과 의관을 비롯한 제도들이 지배하는 조정에 맞춰 바뀌었고, 옛 것은 이에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텅 비었다고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홍주원의 의식 속에는 아직도 하늘만큼은 의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華夷간의 전쟁은 결국 오랑캐의 승리로 끝났고, 그에 따라 그 땅의 모든 문화들도 바뀌기 마련이지만, 자연만큼은 인간사와 관계없이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 온 산천이 파폐해졌지만, 천지는 그 전쟁으로 인해 생긴 변화에 맞춰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다. 즉, “天地”와 “山河”와 산하는 인간 세상에 개입하지 않고, 간섭받지도 않으며 그에 따른 변화 역시 없는 자연의 영원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주인이 바뀐 북경의 묘는 새벽 달빛마저도 서글퍼 보이고, 저녁바람 일어나는 사당 역시 쓸쓸하고 처량하게 느끼고 있다. 새벽달은 앞선 상황으로 인한 홍주원의 근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근심은 새벽까지 잠 못 이루고 이어지는 것인데, 이는 시대에 대한 깊은 탄식으로 볼 수 있다. 주인은 바뀌었어도 하늘만큼은 인정하지 않았으리라 믿고 싶지만, 결국 자신은 청의 조정으로 사신 온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지난 50일 간의 여정에 자신이 무슨 일을 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일인지 스스로 한탄하게 만든다.

결국 8구에서 조정에 반열에 나아가봤자 자신은 한낱 오랑캐[羯胡]와 함께 한다는 것이라고 그 울분의 감정을 토로한다. 인정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굴복, 그 굴복을 통해 오는 굴욕감에 자신 역시 오랑캐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미천한 존재임에 다름없음을 언급하며,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의 정도를 표현한 것이 앞선 작품들에 비해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시도 역시 같은 연행의 귀국길에 지은 시이다.

〈其五〉

그 다섯 번째

盤山路上行人早 반산(盤山) 길 위 행인은 일찍 길을 나서고  
宿霧初收朝日高 밤 안개 막 걷히자 아침 해가 높이 올랐다  
客裡弊衣從露絮 객지에서 해진 옷 솜이 다 드러나고

鏡中衰鬢任霜毛 거울 속 쇠한 머리는 백발이  
殊方屈辱隨流俗 타지방에서의 굴욕은 청나라 풍속을 따르게 된 것이니  
壯志消磨媿我曹 군센 뜻이 사라졌으니 우리들이 부끄럽도다  
只是國恩猶未報 다만 나라의 은혜를 아직 보답하지 못했는데  
半年鞍馬敢言勞 반 년간 말 타고 다닌 것을 감히 수고롭다 말할 수 있으랴

이 시는 서장관이 1月 27日에 지은 〈杏山店舍次杜詩詠懷韻(행산 여관에서 두보의 시 ‘영회(詠懷)’를 차운하여)〉 연작시 5수를 차운한 것이다. 귀국길은 북경으로 향하는 길에 비해 방물세폐 등을 바치고 오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가볍고,<sup>83)</sup>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적고, 오랜 객지 생활로 인해 쌓인 피로 때문에 행차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유로 반산에서부터 일행들은 밤과 새벽 구분할 것 없이 서두르고 있었던 것이다. 오랜 여정에 행색은 말이 아니지만, 망가진 행색보다 더욱 초라한 것은 그 정신에 있었다. 3-4구는 연행길의 고난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청 나라 관습에 따라 예를 차렸던 사실은 홍주원에게는 말 그대로 ‘굴욕[屈辱]’적인 일이었다. 중화에 대해 소중화(小中華)를 자처하던 조선인들의 의지[壯志]는 사라진 듯 淸人들 앞에서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평범한 필부에게조차 그 뜻은 빼앗을 수 없다고 했으니,<sup>84)</sup> 뜻을 굽힌 부끄러움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자신과 조국은 이미 명 나라에게 이미 이른 바 ‘再造之恩’의 은혜를 입었다. 국가적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답은커녕 청 나라의 일방적인 조약체결로 인해 명 나라를 공격할 시 병사까지 파견하는 사태에 이르렀었다.<sup>85)</sup>

마지막 구절은 일반적으로는 謙辭로 볼 수 있겠으나, 이 시에서는 명에 대한

83) 앞서 언급한대로 당시에는 사신단이 따로 북경 시내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청 나라 벼슬아치들과의 교유(酬唱이나 물품을 서로 주고받는 등)는 드러난 것이 없으므로, 공식적으로 받아온 물품 이외의 것은 없기 때문에 가는 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웠을 것이다.

84) 『論語』, 「子罕」, <24章>, “子曰, 三軍, 可奪帥也. 匹夫, 不可奪志也.”란 구절이 있다.

85) 명과의 관계에 있어 대표적인 조약으로는 명의 年號 폐지, 단교, 조공 폐지, 청과 명 나라의 전쟁 시 청측으로의 출병 등이 있었다. 실제로 1640년 錦州衛 정벌 때 林慶業을 장수로 약 6,000여 명이 출병했다. 최소자, 앞의 책, 80면 참조.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의미로 보는 것이 문맥상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시는 1647년 북경으로 가는 길인 12월 18일에 서장관의 시를 차운하여 지은 것이다.

〈永平府次〉

영평부(永平府)에서 차운하다

山勢縱橫接白龍 산세가 종횡으로 백룡퇴(白龍堆)와 접했는데  
燕都控扼幾千重 연경을 몇 천 겹으로 막아 지키는구나  
朱家赫業崇禎盡 주가(朱家)의 빛나는 업적은 숭정(崇禎) 때 끝났는데  
地下何顏拜祖宗 무슨 낮으로 지하에서 조종(祖宗)께 절하리

서장관이 지은 〈오후에 노룡현에 이르러(午次盧龍縣)〉를 차운한 시이다. 첫 번째 시 첫 구에 등장하는 ‘백룡퇴[白龍]’는 일반적으로는 신강(新疆)의 천산(天山) 남쪽에 있는 사막인 백룡퇴(白龍堆)를 가리킨다. 이 사막은 원래 흉노족의 영토 안에 있었는데, 북경에서 북서쪽 방향에 위치한 곳으로 북쪽 변방을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즉, 첫 구절과 두 번째 구절은 지형의 험함으로 인한 守威의 유리함을 지니고 있는 요새지임을 말하고 있다.

3구의 주가(朱家)는 명 나라의 왕실을 뜻하고, 숭정(崇禎)은 명 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의종(毅宗)의 연호이다. 1644년 북경이 함락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운의 왕을 끝으로 사실상 명 나라는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빛나는 업적을 세우던 명 나라 왕실의 부재에 사신으로 갔으나 절할 곳이 없어진 것이다. 요새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지 못한 명 나라이기 때문에 지하에 잠들어 있는 조상에게 절할 명분도 염치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 시는 오(吳) 나라의 계찰(季札)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괴감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其三〉

그 세 번째

王事渾忘跋涉勞 나랏일로 온통 두루 돌아다니는 수고로움 잊으니  
 塵沙日日暗征袍 먼지와 모래가 날마다 나그네 옷을 어둡게 하네  
 仍思季子觀周日 계자(季子)가 주나라 본 날을 생각하니  
 此路驅馳笑我曹 이 길에 말 내달리는 우리들을 비웃겠지

1647년 12월 21일 서장관의 〈옥전 여관에서 밤에 앉아 회포를 풀다(玉田店舍夜坐遣懷)〉 연작시 세 首를 차운한 것 중 마지막 시이다. 연행길은 육로든 해로든 장기간의 여정을 비롯하여 조선의 국경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날씨를 비롯한 온갖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다.<sup>86)</sup>

온갖 육체적·정신적 고통들이 즐비한 연행길이지만, 국가의 명으로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은 이러한 고통들마저도 모두 잊을 수 있을 정도이다. 이 날의 고통은 바람으로 인해 날리는 모래와 먼지로 인한 괴로움이었다. 그러나 이런 길 위에서 말을 달리며 국가로부터 받은 명령을 이수하기 위해 가는 자신들의 모습은 그 옛날 계자(季子)가 주 나라에 방문해 봤던 날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계자는 춘추 시대 오(吳)나라 공자(公子)인 계찰(季札)을 가리킨다. 그가 노(魯)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주대(周代) 각국의 음악을 들어 보고는 정확하게 비평한 일이 있다. 단순히 비교하자면, 계찰이 사신으로 가긴 했지만, 문물에 대한 순방 정도로 볼 수 있다. 즉, 선진문물에 대한 관람인 것이다.

반면에 홍주원의 사신길은 명백히 신하국의 입장에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신길이지만, 목적과 입장에서 극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청을 중원의 지배자로 인정하지 않은 홍주원이 신하의 입장으로 사신 가고 있는 것에 대해 계찰이 비웃으리라는 말을 빌려 자괴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 시는 3일 뒤인 1647년 12월 24일에 지은 것이다.

86) 연행길 중 고난을 읊은 것들이 다수 있는데, 주로 날씨와 지형으로 인한 어려움, 숙소환경의 열악함에 대한 것들이다. 홍주원, 「연행록」, 18. <流河驛行路上. 風沙甚苦. 令人不可堪. 錄記一律>, 64. <三叉河. 接宿家舍即漁村. 腥臭甚苦>, 93. <次閭陽途中遇大風韻>, 146. <三叉河. 夜宿店. 廢埃無窓>, 183. <次坐車甚苦韻>, 184. <次高平道中卒遇野火韻>, 219. <高坪道中. 大雨欲下. 催發口占>, 236. <薊州滯雨>, 255. <盤山道中. 遇雨口占>, 273. <初十日. 遭雨羅城. 又用前韻. 以寓悶鬱之懷>, 274. <寧遠衛途中. 遇雷電驟雨>, 283. <過會寧嶺> 등이 있다.

〈其二〉

그 두 번째

無復都人望翠華 다시 도읍사람들이 취화(翠華)를 바라볼 수 없으니  
卽今天下是誰家 오늘날 천하는 바로 누구의 집이고  
腰間只有防身劔 허리 사이에 다만 방신검(防身劔)이 있을 뿐  
馬上空愁滿眼沙 말 위에서 부질없이 눈에 모래 가득할까 근심하네

서장관의 〈방균점(邦均店) 길에서 몽고인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느낀 바를 쓰다(邦均店道中與蒙人先後作行書感)〉 연작시 두 편을 차운한 것의 두 번째 편이다. 첫 번째 시는 200년 간 명 나라의 영토로 전성기를 누렸던 땅에 대해 이제 주인이 바뀌어 부질없이 옛 영토를 생각하는 내용<sup>87)</sup>인데, 그 감정의 연장선상에서 이 시를 볼 수 있다.

시를 쓴 당시 홍주원이 있던 곳이 계주(薊州)인데 그 북경과 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깝다. 이와 연결해 도읍사람들[都人]은 북경을 비롯한 인근의 도회지의 사람들로 볼 수 있다. 취화(翠華)는 취우(翠羽)로 장식한 기치(旗幟)나 거개(車蓋) 등 제왕의 의장(儀仗)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첫 구는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명 나라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는 말과 차마 쳐다보지 못한다는 이중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도읍의 사람들은 그대로이지만 땅의 주인이 바뀐 상황에서 오늘날 천하가 누구의 집인지 자문하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1구와 마찬가지로 2구의 ‘집’도 이중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단순히 집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고, 한 나라의 왕조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앞선 시에서도 명 나라 왕실을 주가[朱家]라고 표현한 부분으로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방신검(防身劔)’은 단어 그대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호신용 칼이다. 그러나 3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只’의 의미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검은 한낱 자신의 몸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이외의 것은 지킬 수 없는 검인 것이다. 그런 검을 차고 말 위에서 바람에 날리는 모래먼지가 눈에 들어갈까 걱정하고 있는

87) 홍주원, 「연행록」, 197. <次薊州韻>, “關防處處見崇墉 千里山河壯國容 二百年來全盛地 至今空想舊提封.”



것이 자신의 모습이다. 자신의 몸이나 지키며 눈에 먼지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있는 초라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을 통해 자괴감이 드러나고 있다.

바람에 날리는 모래와 먼지에 대한 고민은 오랜 여행길에 있어 가벼이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천하의 주인이 바뀌고 진정으로 모셔야 할 왕가가 사라진 지금은 하찮은 걱정과 불과하다. 자신은 한낱 스스로의 몸만 지킬 수 있는 점을 지니고, 한낱 모래먼지가 눈에 들어갈까 하는 하찮은 근심을 하고 있는 모습은 당면한 세태의 불안함과 걱정과 비한다면, 당연히 부질없는 근심에 지나지 않는다. 앞의 시들처럼 직접적으로 스스로를 조롱하지는 않지만, 은근하게 부끄럽다는 사실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 제 2 절 明王朝에 대한 恨歎과 復興에의 期待

홍주원은 명 나라의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행시를 통해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앞선 두 부류의 주제의식이 청에 대한 작·간접적 비판이었다면, 이 방식은 명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거나 부흥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을 통해 청에 대한 반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명과 청의 전쟁에서 명의 장수는 물론 불리한 전황에 투항하는 병사들이 속출했었다. 그 중 결정적인 항복 사건으로 조선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이가 조대수(祖大壽)와 홍승주(洪承疇)였다. 특히 이 둘의 배신에 대해서는 조선조정에서도 언급이 되었다. 다음 인용문은 항복 사건이 있는 후 조선조정에서 인재등용방법에 대해 고심하는 내용이다.

상이 대신 및 비국 당상과 삼사의 장관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이제 대명(大明)의 일을 보니, 통탄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다. 북경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한 사람도 국가를 위해 순절한 자가 없었다.’고 하니, 어찌 2백 년 동안 예의를 숭상하던 천조(天朝)가 하루아침에 멸망했는데...”, 우의정 서경우(徐景雨)가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참으로 당연합니다. 대명의 천하에서 1여(一旅)의 군대나마 이끌고서 주씨(朱氏)를 받들 한 사내가 일찍이 없을지를 어찌 알았겠습니까. 시험삼아 요녕성(遼寧省)·금주(錦州)의 일로 본다면, 조대수(祖大壽)와 홍승

주(洪承疇) 무리도 또한 모두 청나라에 무릎 꿇기를 달갑게 여겼으니,…”<sup>88)</sup>

다음 인용문을 보면, 여행길에 조대수의 옛 집을 둘러본 김소(金素, 1602~?)도 조정에 보고할 때 조국을 배신한 조대수의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성절사 김소(金素) 등이 들어왔는데, 그 문건 사건(聞見事件)에 이르기를, “조대수(祖大壽)의 옛집을 지나다 둘러보니, 높고 큰 문려(門閭)에 ‘원용(元戎)’이라는 글자가 크게 쓰여져 있었고, 또 ‘충정 담용(忠貞膽勇)’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는데, 모두가 숭정 황제(崇禎皇帝)가 조대수를 위해 정표(旌表)한 것입니다. 조대수는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받아 원수(元帥)가 된 몸으로 마침내 적에게 항복하여 포로가 되어서 왕호(王號)를 무릅쓰고 받았으니, 만일 조대수가 ‘충정(忠貞)’ 두 글자를 생각한다면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sup>89)</sup>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은 조대수의 가문이지만, 명 나라의 마지막 황제에게 특히나 총애를 받은 그가 명을 배신하고 청에게 복속된 사건은 당시 전쟁에서의 역할은 물론이거니와 명이나 조선인들에게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준 것이다.

홍주원 역시 이 전장들을 지나거나 조대수의 옛 집들을 방문하여 감회를 읊은 시들이 있는데, 조대수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 조대수 같은 신하를 두고 있던 명 나라를 안타까워하는 어조가 강하다. 즉, 잘못된 인재 등용에 의한 회한의 감정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은 조대수에 대한 홍주원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시들이다.

#### ① 〈到大凌河〉

대릉하(大凌河)에 이르러

88) 『인조실록』22년, 「10월 23日」, “上引見大臣及備局堂上, 三司長官, 謂曰, 今觀大明之事, 不勝痛歎. 人有自北京來者, 皆云無一人爲國家死節者, 豈有二百年禮義之天朝, 一朝覆亡, 而無一人死節之理乎. 至如宋朝, 寄寓於島嶼之間, 而猶有忠臣義士, 抗義樹節者 … 右議政徐景雨曰, 聖教誠然. 豈知大明天下, 曾無一箇男子, 提一旅奉朱氏耶. 試以寧, 錦之事觀之, 如祖大壽, 洪承疇輩, 亦皆甘心屈膝 …”

89) 『인조실록』23년, 「3월 17日」, “聖節使金素等入來, 其聞見事件曰, 行過祖大壽舊宅, 則高大門閭, 大書曰元戎, 又書曰忠貞膽勇, 皆崇禎爲大壽旌表也. 大壽世受國恩, 身爲元戎, 終作降俘, 冒受王號, 若使大壽, 念忠貞二字, 其無愧乎.”

行人莫近古城隅    행인은 옛 성 모퉁이를 가까이 가지 말게  
 殺氣連雲戰骨枯    살기가 구름까지 이어졌고 전사자의 해골들은 말라갔다네  
 養將百年終底事    장수를 백 년 간 길렀으나 끝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祖生還作一降俘    조생(祖生)처럼 도리어 한 번에 투항하고 포로가 되었구나

② 〈其二〉

그 두 번째

撐霄玉柱是牌樓    하늘을 버티는 옥 기둥이 바로 패루(牌樓)인데  
 屹立街頭歲幾周    거리 위에 우뚝 솟은 지 몇 해나 지났던가  
 四世忠貞眞謾語    4대에 걸친 충정은 진실로 부질없는 말이니  
 卽今人世已忘羞    지금의 인간 세상에서 이미 부끄러움을 잊었구나

③ 〈寧遠城中，見祖大壽牌樓〉

영원성(寧遠城)에서 조대수(祖大壽)의 패루를 보다

城中樓閣壓通衢    성 안 누각이 사통팔달의 거리를 누르고  
 城外新阡草已枯    성 밖 새로난 길에는 풀이 이미 말랐구나  
 四世忠貞渾謾語    4대의 충정은 모두가 부질없는 말  
 暮年甘作一降俘    늙그막에 한 번 항복해 포로된 것을 달게 여기네

①, ②는 모두 1647년 연행에서 북경으로 향하던 중에 쓴 것이고, ③은 1661년 作이다. 연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대수에 대한 직접적인 감정표현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①의 1-2구를 보면 당시에 워낙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기운이 구름까지 이어질 정도였고, 시신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신원을 알 수 없는 해골들은 말라만 가고 있는 처참한 광경이다. 치열했던 전투의 규모와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3-4구는 신하의 배반으로 망한 명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이 짙게 드러난다. 4대에 걸친 100여 년의 기간 동안 인재로 등용했으나, 끝내 조대수는 청에게 투항하고 만다. 조대수의 가문은 4대째 관직을 했었는데, 조대수가 투항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어떤 뜻을 내비친 것이 아닌 신하를 잘못 등용한 명에 대한 한탄의 감

정인 것이다. 이렇듯 4代에 걸쳐 관직을 시키며 장수로 길러내었으나, 끝내는 적에게 투항하여 조국에 칼을 꽂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②에서도 비슷한 감정을 토로했다. 그 自註에 보면, 조대수의 패루를 보고 지은 것(右祖將牌樓韻)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패루에 적힌 관직과 이름들을 보고 3구를 지은 것이다.

4代째 국가에 충성을 바치며 살아온 줄로만 알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조대수에 이르러 이러한 가문의 충정은 부질없었던 것이 되어버렸다. 조국을 배신한 조대수는 하늘을 버티고 있는 듯한 웅장한 패루를 세워 호의호식하고 있으며, 그렇게 지낸지도 벌써 몇 해가 지난 것이다.

그러나 세상마저도 변하여 조대수가 조국을 배신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잘 지내고 있으며, 조대수의 행동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되었다.

③은 명을 향한 안타까움의 감정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누각의 화려함과 그 크기는 사통팔달의 큰 거리를 누르고 있을 정도인데, 성 밖에 새로 낸 길에는 조대수에게 아부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의 걸음으로 인해 풀들이 다 말라버렸을 정도이다. 조대수의 배반으로 4대째의 충정은 모두 부질없는 말이 되어버렸고, 늘그막에 투항한 것을 달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잘 살고 있다. 이 시는 비단 조대수 뿐만이 아니라 조대수의 집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 자체도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시는 1649년 내지는 1653년 作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청에 대한 복수심을 표출하며 명에 대한 부흥의 기대를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다.

〈廣寧〉

광녕(廣寧)

毀堞頽墉落照斜	망가진 성가퀴와 무너진 담장에 저녁해 넘어가고
蓬蒿處處噪昏鴉	쑥대밭 곳곳마다 저녁까마귀 울어댄다
可憐碁布星羅鎮	가련하다 바둑돌 깔린 듯 별처럼 별려있는데
揔是鍾鳴鼎食家	이 모두 종 치며 밥 먹는 집들이 즐비하구나
大漠烟塵關內遍	큰 모래밭의 연기와 티끌은 관내에 두루 퍼졌고
中原消息日邊賒	중원 소식도 먼 하늘가에 아득하구나

行人不但羈懷苦 행인은 나그네 회포에 괴로울 뿐만 아니라  
獨夜雄心看鑢 외로운 밤 웅장한 마음을 품고 막야(鑢)를 바라본다

1-4구는 홍주원의 심정과 현실과의 괴리를 표현하고 있다. 홍주원에게는 명의 쇠퇴와 함께 전쟁으로 인한 상처[毀堞頽墉]들이 아직 곳곳에 남아 있는 모습만 눈에 들어오고 있다. 시간은 흘러 저녁 해는 넘어가고 스산하게 곳곳에서 저녁 까마귀는 울어대고 있다.

首聯이 홍주원의 암울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면, 頷聯은 그와 대비되는 현실을 묘사한 것이다. 바둑판에 바둑돌 깔려 있는 듯 별처럼 늘어진 집들에서는 언제 전쟁이 있었냐는 듯 너무나도 평온한 일상이다.

4구의 ‘鍾鳴鼎食’는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서 유래된 말이다. 사람이 많아서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종을 쳐서 모이게 하고, 밥을 먹을 때에는 술을 늘어놓고 먹는다는 말인데, 부귀한 집안의 호사스러운 생활을 뜻한다.<sup>90)</sup> 홍주원의 눈에 호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쟁 직후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로 인한 괴리감에 적막하고 우울한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와 현실에 대해 가련하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5구의 큰 모래밭[大漠]은 내몽골과 외몽골의 경계를 이루는 고비사막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삭막한 북방 변경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즉, 큰 모래밭의 연기와 티끌이 관내에 두루 퍼졌다는 것은 연기와 티끌처럼 불순한 북방 변경 지역의 오랑캐들의 세력이 중국 내에 퍼졌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大漠’이 오랑캐를 지칭한 것이라면, ‘中原’은 명을 지칭한 대구로 볼 수 있다. 관내에 이렇게 오랑캐의 세력이 번성하고 있음에도 명 나라의 소식은 아득하기만 한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도 괴롭고, 사신길의 고됨도 괴로운 것이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청을 향한 복수심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만 하는 현실인 것이다. 8구의 막야(鑢)는 명검(名劍)의 이름이다. 초(楚)나라의 간장(干將)·막야(莫耶:鑢) 부부가 왕을 위하여 자웅(雌雄) 두 검을 만들었는데, 3년 만에야 완성하니 왕이 노하여 죽이려 하였다. 왕에게 가기에 앞서 지아비가 아내에게 왕이 노하여 나를 죽일 것

90)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 “마을에 들어찬 집들은 종을 치고 술을 늘어놓고 먹은 집들이고(閭閻撲地 鍾鳴鼎食之家).”

이라고 하며 용검(雄劍)을 감추어 두고 감춘 곳을 가르쳐 주고서 자검만을 가지고 가니, 왕이 노하여 그를 죽였다. 막야의 유복자 적비(赤比)가 커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일을 물어 알고서 막야검을 찾아 얻고 밤낮으로 복수할 것을 생각하였는데, 왕이 한 아이가 왕에게 복수하려 한다고 말하는 꿈을 꾸고서 천금을 걸고 찾으니, 적비가 도망하여 산에 들어갔다. 산에서 만난 길손의 물음에 지난 얘기를 하니, 길손이 네 머리와 검을 가지고 가서 복수해 주겠다고 하므로 응낙하고 자진하였다. 길손이 그 머리를 가지고 왕에게 가니 왕이 매우 기뻐하였는데, 길손이 말하기를 “이것은 용사(勇士)의 머리이니 술에 삶아야 합니다.”고 하였다. 왕이 그대로 하였는데, 사흘이 지나도 썩지 않고 탕(湯)에서 머리가 솟아나와 눈을 부릅뜨고 크게 노하였다. 길손이 “그 아이의 머리가 썩지 않는데, 왕께서 가서 보시면 썩을 것입니다.”하므로 왕이 가까이 갔는데, 길손이 검을 왕의 목에 댔더니 왕의 머리가 탕 안으로 떨어졌다. 길손도 제 목에 검을 대어 머리가 또 탕 안으로 떨어지니, 머리 셋이 함께 썩어서 식별할 수 없으므로 탕육(湯肉)을 나누어서 장사지냈다고 한다.

여기서는 아들 적비가 품고 있는 왕에 대한 복수심을 자신의 마음에 빚대어 표현한 것이다. 복수하려는 웅장한 뜻을 품고는 있지만, 지금은 막야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홍주원에게 있어 가장 괴로운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만큼 명이 재기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막야에 얹힌 이야기를 비유 삼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명에 대한 한탄의 심정을 나타낸 시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부흥에의 기대를 표현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다.

#### 〈次過遼東舊城感懷韻〉

요동의 옛 성을 방문해 감회가 있어 읊다

崇墉巨壁亘西東	높은 성과 큰 벽은 동서로 뻗쳐 있고
土馬精強物力雄	군사와 말 강하고 물자와 힘은 넉넉했구나
控扼三邦稱鎖鑰	세 나라를 버터 막아서 자물쇠라 일컬어졌고
威靈萬里迅雷風	만 리까지 위령(威靈)이 우레와 바람처럼 빠르게 퍼졌다
冠裳變易須臾際	의관은 잠깐 사이에 변하였고



人代蕭條感慨中 인간의 세대는 서글픈 가운데 쓸쓸하게 되었다  
 莫向殷墟歌麥秀 은 나라 터를 향해서 나라 망했다고 노래하지 말아라  
 向來時運豈終窮 다가올 시대의 운수가 어찌 끝까지 막히리

1647년 12월 2일 북경으로 향하던 중 서장관의 <요동의 옛 성을 방문하여 느끼  
 께 있어 지운 시를 양사에게 드리다(過遼東舊城感懷呈兩使)>의 운을 차운한  
 것이다. 요동의 옛 성은 북쪽으로 흙 언덕이 구릉같이 둘러 있는데, 이것이 구성  
 의 기초이다. 성의 둘레는 20리 높이가 5-6丈 정도인데, 밖에는 감시용 內障과  
 성가퀴가 설치되어 있다. 성 위에 넓은 길이 열려 있어 다섯 필의 말이 갈 수 있  
 다. 성 밖에는壕가 있는데, 태자하(太子河)의 물을 끌어 넣었다.

1-4구까지는 요동구성의 장엄한 모습을 묘사하였다. 기다란 성의 둘레와 높이,  
 방어하기 용이한 각종 성의 구성 등을 통해 적들을 막기 용이해 자물쇠[鎖鑰]로  
 일컬어질 정도였다. 자물쇠[鎖鑰]라는 말은 비유하여 군사적 요충지(要害地)로도  
 쓰이고, 중요한 곳을 지킨다는 말로도 쓰인다. 이 옛 성을 지키는 것으로서 임금  
 의 위용[威靈]은 나라 밖 멀리까지도 퍼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견고했던 성도 한순간에 함락되어 지금 조정에 있는 관리들의  
 복식은 잠깐 사이에 변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이러한 현실이 통탄스럽기만 하지  
 만 어찌할 방법이 없어 쓸쓸해지기만 하였다.

7구에 은 나라 터를 향한 노래는 은 나라가 망한 뒤에 기자가 옛날 은 나라  
 터를 지나다가 궁실이 모두 무너지고 무성하게 보리 이삭이 팬 것을 보고는 가슴  
 이 아팠는데 곡을 하자니 안 될 일이고, 울자니 부녀자와 비슷하게 될 듯 하여  
 이에 ‘맥수가(麥秀歌)’를 지어서 노래하였다고 한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자가 노래를 불렀을 때는 이미 은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황폐한 옛 모습에  
 가슴 아파한 것이었다. 홍주원도 상황은 비슷하지만, 아직 명 나라가 망하지 않았  
 다고 굳게 믿고 싶었기 때문에 망한 나라를 위한 노래인 맥수를 부르지 말라고  
 한 것이다. 현재는 시대의 운수가 막혀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막혀 있던 희망  
 의 운수는 풀릴 것이며,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바라면서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시는 1647년 12월 23일 서장관이 지은 <향화암을 방문하여 멋대로 한 울  
 시를 이루다(訪香花菴漫成一律)>를 차운한 시이다.



〈次香花庵韻. 在薊州城西四十里許云. 是明朝皇帝願堂〉

향화암(香花庵) 운에 차운하다. 제주성 서쪽으로 40리 즈음에 있다고 한다. 바로 명 나라 황제의 원당(願堂)이다

神宗聖德遍窮村 신종(神宗)의 성스러운 덕은 궁촌까지 두루 퍼졌었는데  
烽火何曾照塞門 봉화는 어찌 일찍 변경에 비추었는고  
萬水盡朝東海大 모든 물들이 큰 동해로 조회하러 나아가고  
衆星爭拱北辰尊 별 무리는 다투어 높은 북극성을 우러러봤었다  
誰將異教崇諸佛 누가 이단의 가르침을 부처보다 더 높이리  
終見雄圖覆乃孫 끝내 웅대한 계획으로 후손에게 덮어짐을 보게 될 것이다  
五塔至今無語立 오탑(五塔)은 지금에 이르러 말 없이 서 있고  
行人駐馬拭苔痕 행인은 말 세우고 이끼 흔적을 닦는구나

향화암은 서장관이 제목에 붙인 細註에 의하면, 명나라 신종(神宗)황제의 원당(願堂)이라고 한다. 제주성 서쪽으로 40리 백간촌(白澗村)에 있다.<sup>91)</sup>

신종(神宗)은 명 나라 13대 황제로 임진왜란 때 구원병을 파견해 주고, 조선에 再造之恩을 만들어 준 장본인이다. 궁촌(窮村)은 중화(中華)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므로 우리나라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즉, 首聯은 임진왜란 당시의 일을 읊은 것인데, 신종 황제의 성스러운 덕이 우리나라에까지 두루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烽火]이 났는지 스스로 의아한 것이다.

의아했던 이유는 3, 4구에 나오는데, 당시의 명 나라만 하더라도 주변국들의 조회를 받을만큼 융성했었고, 명을 받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모든 물들[萬水]과 별 무리[衆星]은 주변국들을 이르는 말이고, 큰 동해[東海大]와 높은 북극성[北辰尊]은 명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만큼 명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시기였음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다.

5, 6구 역시 비유의 수법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는 이단의 가르침으로 대변되는 청 나라가 득세하고 있지만, 그 어떤 이도 명으로 대변되는 부처보다 이단을 높일 리가 없다고 믿고 있다. 6구는 명의 잔존세력들에 대해 걸고 있는 홍주원의 희망을 엿 볼 수 있다. 지금은 이렇지만, 결국에는 웅대한 계획에 의

91) 이시만, 「12月 23日」, “明朝神宗皇帝願堂云. 在薊州城西四十里白澗村.”

해 청 나라는 뒤집히고 말 것이라는 희망이다.

7구의 다섯 개의 탑[五塔]은 원당 내부에 있는 말 그대로 5개의 탑인 것으로 보인다. 신종황제 때처럼 성했던 명 나라도 없는데, 탑은 아무 말 없이 서 있기만 하다. 자신의 바람처럼 희망의 말이라도 건네주었으면 하지만, 탑은 그저 서 있기만 할 뿐이다. 융성했던 명 나라 황제의 원당에 있으니 옛 생각에 희망을 가져보려 하지만, 이미 청 나라로 사신 갔다 귀국길에 있는 자신의 현실은 답답할 따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걸음을 재촉하게 되는 귀국길임에도 불구하고, 탑으로 대변되는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한 마디라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8구의 이끼 흔적을 닦는 것은 명이 부흥하리라는 기대가 응축된 행위이다. 이끼가 끼었다는 것 자체가 세월의 흔적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끼를 닦아내는 행위로 부흥에의 기대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92)</sup> 다음 시는 직접적으로 부흥에 희망을 언급한 것이다.

〈聞南州新建年號〉

남주(南州)에 새로 연호를 지었다는 것을 듣다

存亡鼎革奈蒼天 존망이 달린 혁명을 하늘이 어찌하랴마는

宮闕城池揜宛然 궁궐과 성의 못은 모두 완연하구나

聞道福州猶一旅 듣자하니 복주(福州)는 일려(一旅)와도 같을지니

可能重見中興年 다시 중흥의 해를 볼 수 있겠구나

1648년 북경에서의 마지막 날 지은 시로 추정된다. 홍주원 일행이 북경을 떠난 것은 1월 13일인데, 당시 서장관의 기록을 통해 보면, 1월 12일에 역관들을 통해 복건(福建)에 나라를 세우고 그 연호를 복건이라 칭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 주된 내용은 이러하다.

역관의 무리들을 통해 들으니 산둥(山東) 제남부(濟南府) 근처에 토적(土賊)이

92) 이와 유사한 시상을 보이는 시로, 홍주원, 「연행록」, 177. <次白塔韻>, “故塔巋然聳百層 行人千古幾攀登 停車欲問興亡恨 石必無言且莫憑.”, 178. <過白塔有感>, “遼陽往事問無蹤 故塔千尋大野中 頑物若知興廢恨 定將哀怨訴蒼穹.” 등이 있다.

크게 일어나 구왕(九王)이 새해가 되기 이전에 군병(軍兵)을 근처에 파견했는데, 불변(不煩)한 땅에서 모두 죽이도록 했다고 한다. 왕자 한 사람이 남창(南槍)에서 죽었고, 주씨(朱氏) 중에 노왕(魯王)이 일어나 복건(福建)이 바야흐로 세워지고 호(號)를 복건이라 했다. 근방 도읍들이 모두 이에 응해 청(淸) 사람이 남쪽 지방에 다니지 못하게 명령해 장사길이 끊어졌다고 한다.…93)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한 남명 세력이 새로 정권을 세우고 연호를 지었다는 소식을 들은 홍주원은 명의 재기에 대한 현실적인 희망을 보게 된 것이다. 국가의 존폐가 달린 혁명을 준비하는 그들에게 있어 하늘도 어찌하지 못하리라 생각하며, 북경 내의 궁궐은 이러한 혁명의 씨앗에 대해 준비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은 채 평소 모습 그대로인 것에 다소 안도하는 것 같다.

3구의 ‘일려(一旅)’는 일려일성(一旅一成)의 준말로 적은 수의 인력과 작은 면적의 땅을 뜻한다. 하(夏) 나라 소강(少康)이 일려의 남은 군사로 중흥한 일이 있었다. 즉, 오랑캐에 비하면 작은 땅과 적은 인력이지만, 옛날 소강의 일처럼 다시 중흥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는 것이다.

홍주원을 비롯한 조선조정 내부에서도 남명 세력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1653년 연행에서 돌아온 홍주원을 비롯한 三使가 조정에 연행에 대해 보고할 때, 남명세력에 대한 보고가 주를 이루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은사(謝恩使) 홍주원(洪柱元), 부사 윤강(尹絳), 서장관 임규(林葵)가 북경에서 돌아왔다. 홍주원 등이 탐문한 연중(燕中)의 사정은 다음과 같다.

“청주(淸主)가 명나라의 항장(降將) 오삼계(吳三桂)를 서평왕(西平王)으로 삼고 누이를 그의 아들에게 시집보내면서 남방의 일을 전담시켰다 합니다. 옥전성(玉田城) 안에서 한인(漢人) 이연성(李連城)이라는 자를 우연히 만나서 남경(南京)의 소식을 은밀히 물었더니, 말하기를 ‘숭정 황제(崇禎皇帝)의 형 노왕(魯王)의 아들이 광서(廣西)에 도읍을 세운 뒤 연호를 영력(永曆)이라 하고 군사가 1백만이라 하는데 다 백포(白布)로 머리를 싸맸으므로 백두병(白頭兵)이라 한다.’ 하였습니다.”

93) 이시만, 「1月 12日」, “因譯輩聞之, 則山東濟南府近處土賊大起, 九王歲前發遣軍兵旁近, 不煩之地皆令屠之爲言云云. 王子一人死於南槍, 朱氏中魯王起, 福建方爲建, 號福建. 近地郡邑皆應之, 以此淸人號令不行於南方, 商賈路絕云云…”

다. 신들이 관(館)에 머문 지 자못 오래 되었으므로 사람을 시켜 한거원(韓巨源)에게 은밀히 물었더니, 말하기를 ‘황제의 형 홍기왕 상(紅旗王廂)이 남정(南征)하였다가 패하여 죽어서 남은 군사가 시체를 싣고 돌아왔으므로 상하가 우려하여 다른 일에는 겨를이 없어 이 때문에 지연된다.’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사신이 자주 왕래하기는 하나 노정(虜情)은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그 소문도 죄다 확실하지는 못합니다.”<sup>94)</sup>

1653년 연행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시도 소수<sup>95)</sup>일 뿐 아니라, 정확하게 1653년 작이라고 상고할 수 있는 비교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올린 위와 같은 상황의 경위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명의 존폐에 대한 홍주원의 관심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명과 청에 대해 읊은 시의 연도별 상황으로 보아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첫 연행이었던 1647년은 청의 북경 입궐 후 3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명의 재기에 대한 희망이나 청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게 드러날 수 있고, 마지막 연행인 1661년의 연행에서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인식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으나 정작 시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 최소한 연행시를 통해 보았을 때는 청과 명에 대한 그의 인식은 국제정세와 상관없는 울고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홍주원의 반청의식의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병자호란의 참상을 직접 경험한 것도 하나의 큰 이유일 것으로 짐작된다. 병자호란 당시 홍주원은 인조를 모시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으며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를 비롯해 흔히 삼전도(三田渡)의 굴욕으로 불리는 불평등조약의 체결, 봉림대군이 볼모로 잡혀가는 현장 등을 직접 목격한 인물이다. 난리가 끝난 이후에도 홍주원은 분개하여 왕실을 걱정하면서 눈물을 그친 적이 없다고 한다.<sup>96)</sup>

94) 『효종실록』4년, 「11月 30日」, “謝恩使洪柱元, 副使尹絳, 書狀官林葵回自北京. 柱元等探問燕中事情, 清主以明降將吳三桂爲西平王, 以妹妻其子, 專委以南方事云. 玉田城中, 偶逢漢人李連城者, 密問南京消息則言, 崇禎皇帝兄魯王之子, 建都于廣西, 年號永曆, 軍號百萬, 皆以白布裹頭, 號白頭兵云. 臣等留館頗久, 使人密問於韓巨源則言, 皇帝兄紅旗王廂南征敗死, 餘軍輿尸而歸, 上下憂慮, 不遑他事, 以此遲延云. 我國使价, 雖頻數往來, 虜情無由得知, 而其所聞, 亦未盡的云.”

95) 1653년 작으로 확실시 할 수 있는 시들은 다음의 4편이다. 홍주원, 「연행록」, 99. <大凌河>, 140. <夷齊廟>, 231. <重陽>, 238. <到碧蹄館. 逢着鼎卿問禮回還之行. 醉中口吟以贈>

96) 송시열, 「碑」, <永安尉洪公神道碑銘 并序>, “…丙子. 扈駕入南漢城, 難去, 公慨念王室, 常涕出不自已…”

### 제 3 절 使行길의 어려움과 人間的 交遊를 통한 解消

앞선 두 절에서 홍주원의 의식으로 ‘청에 대한 否定과 사신으로서의 자괴감’, ‘명왕조에 대한 한탄과 부흥에의 기대라’는 특징을 도출하였다. 그런데 홍주원의 의식 가운데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있는 바, 본 절에서 논의할 ‘사행길의 어려움과 인간적 교유를 통한 해소’이다. 앞의 두 절이 사신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에서 드러낸 의식이라면 ‘사행길의 어려움과 유연한 교유’는 연행 노정 중 개인적인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청에 대한 반감이 강했다고는 하지만, 선진문물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았던 당시에 연행길에 올라 이색적인 풍경에 대한 경이로움, 글을 통해서만 보던 사적지 방문에 대한 감회 등 일반적으로 연행사들이 읊었던 것들을 홍주원은 전무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남긴 것이 없다. 또한 시의 제목을 통해 머물거나 도중에 들른 사적지를 언급하기는 하지만, 시상은 그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은 앞선 절에서 보여준 청에 대한 否定의식이 기저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행길의 고통을 홍주원은 주로 삼사(三使)간의 차운시와 여행노정에서 만난 사람에 대한 증시(贈詩) 등을 통해 괴로움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신분을 개의치 않는 유연한 교유의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 3. 3. 1 使行길의 어려움

홍주원이 사행길의 어려움을 읊은 시들을 보면 육체적, 물리적 고통을 읊은 시들도 있지만, 일행의 죽음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드러내는 시들이 다수 존재한다. 1647년 연행에서 부사인 민성휘(閔聖徽)가 병을 얻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던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전술하였듯이 1647년 연행의 부사였던 민성휘는 연행 도중 병을 얻고, 결국은 북경에 이르러 유명을 달리했다. 평소 민성휘와의 개인적인 교유의 흔적은 보이

지 않고, 연행 도중에 시를 주고받은 것과 귀국 후 만시(輓詩)<sup>97)</sup>를 지은 정도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연행을 통해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개인적인 교유가 없었던 민성휘였지만, 서장관을 비롯하여 삼사(三使)가 잦은 수창(酬唱)을 통해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단순히 병과 죽음 때문에 시의 분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성휘를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에서 교유관계에 대한 홍주원의 의식세계 단면을 엿볼 수 있을 듯하다.

연행 중 병이 들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 홍주원의 연행시에서 자세히 알 수 있는데, 혼자만 읊은 것이 아니라 서장관과 함께 민성휘의 상태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잘 이겨내리라 믿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도 보인다.

이는 단순히 죽은 이를 위한 애도의 표현이 아닌 평소 홍주원이 가지고 있는 교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일례의 하나로서 의미가 있다. 시는 병과 죽음의 이르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副使因病差後，路上不堪悵缺，口占一律〉

부사(副使)가 병으로 인하여 약간 뒤쳐졌는데, 길에서 슬픔을 견딜 수 없어 읊시한 수를 구점하다

萬里同行役 만 리 동안 사신길 함께 했는데  
何曾有暫離 어찌 일찍이 잠시라도 떨어진 적 있었는가  
誰知公忽病 그대 갑자기 병들어  
獨使我先馳 홀로 내가 먼저 달려가게 될 것을 누가 알았겠느냐  
數日雖淹滯 두어 날 비록 지체될 것이지만  
千金且護持 천금을 들여서라도 장차 보호해야 할 것이다  
相迎定不遠 서로 맞이할 날 반드시 멀지 않을 것이기에  
步步故遲遲 걸음마다 일부러 더디게 간다네

서장관과 함께 삼사(三使)는 의례적이라고 하기에는 수창과 차운시의 빈도수가

97) 홍주원, 「七言律」, <挽閔判書 聖徽>, “一字題時一涕隨 此懷那盡此哀詞 長途積雪聯鑣役 古館中宵易簣悲 獨伴新春歸故國 忍看星駕作靈輜 楓宸慟惜絲綸切 入地猶爲聖主知.”

유독 높다. 이 시 역시 서장관이 차운해 같은 심정을 읊었다.<sup>98)</sup> 1-4구는 병 든 부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약 50여 일<sup>99)</sup> 간 거의 매일같이 서로 시를 주고받으며 돈독한 교유를 보여줬던 그가 병으로 인해 일행보다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그 충격에 대한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홍주원은 부사의 병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겨우 2-3일 지체로 회복할 수 있는 작은 병일 것이라 스스로 위로하며, 부사의 존재는 천금을 들여서라도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존재임을 피력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인 친분으로도 그렇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도 소중한 인재를 잃지 않기 위한 것임을 드러내는 구절이다.

7-8구에서는 재회의 날만을 기다리는 희망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중병이 아닐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재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 믿으면서 뒤쳐져서 따라오고 있는 부사를 위해 일부러 걸음을 더디게 가고자 한 것이다.

#### 〈次留別副使韻〉

부사에게 주고 떠난 시에 차운하다

衰境驅馳步履輕 만년에 말 내달리는 모습이 신선 걸음마냥 가벼운데  
松喬異骨卽前生 아마도 전생에 송교(松喬) 같은 신선의 모습이었나보다  
無端一病差先後 까닭 없이 한 번 병들어 앞뒤가 어긋났으니  
客路還添去住情 나그네 길 도리어 가고 머무는 정을 보태게 되었구나

#### 〈其二〉

그 두 번째

沙門作別亦依依 사문(沙門)에서 이별했던 것이 안타까운데  
客裡分携奈此時 객지에서 헤어지니 이 때의 마음을 어이할꼬  
前路團圓應不遠 앞길은 원만해 멀지는 않을테니  
相迎應復說相離 서로 맞이하여 다시 이별했던 얘기를 하겠지

98) 이시만, 「12月20日」, <次正使留別副使路上感懷韻>, “世事難如意 人生易作難 臥床愁獨滯 臨路失同馳 公體愉應健 余心不自持 宵來竚消息 膏轄敢嫌遲.”, 같은 날 서장관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읊은 <道中風沙次副使韻>도 있다.

99) 서장관의 기록에 의하면 12월 20일에 일행이 헤어졌다.



두 편의 연작시는 앞의 시와 같은 날인 12월 20일에 서장관이 지은 〈부사가 병으로 사하에 머물게 되었으니 우리들이 먼저 가는 심정을 견디며(副使以疾留沙河吾儕先行情懷可勝)〉 두 편을 차운하여 지은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시는 평소에 여유있던 부사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갑작스레 병든 것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다. 병 들기 전 말 타고 달리던 부사의 모습은 마치 신선의 걸음마냥 가볍고도 여유로워 보였다. 2구의 “송교(松喬)”는 전설상의 신선인 적송자(赤松子)와 왕자교(王子喬)의 병칭이다. 적송자는 장량(張良)이 유방(劉邦)을 도와 한(漢)나라를 세운 뒤에 권세에 미련을 두지 않고 적송자와 노닐기 위해 벽곡(辟穀)과 도인(道引) 등 신선술을 닦았다는 고사가 전한다. 왕자교는 주 영왕(周靈王)의 태자(太子) 진(晉)을 말한다. 직간(直諫)을 하다가 폐세자(廢世子)가 되어 구씨산(緱氏山)에 들어가 신선(神仙)이 되었다 한다. 즉, 부사의 모습이 전생에 신선이었던 것 마냥 건강해 보였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홍주원의 입장에서는 ‘까닭 없는’ 병처럼 보였고, 이로 인해 부사가 뒤처지게 되어 앞뒤가 어긋난 것이다. 그래서 나그네 길에 가고(홍주원) 머무는(부사) 정이 기존에 있던 정에 보태지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시는 헤어짐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만을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행이 이별했던 것이 사하(沙河)였기 때문에 1구가 그러한 것이고, 객지에서의 생각지 못한 이별에 더욱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앞길이 멀지 않다는 것은 북경과의 거리가 가까운 것을 말하는데, 홍주원 일행은 정확히 5일 후인 12월 25일에 북경 옥하관에 도착했다. 얼마 남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옥하관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재회하여 잠시 이별했던 일을 가볍게 이야기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이 3-4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① 〈次有懷副使台丈韻〉

부사(副使) 어른에 대한 생각이 있어 차운하다

沙河消息若爲傳 사하(沙河)에서 소식 전해 올 것만 같은데  
 一日離懷似一年 하루 이별의 회포가 일 년 같구나  
 已信微痾終勿藥 이미 작은 병이 마침내 나았으리라 믿지만  
 不堪憂思客中偏 나그네 신세 근심을 견딜 수가 없구나

② 〈次別山店韻〉

별산점(別山店)에서 차운하여 읊다

去留隨處幾臨歧    가고 머무름은 곳에 따라 거의 갈림길을 맞이하는데  
 黯結無如昨日離    어둠은 맺혔어도 어제 이별한 것 같지는 않구나  
 店號別山應偶爾    가게를 별산이라 이름했으니 응당 너와 한 짝이었어야 하는데  
 到今懷抱不堪悲    이제 와서 회포에 슬픔을 견딜 수 없다네

두 편의 시 모두 앞선 시보다 하루가 지난 12월 21일에 지은 것이다. 첫 번째 시는 서장관이 지은 〈부사 어른이 평안하다는 보고가 아직 오지 않아 뜻대로 떠나지 못해 근심스레 시 한 절구를 짓다(副使台丈平安報尙不來不任倏慮爲賦一絶)〉를 차운하여 지은 것이다. 이 날 일행은 옥전현(玉田縣)에 이르렀는데, 부사 일행과 떨어진 사하로부터 약 160여 리를 왔다. 역졸이 오지 못했던 것은 거리상의 이유도 있을 듯하다.

시상의 흐름은 앞의 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부사의 안위가 근심스러워 사하에서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홍주원에게 하루는 1년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부사의 병이 크지 않길 바라는 염원에 작은 병은 이미 나았을 것이라 믿는다고 표현했으나, 소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되는 시름은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두 번째 시는 별산점(別山店) 길 옆에 있는 판자에서 시를 보고 바로 차운한 것이거나, 이 시를 차운한 서장관의 시를 다시 차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와 운자가 동일한 서장관의 시 제목이 〈별산점 길 옆 판자에 시를 보고 부사가 생각나 쓰여 있는 것에 차운함(別山店路傍神廟見板上詩懷副使次韻書感)〉이기 때문이다.

이 시는 별산점의 지리적 요건과 부사와 이별한 현실이 잘 맞물려 표현되어 있는 시라고 할 수 있다. 별산점은 지리적으로 갈림길이 많기 때문에 이별해야 하는 곳이다. 별산점 길 옆 판자의 원운도 아마도 이별에 대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다. 이와 관련하여 1구는 이러한 연유로 지어진 것이다. 목적에 따라 가고 머무르기 때문에 결국 갈림길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갈림길이 많은 별산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목적을 북경

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부사의 병으로 인해 부사는 그 곳에 머물 수밖에 없고, 국가의 명을 받들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먼저 떠날 수밖에 없는 홍주원 일행이었다. 즉, 지리적, 자연적, 인위적 상황에 따라 기로에 놓이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별했지만, 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심적 고통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전 날 새벽에 이별하여 하루가 지나고 그 하루가 다시 밤이 된 약 이틀 정도의 시간뿐이지만, 더욱이 소식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체감하고 있는 시간은 더욱 길게만 느껴지는 것이다.

3구에서 홍주원은 “별산(別山)”이라는 이름 자체를 ‘이별하는 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인 듯하다. 별산이 응당 한 짝이었어야 하는 이유는 이별의 전제조건 자체가 “짝(偶)”이기 때문이다. 이를 자신과 부사의 상황에 빗댄 것이다. 원래는 응당 한 짝이었어야 할 일행이지만,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민성휘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별산이라는 곳에 당도해 그 안타까운 감정이 더욱 커져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次夏店有懷副使韻〉

하점(夏店)에 이르러 부사(副使)가 생각나기에 차운하여 짓다

王事驅人去 나랏일로 말 몰고 떠났으니  
 須臾豈敢忘 잠깐이라도 어찌 감히 잊으리  
 心懷自忽忽 마음은 절로 급해지는데  
 消息漸茫茫 소식은 점점 아득해지는구나  
 攝理誰醫藥 누구든 의약(醫藥)으로 잘 다스려야 할텐데  
 淹留柰店堂 어찌 여관에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겠는가  
 同行六十日 함께 한 60일 중  
 今日有何忙 오늘처럼 이리도 바쁜 날이 있었던가

이 시는 3일 후인 12월 24일에 서장관의 〈부사 어른과 작별한 지 이미 4일이 되었다. …맞이하기 위해 우두커니 서 있는 뜻을 펼침으로 시 한 읊을 짓다(與副使台丈作別已四日矣…賦一律以申迎佇之意)〉<sup>100)</sup>의 운을 차운하여 지은 것이

다. 바쁜 사신 업무 속에서 부사에 대한 걱정은 비슷한 시상으로 흘러간다.

제목은 통해 보면 분명 부사에 대한 걱정이 시의 주된 소재이다. 그러나 자신은 왕명에 의해 국가를 대표한 사신단의 장(長)이다. 1-2구의 내용은 그러한 이유에서 쓰인 것이다. 나랏일로 먼 길을 떠났으니, 잠시라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할 수 없는 것이다.

3-4구는 4일 동안 소식이 없는 부사에 대한 걱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소식조차 전해지지 않는 막연한 상황에 마음만 급급한 처지이다. 어디에서 누가 돌보고 있는 지도 모르는 상황이 5-6구에 나타난다. 누가 되었든 의술과 약(藥)으로 잘 보살펴야 하며, 평소 자신들이 묵던 숙소 역시 병을 치료하는데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심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심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부사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조치할 수 없는 현실에 서장관과 함께 시를 통해 근심만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시를 썼을 당시 일행은 북경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40리 떨어져 있는 통주(通州)에 도착했다. 북경 직전의 변화가이기 때문에 입연(入燕)하기 전 여러 준비들로 분주했을 것으로 추측된다.<sup>101)</sup>

위의 시들이 모두 북경으로 향하던 중 병 들어 뒤쳐진 민성휘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라면, 다음의 시들은 북경에서 사신단의 공식적 임무를 모두 수행하고 귀국길에 민성휘의 상행(喪行)과 함께 하면서 그를 그리워하고 애도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 ① 〈次追悼副使韻〉

부사를 추도하며 차운하다

並駕燕山亦夙緣 나란히 연산으로 갔었으니 이 또한 전생의 인연이라

100) 이시만, 「12月24日」, <부사 어른과 작별한 지 이미 4일이 되었다. 호행(護行)을 위하여 잡혀 있어 나아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묻는 동쪽에서의 소식 역시 막연하여 들을 수가 없으니, 저쪽이나 이쪽이나 끊어진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다. 맞이하기 위해 우두커니 서 있는 뜻을 펼침으로 시 한 읊을 짓다(與副使台丈作別已四日矣。爲護行所拘, 既不得馳, 人間訊東來消息, 漠然無聞, 彼此隔絕心緒纏鬱。爲賦一律以申迎行之意)>.

101) 이시만, 「12月24日」, “...통주는 북경(北京)에서 40리 떨어져 있는데 동남쪽의 요충지이다. 성지(城池)가 높으면서 깊고, 인민이 번성하니 관내에 제일이다. 강변에는 배와 돛대들이 모여 있는데 자그마치 백간(百竿)이다...(通州距北京四十里, 東南咽喉之地。城池高深, 人民●●甲於關內, 江邊舡檣簇立, 無慮百竿...)”.

開心遇我許忘年 마음 열고 나와 만나 나이를 잊고 허락했다  
 無端旅館存亡慟 끝없이 여관에서 삶의 삶과 죽음에 슬퍼했는데  
 不忍重看舊和篇 차마 옛날에 화답했던 시들을 거듭 볼 수가 없구나

② 〈其二〉

그 두 번째

寒風吹動粉書旌 찬 바람 불자 흰 글씨의 명정(銘旌)이 움직이는데  
 千里歸魂已漢京 천 리 밖 한양으로 이미 뉘는 돌아갔다네  
 想得涇江傳訃日 생각해보면 대동강에 부고가 전해지는 날  
 一時春杵捻無聲 한동안 절굿공이는 내내 소리가 없겠지

③ 〈其三〉

그 세 번째

同行莫逆我三人 함께 한 우리 세 사람은 막역했었는데  
 死別驚心又一春 죽음으로 헤어져 놀란 마음에 또 한 해가 지났구나  
 今日忍尋東去路 오늘 차마 동쪽으로 가는 길에  
 淚行空洒柳車塵 눈물을 부질없이 상여 티끌에 뿌리겠지

④ 〈其四〉

그 네 번째

魂招古館憶中宵 혼을 불러들인 옛 객사를 한 밤중에 생각하는데  
 移殯僧廊咫尺遙 빈소를 옮겼던 승랑(僧廊)은 지척인데도 멀었었지  
 最是元春上旬日 무엇보다 원춘(元春)의 상순일이며  
 可堪初度卽今朝 생일이 오늘 아침이니 어찌 견딜 수 있으랴

위의 네 편의 연작시는 사신단이 북경을 떠난 1648년 1월 10일에 서장관이 지은 〈부사를 위해 곡하면서부터 마음이 참혹하여 글 생각이 없었으나 이제 막 슬픈 회포에 부쳐 억지로 짓다(自哭副使心緒慘然無意筆硯今始強賦以寓傷悼之懷)〉 연작시 4편을 차운한 것이다.

①은 민성휘와의 인연이 소중했던 것과 죽음에 대한 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정사와 부사의 인연으로 함께 연행길에 올라 맺게 된 돈독한 정은 서로가 “전생의 인연[夙緣]”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두터운 것이었다. 이는 20여 년이 넘는 나이 차이마저도 무색할 정도였다.

객지에서 병 들어 유명을 달리한 민성휘이기 때문에 그 “삶과 죽음[存亡]”에 대한 생각은 더욱 슬퍼질 수밖에 없다. 또한 위낙에 서로 많은 시들을 주고 받고, 서장관까지 삼사(三使)가 수창하는 시간들을 거의 매일 갖다시피 했기 때문에 남겨진 시들을 보게 되면 생전에 그의 모습이 떠올라 견딜 수 없어 차마 쳐다볼 수 없는 것이다.

②는 ①에 비해 다소 객관화된 시점에서 체념하고 있는 어조로 민성휘의 죽음을 읊고 있다. 일반적으로 명정(銘旌)은 붉은 천에 흰색으로 죽은 사람의 품계나 관직 등을 적는데, 1-2구는 상행의 뒤를 따르는 명정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민성휘의 죽음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죽음을 실감하고 나자 그의 영혼은 이미 천 리 먼 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있으리란 생각이 든 것이다.

3구의 “패강(溟江)”은 대동강의 고명(古名)이다. 대동강으로 부고가 전해졌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고향에 소식이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절굿공이 소리가 없을 것이라라는 말은 어진 이의 죽음을 뜻하는 말이다.

③은 답답한 어조로 시작하여 절구에서 감정이 고조되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시를 통해 나이를 잊고 막역한 교유를 했던 홍주원, 민성휘, 이시만이었는데, 민성휘의 죽음으로 받은 충격에 한 해가 지나 연도가 바뀐 것도 잊을 정도였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그의 죽음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주검을 실은 상여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교롭게도 민성휘의 생일이 있었기에<sup>102)</sup> 이 날 만큼은 눈물을 참지 못할 것이라 한 것이다.

④는 민성휘가 주검이 되어 옥하관(玉河館)으로 들어왔던 때와 며칠 머무르지도 못한 채 중국 관리의 성화에 못 이겨 관을 하대문(河大門) 밖 7, 8리 떨어진 곳으로 옮겼던 때를 생각하고 있다. 거리상으로 그렇게 먼 곳은 아니지만, 이별했

102) 이시만의 원운 네 번째 시 세주에 “오늘은 부사의 생일이다. 제4구는 그러한 연유이다(今日乃副使生日, 第四句及之故).”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싸늘히 돌아온 그를 다시 홀로 떠나보낸다는 것 자체로도 멀리 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상행 중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그 슬픔은 더욱 배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1661년 연행에서도 부사 이정영(李正英, 1616~1686)이 연행 도중 병이 들어 일행에 비해 뒤처지게 된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유사한 형태의 시들이 보인다.<sup>103)</sup> 다만 민성휘와는 다르게 연행 전부터 개인적으로 교유는 있었던 듯 하다.<sup>104)</sup>

민성휘의 죽음은 그 자체로도 홍주원에게 큰 정신적 괴로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는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인재의 손실이며, 홍주원 자신이 인정하지도 않는 청으로의 연행길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감안했을 때 괴로움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사행길의 어려움을 토로한 작품들이 여럿 있는데, 대표적인 몇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① 〈其二〉

##### 그 두 번째

行裝付與老蒼頭	보따리 짚어진 늙은 하인
倦倚征輶困睡眸	멀리 가는 수레에 기대어 피곤해 졸고 있구나
入店羌兒難解語	여관에 들어가니 오랑캐 아이 말 알아듣기 어렵고
渡灘郵卒自生愁	여울을 건너가 역졸(驛卒)을 보니 절로 시름이 생기는구나
誰將白雪吟詩壘	누가 백설(白雪)을 소재로 시단(詩壇)에서 읊을 것이며
何處青帘有酒樓	어느 곳에 푸른 깃발 달린 주루(酒樓)가 있을꼬
今日備嘗爲客苦	오늘 두루 나그네 괴로움 겪다 보니
計程猶惜一宵留	노정을 따져보니 오히려 하룻밤 머무름도 아깝도다

103) 이 때 부사의 병은 단순한 눈병이었으나 이별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시로 읊었다. 홍주원, 「연행록」, 288. <曉發林畔。副使稱以眼病。約以迫到。途中口占>, “纔與隣行分路歧 谷翁何事又遲遲 還如天際離行鴈 處處孤飛叫侶時.”

104) 홍주원이 평소 준 시와 1661년 연행 중에 이정영이 손수 서적을 베껴 써 가지고 있는 것에 격려하며 쓴 題後가 문집에 남아 있다. 시는 홍주원, 「五言律」, <李子修 正英 第口號>, “萬里行期迫 杯觴自此休 衰年不戒酒 看取蔡湖洲.”, 제후는 「題後」, <題子修手抄自警編>이다.



② <到山海關, 贈鄭裨先還>

산해관에 이르러 정씨 비장(裨將)이 먼저 돌아가기에 주다

燕山萬里共辛艱 연산 만리 길을 함께 고생했는데  
 此日先吾故國還 이 날 나보다 먼저 고국으로 돌아가네  
 東閣倘蒙丞相問 동각(東閣)에서 혹시 승상의 물음을 받는다면  
 爲言行役鬢毛斑 사신길에 귀밑머리 세었다고 말씀드리게

③ <次送先來韻>

선래(先來)를 전송하며 차운하여 읊다

光陰倏忽改年華 세월은 금세 지나가 해가 바뀌었는데  
 千里羈人倍憶家 천 리 밖 나그네는 집 생각 곱절 나네  
 却羨君行先我返 부러워라 그대 나보다 먼저 돌아가니  
 一句應到鴨江涯 열흘이면 아마 압록강 근처에 이르겠지

①은 1647년 북경행 중에 지은 연작시 <눈을 읊다. 다시 앞의 운을 사용하다(咏雪, 更用前韻)>의 두 번째 시이다. 첫 번째 시의 내용<sup>105)</sup>과 서장관의 기록<sup>106)</sup>을 통해 보면, 폭설이 내려 잠깐 사이에 온 세상이 두루 눈으로 뒤덮였고, 결국 눈을 치우고 노숙하게 되었다.

1구의 “蒼頭”는 본래 머리에 푸른 두건을 두른 군대를 가리키나, 전하여 하인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자신이 탄 수레에서 멀리 있는 짐꾼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다. 2구는 여정길의 육체적 피로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다.

24일에 노숙을 했는데 3구에서 여관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보니, 다음 날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羌兒”는 강족(羌族)의 아이라는 뜻으로, 오랑캐 아이다. 여관에 오랑캐 아이가 묵고 있었던 것인지, 오랑캐가 운영하는 여관에 묵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만큼 오랑캐 무리들이 중원 내에 두루 퍼져 있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105) 홍주원, 「연행록」, <咏雪, 更用前韻>, “須臾積雪遍山頭 …”

106) 이시만, 「11月 24日」, “大雪. 새벽에 출발하여 저녁때 봉황성(鳳凰城) 책문(柵門) 밖 5리에서 눈을 치우고 노숙했다. 이 날 60리를 갔다(大雪. 平明發行, 夕時鳳凰城柵門外五里, 披雪露宿. 是日六十里).”

4구는 홍주원은 이미 여울을 건너온 상황에서 역줄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눈도 많이 왔고, 날씨도 춥기 때문에 다시 여울을 건너갈 역줄을 걱정해 주는 것이며, 그만큼 여울 건너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1-4구까지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점을 읊은 것인데, 높은 하인과 역줄을 안쓰러워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이들을 통해 사신길의 고단함을 엿볼 수 있다.

5-6구는 사신길에서 자신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시와 술 뿐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5구의 “백설(白雪)”은 수준이 높은 곡의 이름으로 흔히 상대방의 시를 찬양할 때 쓰이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시를 잘 지을 것이냐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노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를 짓기도 어렵고 주루(酒樓) 역시 근처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7-8구를 통해 폭설에 강을 건너는 고생을 비롯하여 노숙까지 하게 된 괴로운 형편이지만, 시일의 촉박함 때문에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압박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②는 1647년 연행의 귀국길에 쓴 시이다. 서장관의 기록<sup>107)</sup>으로 보아 1월 23일 즈음 지은 것으로 보인다. 제목에서 보이는 贈詩의 대상인 “裨將”은 감사(監司)·유수(留守)·병사(兵使) 등의 지방 장관 및 중국 사신을 수행하던 무관으로 지방 장관이 임의로 임명하였던 임시직이다. 자신에 비해 한참 지위가 낮은 인물이지만, 약 두 달간의 여정을 함께 고생한 동료로 인식하여 이별에 대한 아쉬움을 시를 줌으로써 표현하고 있다. 4구는 연행길에서의 고생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귀밀머리가 하얗게 세어버릴 정도로 그 심신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③은 ②와 마찬가지로 1647년 연행의 귀국길 작품이다. 서장관이 1월 24일에 지은 <산해관(山海關)에서 선래(先來)를 보내며 느낌을 쓰다(山海關送先來書感)>를 차운하였다. 제목의 “先來”는 외국에 갔던 사신이 돌아올 때, 그보다 앞서 돌아오던 역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1구는 1647년에 연행길에 올라 어느덧 1648년이 되었기 때문에 한 말이다. 빠듯한 여정에 당시에 귀국길이기는 했지만 하루라도 더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지기만 한다. 3-4구는 먼저 돌아가는 사신을 부러워하고 있는

107) 이시만, 「1月 23日」, “밤에 눈. 이른 새벽 출발해 저녁 때 산해관(山海關)에 이르러 성 밖 여관에 서 머물렀다(夜雪. 早發行, 夕時到山海關止宿城外店舍…)”

내용인데, 이는 홍주원에게 있어 이 여행길이 얼마나 힘에 부치고 견디기 힘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행길은 여러 상황 속에서 정신적·육체적 괴로움을 겪게 한다. 전술하였듯이 노숙을 비롯한 잠자리의 불편함, 굶은 날씨로 인한 괴로움 등이 육체적 괴로움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청에 대한 否定의식과 반감이 강해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던 홍주원에게는 정신적 고통이 더해진 셈이다. 즉, 홍주원 개인의 의식에서 대청여행은 산수유람의 즐거움이나 선진문물에의 동경 등의 긍정적인 측면은 전무한 괴로움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다.

### 3. 3. 2 人間的 交遊를 통한 解消

사행길은 홍주원에게 있어 국가의 임무와 개인의 의식이 충돌하는 괴로운 여정이었다. 청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여행록에서 보이는 유람이나 감상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일행과의 수창(酬唱)이나 우연히 만난 인물들에게 증시(贈詩)를 하는 등 인간적인 교류를 통한 것이었다. 앞서 교유관계에 대한 유연한 홍주원의 의식을 살펴본 바 있는데, 이는 여행여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부사서장관과의 수창을 제외하고, 증시나 詩의 소재가 된 인물들의 신분은 길바닥의 乞人<sup>108</sup>을 비롯하여 기생 등 실로 다양하다. 그러나 청의 문사들만큼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여행록에서 중국 문사들과의 수창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다. 특히 18세기에 이르러서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 입각하여 대명의리론을 비롯한 맹목적인 명 지향적 의식이나 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에서 점차 탈피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북학사상의 등장으로 청의 문화적 수준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108) 홍주원, 「여행록」, 191. <永平府次>는 세 편의 연작시인데 <其三>이 길바닥의 걸인을 불쌍히 여겨 읊은 것이다. “乞兒生計劇酸辛 當路搥胸不掩身 萬姓向來皆失所 世間何限似渠人.” 그 自註에도 “오른쪽은 걸인을 불쌍히 여긴 것이다(右矜乞兒).”라고 되어있다.

반면에 홍주원의 경우는 시기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네 차례나 되는 연행에도 불구하고, 중국 문사와 수창하거나 혹은 차운한 시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내면에 청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작용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모든 연행에서 正使의 자격으로 참여한 그가 의례적으로라도 시를 주고받았을 법도 한데 남아 있는 것은 없다. 의도적으로 그러한 것인지 지었으나 남겨놓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고할 길이 없다.

앞선 시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홍주원의 연행시에는 일행들과의 차운시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1647년의 경우 서장관인 이시만과 서로 차운한 시가 100여 수가 넘을 정도이다. 연행시 내 차운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1647년 차운시들의 제목 구성을 토대로 유추해 보았을 때, 총 364首 중 300여 首 이상이다.

그러나 부사나 서장관 등의 교류 이외에도 홍주원은 벼슬아치들이 아닌 중국 내 일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호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숙소 주인의 작은 호의에도 시로써 감사를 표하기도 한다. 또한 연행길에 동행한 역졸들의 고생을 걱정하는 모습 등 상대의 신분을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다.

교유에 대한 홍주원의 유연한 태도는 연행길에서 뿐만 아니다. 앞선 우암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공은 신분이 귀한데도 예의가 있었고 부유한데도 검소했다. 네 번 연산(燕山)에 사행하였는데 저들에게 전례로 받은 선물들을 모두 하인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갖지 않았으며, 친구들을 두루 보살피 도와줌이 자기 집안사람보다 더 두터웠다. 향리에 강종효(姜宗孝)라는 자가 있었는데, 월사공(月沙公)의 먼 친속(親屬)으로 공의 인후(仁厚)함을 믿고서 무릅없이 드나들었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어냈다...”<sup>109)</sup>

홍주원은 우암의 기록에서처럼 네 번의 연행길에서 얻은 물품들을 모두 하인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미천한 사람의 부탁도 거절한 적이 없었다. 연행길에서 청을 통해 얻은 물품들을 나누어 준 것은 청을 향한 부정적 인식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그 대상이 하인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09) 송시열, 「碑」, <永安尉洪公神道碑銘 并序>, “四使燕山, 彼中例贈, 皆散之儉率而不自累, 其周恤親舊, 甚於己私/ 鄉里有姜宗孝者, 月沙公疏屬, 恃公姻厚, 冒昧出入, 有求必得.”

단순히 물품을 주거나 호의를 베푸는 것을 교유의 일면으로 볼 수는 없으나, 상대방의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 그의 평소 성격이 여행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시들은 여정에서 우연히 만난 인물들에게 서적을 받고 그 감사함을 표하며 증시한 것들이다.

① 〈豐潤縣臨行，走筆謝王秀才貽清贈四書心訣〉

풍운현(豐潤縣)에서 출발하려고 하니 왕씨 수재(秀才)가 맑은 마음으로 『사서심결(四書心訣)』을 주기에 붓을 휘둘러 사례하다

遠客重經地    멀리서 온 손님 거듭 지나온 곳  
依然似舊居    전과 다름없어 옛 거처 같구나  
多君欸曲意    고맙구나! 그대 정성스런 뜻으로  
贈我聖賢書    나에게 성현의 글을 주었다네  
別後憑顏面    이별한 뒤 얼굴을 떠올리며  
閑中可卷舒    한가할 때에 책을 펼쳐 볼만 하겠지  
留詩謝嘉貺    좋은 선물에 시로 사례하였지만  
立馬更躊躇    말을 세워놓고 다시 머뭇거리게 되는구려

② 〈謝撫寧王秀才贈論學二編〉

무녕(撫寧)에서 왕씨 수재(秀才)가 논어와 대학 두 편을 준 것에 사례하다

一宿非無他    하룻밤 묵는 것은 다른데서 없었던 일도 아니지마는  
重來亦有緣    다시 온 것은 또한 인연이 있어서라네  
渾忘客子苦    나그네 괴로움 전부 잊은 것은  
幸賴主人賢    다행스럽게 어진 주인을 만나서 의지할 수 있어서였다네  
厚意分書卷    두터운 생각으로 서적을 나눠주고  
清談對酒筵    맑은 대화하며 술자리도 나눴었지  
還慙一詩謝    도리어 시 한 편으로 사례하기에는 부끄러우나  
臨別倍依然    이별 하노라니 아쉬움이 갑절이로구나

①은 1648년 귀국길에 풍운현에서 묵었던 숙소에서 만난 왕씨의 호의에 감사하는 내용이다. 서장관의 기록에도 특별한 내용 없이 성 안의 여염집에서 묵었다(宿城內閭家)는 내용 뿐이다. 1, 2구의 내용으로 보아 북경으로 향하던 중에도 이 집에서 머물렀던 듯하다.<sup>110)</sup> 첫 번째 연행이었기 때문에 가는 길에 묵었던 곳이 아니라면, ‘거듭 지나온 곳’이라고 언급할 리 없기 때문이다.

책을 준 왕씨에 대해 자세한 정보는 없으나, 제목의 수재(秀才)라는 말로 보았을 때, 아직 벼슬에 나아가지 못한 서생(書生)인 듯하다. 수재는 元 나라 이후로 서생이나 독서인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또한 가는 길과 오는 길에 모두 만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묵었던 숙소의 주인이거나 주인집의 가족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북경으로 향하던 중에는 돌아오는 길에 재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조선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후일을 기약할 수 없다. 연행길 중 묵었던 곳에서 수재들과의 만남이 잦았고, 그들을 향해 시를 지어주기도 했던 홍주원이기에 묵는 동안 이런저런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기 때문에 왕씨인 수재도 그렇고, 홍주원도 이별의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3구에서 6구까지는 ‘多君’, ‘曲意’ 등의 어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또한 돌아가서도 잊지 않을 것이며, 책도 볼 만 하다고 언급하면서 선물의 가치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홍주원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왕씨에게 받은 선물에 비해, 보답으로 주는 자신의 시 한 수는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하기에 떠나려고 말 탈 준비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못하고 머뭇머뭇 하게 된 것이다.

② 역시 1647년 연행의 귀국길에 들른 무녕현의 숙소에서 만난 인연이다. 이때 역시 서장관이 특별히 기록해 놓은 것은 없다. 시의 내용은 ①과 거의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1, 2구를 통해 보면 이 곳 역시 북경행 중 들렀던 곳으로 보인다. ①과의 차이라면, ①에서는 서적을 나눠준 행위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면서 간접적으로 칭찬했다면, ②는 나그네 괴로움을 전부 잊게 해 준 주인의 어필[主人賢]을 비교적 직접적인 칭찬으로 볼 수 있다. ①보다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술자리를 통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다. 결국은 ①과 마찬가지로 호

110) 서장관에 기록에 의하면, 12월 20일에 풍운현에 묵었는데 숙소에 대해 역시 특별한 기록이 없어 주인에 대한 다른 정보는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의에 대한 자신의 보답이 보잘 것 없으며, 이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이외에도 곳곳의 수재들에게 시를 주거나 그들로부터 서적을 받고 감사함을 표한 작품들이 여럿 있다.<sup>111)</sup>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기생에 대해 읊은 시들이 다수 있다. 기생과 관련된 시들은 기생에게 직접적으로 준 시는 없고, 전부 기생을 소재로 시를 주고 받거나 차운한 것들이다. 대부분 희롱조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시를 통해 보다 더 부드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희롱조로 부사나 서장관과 기생에 대해 읊은 시들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① 〈又用前韻。戲呈書狀〉

또 앞의 운을 써서 장난삼아 서장관(書狀官)에게 주다

香滿衣裳雲滿頭	향기는 의상에 가득하고 구름도 머리에 가득한데
佳人脉脉送星眸	기생은 끊임없이 유혹의 눈동자를 보냈었다
箕城謾咏無花嘆	평양에서 부질없이 꽃이 없다고 탄식한 시를 읊다가
灣館渾忘作客愁	용만관(龍灣館)에서 나그네 시름을 모두 잊었었지
舞袖只應沾別淚	춤추는 소매는 응당 이별의 눈물만 적실 것이니
朝衫何必掛粧樓	관복은 하필 단장된 누대에만 걸려야 하는가

…下略…

② 〈戲呈書狀〉

장난삼아 서장관에게 주다

風流御史氣翩翩	풍류를 즐기는 어사의 기운이 드날려
隨處笙歌擁妓筵	이르는 곳마다 생황과 노랫소리 기생자리 빙 둘러네
自笑病懷渾索莫	우습다! 병 들어 온통 삭막할 뿐이니
滿天明月閉窓眠	하늘은 밝은 달로 가득 차 있어도 창 닫고 자고 있구나

111) 홍주원, 「연행록」, 203. <通州贈主人李秀才永耘>, “窓前微霞響踈踈 客店重尋似舊屋 已識主人情不淺 願看天下未看書.”, 204. <通州示諸秀才>, “憐君眉目撚超倫 底事今爲辮髮人 相對客窓無限意 可堪天下政風塵.”, 205. <謝李秀才贈易經>, “義經一帙荷深情 臨別慙慙贈我行 仍憶吳鄉披閱處 卷中顏面卽平生.”



③ 〈聞書狀玩花戲, 呈一絶〉

서장관이 꽃을 희롱하며 논다는 것을 듣고 절구 한 수를 주다

風流御史領繁華 풍류 즐기는 어사는 변화함을 다 차지하고  
處處耽看解語花 곳곳마다 해어화(解語花)를 흥미롭게 보네  
店主不曾知客意 객사 주인은 일찍이 나그네의 뜻을 알지 못했는데  
一枝春色謾相誇 한 가지 봄빛들이 멋대로 서로 자랑하네

④ 〈戲呈副使〉

장난삼아 부사에게 주다

安興佳麗較新安 안흥(安興) 미녀를 신안(新安)과 비교하겠는가  
一代名傳二色難 한 세상에 이름이 두 빛깔 전하기가 어렵다네  
醉過楊州車滿橋 수레에 굴 가득 채우고 취하여 양주(楊州)를 지나는데  
舍人風彩世爭看 사인(舍人)의 풍채 세상이 다투어 보느구나

①, ②, ③ 세 편은 1647년 연행의 시로, 모두 서장관에게 희롱조로 준 것이고, ④는 1661년 연행에서 지은 것이다.

먼저 ①은 11월 17-21일 사이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서장관의 기록에 의하면 연행사 일행이 11월 17일에 의주에 도착해 21일까지 5일간 머물렀다.<sup>112)</sup>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앞의 두 편의 시와 운자가 동일한데, 이 시까지 합쳐 모두 3편이 운자가 같다.

앞의 두 편의 내용 역시 의주에서 묵었을 당시 즐거웠던 일들을 회상하는 구절들이 있다. 첫 번째 시인 〈책문 밖에 이르러 앞의 운을 써서 의주(義州) 부윤(府尹) 자화(子和)에게 부치다〉<sup>113)</sup>의 6구인, “꿈 속에 생황과 노래가 백 척 누대에 있구나.”와 두 번째 시인 〈부사(副使)에게 감사드리며 앞의 운을 쓰다〉<sup>114)</sup>의 5,

112) 이시만, 「11월 17日」, “이른 아침 출발하여 소곶참(所串站)에 이르렀다가 그대로 의주(義州)에 이르러 머물렀다(早朝出行, 到所串站仍向義州止宿).”, 「11월 18, 19, 20, 21日」, “그대로 머물렀다(仍宿).”

113) 홍주원, 「연행록」, 74. <到柵門外. 用前韻寄灣尹子和>, “長程十步九回頭 尙憶登臨騁醉眸 魂斷鴨江仍異域 酒醒氍毹倍羈愁 燈前風雪三更夜 夢裡笙歌百尺樓 擬伴青春歸故國 奚囊物色尙分留.”

114) 홍주원, 「연행록」, 75. <敬謝副使. 用前韻>, “多荷清詩自案頭 風光隨處入吟眸 龍門得御元非分 燕路追陪豈是愁 一夜湖山成貝闕 五更魂夢繞瓊樓 披荊設帳艱辛態 煖埃何時暫得留.”

6구인, “하룻밤 호산에서 용궁을 이뤘으니 꿈속에서 낮이 경루(瓊樓)를 돌아다녔다네.”를 통해 보면, 의주에 머무는 동안 대접을 잘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의 시들이 중국 땅을 밟고 난 이후에 지은 시이기 때문에 인용한 ① 역시 중원 땅에서 당시의 즐거웠던 기억을 회상하며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용의 흐름을 보면, 首聯은 기생의 외관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향기가 가득한 의상을 갖춰 입고 있으며, 머리에 가득한 구름은 기생이 가채(加髢)를 올린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와 같이 곱게 차려진 외관으로 쳐다보는 눈길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기생은 “꽃(花)”으로 비유되는데, 3, 4구는 기생으로 유명한 평양에서 만나보지 못해 탄식했었지만, 결국 의주 용만관에 이르러 기생을 만나게 되어 회포를 풀 수 있게 되었다고 서장관을 희롱하며 말하고 있다.

5, 6구는 다소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춤추는 소매[舞袖]는 응당 기생을 비유한 것인데, 함께 여흥을 즐기고 있는 서장관과의 이별이 아쉬워 눈물로 적실 것이라 했다. 6구는 기생과의 잠자리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루(粧樓)”는 단청누각 혹은 곱게 단장한 누각으로, 전하여 부인의 거실을 뜻한다. 즉, 반드시 부인의 거실에서만 옷을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도 벗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함께 인용된 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희롱을 하고 있다.

②는 전체적으로 자신보다 연상임에도 불구하고 잘 노는 서장관에 비해 자신은 병약해 즐기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는 가벼운 내용의 시이다.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서장관[風流御史]은 기운을 드날리며 가는 곳마다 생황과 노랫소리가 있는 기생자리에서 즐기고 있다. 반면에 자신은 우습게도 삭막하게 병 들어 있는 모습이라 밝은 달로 가득 찬 날에도 방에서 쉬고 있을 수밖에 없다. 창문을 닫은 것은 흥겨운 소리들이 듣기 싫어 닫은 것으로 내심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③은 귀국길 1월 19일에 지은 시이다. ②의 시와 전체적인 시상이 유사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풍류를 즐기는 여사가 호화스럽게 기생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다. 2구의 “해어화(解語花)”는 말을 하는 꽃이란 뜻으로 곧 미인을

지칭하는 말인데, 당 현종(唐玄宗)이 양귀비(楊貴妃)를 일컬은 데서 비롯되었다. 여기서도 문맥상 기생으로 볼 수 있다.

3구에서 객사 주인이 나그네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시를 차운한 서장관의 시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서장관이 이 시의 운을 차운해 <옥전에서 정사의 운에 차운하다(玉田次正使韻)>를 지었는데, 그 세주에 “주인이 국화주 한 통을 보낸 고로 제3구를 그리한 것이다.”<sup>115)</sup>라는 기록이 있다. 그 3구는 “봄빛이 집 안 가득한데 국화주는 없고”<sup>116)</sup>이다.

이를 토대로 3구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홍주원이 국화주를 내심 원하고 있었는데, 국화주가 없는 상황을 읊었을 경우와 원하던 것이 국화주가 아닌 다른 것일 경우이다. 그러나 홍주원의 뜻과 상관없이 기생들[春色]은 자신의 실력을 뽐내며 가무는 계속되었던 듯하다. 한 가지 주목할 만 한 점은 귀국길 당시 부사의 상행(喪行)과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흥을 즐겼다는 사실이다.

④는 안흥(安興) 지방과 신안(新安) 지방의 기생들이 뛰어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흥의 기생이 더 아름답다는 뜻을 내비치는 것으로 보아 시를 쓸 당시 안흥에 있었거나 안흥에서의 기억을 회상하며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3, 4구는 앞선 시들의 서장관을 묘사했던 방식과 유사한 수법으로 당(唐) 두목(杜牧)을 부사에 대입시켜 희롱의 대상인 부사를 묘사하고 있다.

두목이 풍채가 좋은 문장으로, 취하여 양주(揚州)를 지나가면, 길가 청루의 기생들이 다투어 그의 모습을 보기 위해 뒷모습에 굴을 던져 돌아보게 만들어 쳐다보았고, 그의 수레에는 가득했다고 한다는 일화가 전한다. 4구의 “사인(舍人)”은 두목의 벼슬이 사인에 이르렀기에 말한 것이다. 즉, 두목처럼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고, 풍채 역시 훌륭해 세상이 앞 다투어 본다고 한 것이다.

위의 시들이 기생을 소재로 하여 시를 주는 대상에게 희롱조로 지어준 것이라고 한다면, 다음의 시들은 똑같이 기생을 읊은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진지한 분위기로 시상이 전개되는 것들이다.

#### ① <次箕城老妓韻>

평양 노기(老妓)를 읊은 운을 차운하다

115) 이시만, 「1月 19日」, “主人饋菊酒一樽, 故第三句及之.”

116) 이시만, 「1月 19日」, “綺窓朱戶爛生華 黃白交開第一花 春色滿堂無菊酒 客問豪與也堪誇.”

聲名曾擅女中仙 명성은 일찍이 여자 중의 신선을 차지했는데  
 一曲清歌世共傳 한 곡조 맑은 노래가 세상에 함께 전해지네  
 當日繁華揜寂寞 그 당시 번화했던 모습이 지금은 모두 적막한데  
 逢人只說太平年 만나는 사람은 다만 태평년(太平年)을 말하는구나

② 〈其二〉

그 두 번째

悲辭苦語不成音 슬픈 말과 괴로운 말은 음률을 이룰 수 없는데  
 往迹如今底處尋 지난 자취를 지금은 어느 곳에서 찾으리  
 相對客窓增百感 객창에서 마주대하니 만감이 불어나  
 向來人事幾摧心 옛날부터 인간의 일 얼마나 마음을 꺾었던가

③ 〈次嬋娟洞韻〉

선연동(嬋娟洞)을 읊은 운에 차운하다

荒原多少薛濤墳 황량한 언덕에 여기저기 설도(薛濤)의 무덤이 있는데  
 魂作陽臺片片雲 혼은 양대(陽臺)에서 조각조각 구름 되었도다  
 最是春來芳草綠 봄이 와 꽃다운 풀들 푸르르면 제일일텐데  
 綺筵猶想舞時裙 화려한 자리 되어 춤 출 때의 치마가 생각나겠지

세 편 모두 1647년 연행 중 11월 9일 하루에 지은 시들이다. ①은 서장관이 지은 〈평양의 늙은 기생을 읊은 절구 2수를 정사에게 드리다(箕城老妓嘆二絕呈正使)〉를 차운한 연작시 두 편 중 첫 번째 시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노기(老妓)가 홍주원의 외조부인 월사 이정귀가 원접사로 갈 때 모셨던 적이 있다는 것이다. 서장관의 원운 세주(細註)에 “기생은 월사(月沙) 상공(相公)께서 원접사(遠接使)로 갈 때 돌본 바가 있다고 한다.”<sup>117)</sup>라는 기록이 있다.

시는 노기의 실력을 칭송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녀의 명성이 신선이라고 불리워질만큼 출중했고, 한 곡조 노래도 명성과 함께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3구의 그 당시는 노기의 젊었던 시절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미 늙어서 적막

117) 이시만, 「11月 9日」, “妓卽月沙相公遠接時所眷云.”

해진 것이다. 4구의 “태평년(太平年)”이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로는 만나는 사람마다 노기의 젊었던 시절을 서로 얘기하면서 그 당시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노기가 ‘태평년(太平年)’을 잘 불렀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태평년은 고려 때부터 시작되어 진연(進宴) 때 쓰던 풍류의 이름이다. 그녀가 가장 잘 불렀던 곡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회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다면, 2구의 한 곡조 맑은 노래[一曲淸歌]가 노기가 잘 불렀던 태평년이 되는 것이다.

② 역시 같은 날 지은 연작시이기 때문에 ①의 노기와 관련하여 지은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지나간 세월에 나이 들어 버린 기생과 자신의 모습에 한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1구는 지난날에 대한 회상에 젖다보니 슬픈 말과 괴로운 말들로 인해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2구 역시 자신은 물론 기생 역시 나이가 들어버려 지나간 세월의 흔적만 남아 있을 뿐,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절을 찾을 방법 또한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객창에서 노기와 마주대하고 있노라니, 지나간 세월에 대한 만감이 교차하는 것이다.

마지막 4구는 기생과 홍주원 자신 모두에게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적인 특성상 많은 괴로움을 겪었을 기생도 그렇겠지만, 본인 역시 복잡다단한 인간세상의 일로 마음이 꺾인 일들을 경험했을 나이이기 때문이다. “摧心”은 단순히 마음이 꺾인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극도의 상심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는 세월 앞에 흐트러져 가는 노기와 자신을 동일시 하며 안타까운 현실을 읊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은 서장관이 지은 <선연동(禪娟洞)>을 차운한 것이다. 선연동은 평양성(平壤城) 칠성문(七星門) 밖에 있는 골짜기로, 평양 기생이 죽으면 모두 이곳에 묻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세주(細註)에 의하면 평양성 서북쪽으로 5리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sup>118)</sup>

1구와 2구에서는 모두 중국의 고사를 인용했다. “설도(薛濤)”는 당(唐)나라 때의 여류 시인으로 자는 홍도(洪度)이며, 설도(薛陶)라고도 한다. 사대부가(士大夫家)의 딸이었으나 기생이 되어 백거이(白居易) 등과 교유하였다. 나중에 패가(敗

118) 이시만, 「11月 9日」, “在箕城西北五里.”

家)하여 악기(樂妓)가 되었지만, 시를 잘 지어 유명해졌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기생을 지칭하는 대명사격으로 사용된 것이다.

2구의 “양대(陽臺)”는 《文選 宋玉 高唐賦》에 의하면 산(巫山)에 있는 누대의 이름으로, 춘추 시대 초(楚)나라 회왕(懷王)이 고당(高唐)에 노닐다가 꿈속에 신녀(神女)를 만나 동침을 하였는데, 신녀가 떠나면서 “첩은 무산 남쪽 높은 봉우리에 사는데,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매일 아침저녁 양대 아래에 있습니다.” 하였다 한다.

즉, 1, 2구는 기생이 사후(死後)에 황량한 언덕에 공동묘지처럼 묻혀 있고, 영혼은 조각조각 구름이 된 처량한 신세임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다. 황량한 언덕이지만,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게 되면 푸르른 새싹들과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나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해낸다. 기생이 죽은 뒤 해마다 푸른빛으로 우거지는 풀과 꽃들이 화려한 자리[綺筵]가 되어 마치 살아생전 춤추던 기생의 치마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위 세 편의 시는 기생이라는 존재를, 앞서 희롱조로 주고받는 가벼운 시의 소재가 아니라 연민의 대상 혹은 세월 앞에 자신과 동일시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 할 만 하다.

이와 같이 홍주원은 괴로움의 연속인 사행길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를 통한 교유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이 교유에 있어서는 오랑캐인 청과 관련된 인물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신분이나 지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문학을 통한 교유에 대한 홍주원의 의식을 다시금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제 5 장 결 론

본 논문은 無何堂 洪柱元이 네 차례에 걸쳐 正使의 자격으로 淸 나라에 연행을 다녀온 후 남긴 「燕行錄」을 연구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본고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청에 대한 홍주원의 의식이다. 홍주원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직접 겪었고 명청교체기의 현실을 직접 목도하였는 바, 청에 대한 그의 의식은 강력한 반감(反感)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연행록」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다양한 시적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2장에서는 홍주원의 생애와 각 연행별 상황, 「연행록」의 구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홍주원의 생애에서 주목되는 것은 홍주원이 이정귀의 외손으로서 당대 문인들에게 인품과 학문적 재능을 널리 인정받았다는 점과 선조의 부마가 되어 대청 연행에 네 차례나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홍주원의 네 차례 연행은 1647년, 1649년, 1653년, 1661년으로 홍주원의 정치적 능력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행록」 구성상의 특징은 모두 시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시들이 각 연행별로 기록되지 않고 형식별로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18세기 연행록이 산문 중심으로 구성된 것과 변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연행시의 특징을 도출하였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에 대한 否定 意識과 使臣으로서의 自愧感’이다. 청이 중원의 패권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주원은 청 왕조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강력한 비판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식은 오랑캐 나라의 신하로서 사신 가야하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으로 드러나고 있다.

둘째, ‘明王朝에 대한 恨歎과 復興에의 期待’이다. 홍주원은 정통한족왕조인 명나라가 멸망하고 오랑캐인 청나라가 중원을 장악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였다. 이는 하늘에 대한 원망이나 흥망성쇠에의 한탄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한편, 홍주원은 명나라가 멸망했지만, 당시 남명세력이 잔존해 있던 사실을 통해서 명왕조의 부흥을 기대하였다. 이는 ‘鎡鋸劍’, ‘一旅’ 등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使行길의 어려움과 人間的 交遊를 통한 解消’이다. 청나라에 대한 홍주원의 부정의식은 홍주원으로 하여금 사행길의 어려움을 배가시켰다. 이는



육체적·정신적 괴로움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 사신단 일행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시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홍주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사신단 일행들과 수창(酬唱)을 하거나 중국 관료문인이 아닌 일반 문사들, 또는 역관들에게 시를 주는 등 인간적 교유를 통해서 해소하였다.

홍주원은 아직 학계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바가 없어 우리 문학사에서 익숙한 인물이 아니다. 이에 본고는 홍주원의 「연행록」을 대상으로 하여 홍주원의 생애, 연행록의 구성 및 특징, 연행시에 나타나는 홍주원의 의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고가 17세기 중반 대청 연행의 초창기 양상과 연행록의 특징을 살펴보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資料

- 金壽恒, 『文谷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청구기호 일산古 3648-10-77)  
金堉, 『潛谷遺稿』, 한국문집총간, 86.  
宋時烈, 『宋子大典』, 한국문집총간, 112, 113.  
李敏敍, 『西河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청구기호 M古1-2000-736)  
李時萬, 『默全堂文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청구기호 古 3648-62-208)  
洪柱元, 『無何堂遺稿』, 한국문집총간 續, 30  
李正龜, 『月沙集』, 한국문집총간, 69.  
麟坪大君, 『松溪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청구기호 한古朝46-가994)

### 2. 論著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29, 1995.  
김문식,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새문사, 2009.  
김창룡, 『우리 이야기 문학의 재발견』, 태학사, 2012.  
김태준 외, 『(조선의 지식인들과 함께)문명의 여행길을 가다』, 푸른역사, 2005.  
남구만 저, 성백효 역, 『약천집』, 지식을만드는지식, 2008.  
리상호 역, 『열하일기』, 보리, 2004.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행록선집』1, 3, 1976.  
\_\_\_\_\_, 『(국역)송자대전』3, 8, 1984.  
\_\_\_\_\_, 『(국역)월사집』1-8, 1999.  
소재영 외, 『연행노정, 그 고난과 깨달음의 길』, 사진, 2004.  
신해진 역, 『심양사행일기』, 보고사, 2013.  
임기중, 『연행록선집』16, 18, 20, 22, 100, 동국대학교 출판부,  
\_\_\_\_\_, 『연행록연구』, 일지사, 2006.  
임준철, 『조선중기 漢詩 意象 연구 : 조선중기 한시 이미지 연구』, 일지사,

2010.

정후수, 『朝鮮後期 中人文學研究』, 깊은샘, 1990.

\_\_\_\_\_, 『세한도 따라 조선에 온 해객금준제이도 제사』, 한성대학교 출판부, 2013.

조규익 외, 『연행록 연구총서』1, 학고방, 2006.

최소자, 『明清時代 中·韓關係史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한국문학연구소, 『국학고전 연행록해제』1, 유성문화사, 2003.

허태용,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의식』, 아카넷, 2009.

후마 스스무, 『연행사와 통신사』, 신서원, 2008.

### 3. 論文

강동엽, 「『열하일기』의 표현기법에 대한 소고」, 『한국학논집』10, 1983.

김남기, 「『燕轅日錄』에 나타난 기녀의 생활과 애환」, 『돈암어문학』20, 2008.

김동국, 「『열하일기』를 통해서 본 한중문화교류 : 박지원의 상대문화주의를 중심으로」, 『언어와문화』8, 2012.

김명호, 「『熱河日記』와 淸朝 文藝」, 『韓國學報』14, 1988.

\_\_\_\_\_, 「연행록의 전통과 열하일기」, 『韓國漢文學研究』11, 1988.

\_\_\_\_\_, 「『熱河日記』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김미순, 「『庚子燕行雜識』를 통해 본 李宜顯의 淸 文物 認識」,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김상조, 「김창업(金昌業)의 노가재연행일기(老稼齋燕行日記) 연구」, 『영주어문』10, 2005.

김아리, 「『老稼齋燕行日記』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영한, 「청음선생의 명말 해로사행기(海路使行記)」, 『古文研究』4, 1992.

김유경, 「19세기 연행 문학에 나타난 중국 체험의 의미 : 전·중반기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21, 2005.

김은미, 「熱河日記의 敍述形態 考察」,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2.

김은정, 「東陽尉 申翊聖의 駙馬로서의 삶과 문화활동」, 『열상고전연구』26,

2007.

김지은, 「17세기 전반 해로사행문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김태준, 「18세기 燕行使의 思考와 자각 : 『熱河日記』를 중심한 여행자 문학론」, 『明大論文集』11, 1978.

——, 「湛軒燕記와 을병연행록의 比較 研究 : 特히 漢詩 번역을 中心으로」, 『民族文化』11, 1985.

김태준, 「동아시아적 글쓰기의 전통론 사고 : 『열하일기』의 글쓰기론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36, 2000.

——, 「연행록의 교과서 『노가재연행일기』」, 『국제한국학연구』1, 2003.

김현녀, 「金進洙의 「燕京雜詠」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연행록 문학 방면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大東漢文學』34, 2011.

김철조, 「燕巖 朴趾源의 淸 현실 이해」, 『국제한국학연구』1, 2003.

김효순, 「燕巖의 文學論 考察」,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남은경, 「잠곡(潛谷) 김육(金堉) 문학의 특성 연구 - 17세기 한당 문인 고찰의 일환으로」, 『漢文教育研究』24, 2005.

도유미, 「18세기 후반 燕行을 통한 이압의 대외인식의 확대와 그 적용」,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박기석, 「『熱河日記』와 燕巖의 對淸觀」, 『論文集』5, 1997.

——, 「『열하일기』와 연암의 대청관」, 『고전문학과 교육』2, 2000.

——, 「『열하일기』에 나타난 연암의 중국문화 인식」, 『문학치료연구』8, 2008.

박상영, 「『열하일기』에 나타난 산문 시학 : 〈환희기〉의 담론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144, 2006.

박종훈, 「19세기 朝淸 문인들의 교유 양상 : 藕船 李尙迪의 懷人詩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32, 2011.

박지선,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 「『老稼齋燕行日記』의 書誌的 考察」, 『語文研究』23, 1995.
- 박향란, 「燕行錄 所載 筆談의 研究 : 洪大容, 朴趾源 등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박현규, 「17세기 전반기 대명(對明) 해로사행(海路使行)에 관한 행차 분석」, 『한국실학연구』21, 2011.
- 배기표, 秋琴 姜瑋의 海外紀行詩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배원환, 「湛軒 洪大容의 「燕記」 研究」,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사명동, 「朝鮮後期 朴趾源의 淸國認識: 『熱河日記』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서의, 「김창업과 청조 문사의 교유에 대한 고찰」, 『淵民學志』, 2010.
- 서정아, 「稼齋燕行錄을 통해 본 金昌業의 淸 文物에 관한 인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서현경, 「열하일기 정본의 탐색과 서술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신익철, 「이기지(李器之)의 『일암연기(一菴燕記)』와 서학 접촉 양상」, 『東方漢文學』29, 2005.
- 안나미, 「月沙 李正龜의 燕行詩 一考察」, 『漢文學報』17, 2007.
- 안명진, 「17세기 북벌정책의 전개와 정치적 의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왕림동, 「19세기 조선과 청조 지식인의 교류 : 金景善의 『燕轅直指』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우요, 「18세기 조선 문인의 청나라에 대한 인식 연구 : "연행록"에 나타난 화이사상 및 북학사상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위홍, 「『老稼齋燕行日記』研究 : 對淸意識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유재임, 「『老稼齋燕行日記』에 나타난 對淸意識 研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윤경희, 「18세기 초 장동 김씨 일문의 연행 체험 : 김창집(金昌集)의 「연행훈지록」을 중심으로」, 『漢字漢文教育』19, 2007.

- 이강엽, 「『熱河日記』의 寓言文學의 解釋」, 『국제어문』27, 2003.
- 이경자, 「노가재연행일기(老稼齋燕行日記) 소고」, 『漢城語文學』3, 1984.
- 이관성, 「홍석모의 <황성잡영(皇城雜詠)> 소고(小考) -조선인의 눈에 비친 19세기 연경의 시적 형상화」, 『어문노집』58, 2008.
- 이선웅, 「『熱河日記』 研究:文學的 特性을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이영춘, 「丙子胡亂 전후의 朝鮮明清 관계와 金堉의 『朝京日錄』」, 『朝鮮時代史學會』38, 2006.
- , 「麟坪大君의 燕行錄:『燕途紀行』」, 『史學研究』82, 2006.
- 이영호, 「이념담론의 글쓰기 방법연구:『열하일기』의 표현전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종주, 「『熱河日記』의 敍述原理」,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2.
- 이종호, 「잠곡 김육의 저술과 문학-저술의 현황과 문학연구의 성과를 중심으로」, 『韓國人物史研究』6, 2006.
- 이지호, 「글쓰기 발상법으로서의 연상 -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韓國國語敎育研究會 論文集』61, 1997.
- 이춘희, 「19세기 燕行文人の 文學交流 양상 및 의미 : 藕船 李尙迪을 中心으로」, 『한국어문학연구』45, 2005.
- , 「燕行路程에 관한 詩와 燕行心理의 변화 고찰」, 『한국어문학연구』50, 2008.
- 이학당, 「『熱河日記』 中の 筆談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임기중, 「朝天錄과 燕行錄의 和答詩」, 『국어국문학』119, 1997.
- 임영길, 「心田 朴思浩의 燕行과 韓中文學交流」,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임형택, 「조선사행(朝鮮使行)의 해로(海路) 연행록(燕行錄): 17세기 동북아의 역사전환과 실학」, 『韓國實學研究』9, 2005.
- 장지에, 「淸人 繆公恩과 朝鮮使臣 朴來謙의 교유」, 『한국학연구』22, 2010.
- 장진영, 「海藏 申錫愚의 『入燕記』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전부용, 「燕巖 朴趾源의 熱河日記 研究」,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전수경, 「韓弼敎의『隨槎錄』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전일우, 「『燕轅直指』 研究」, 『崇實語文』19, 2003.
- 전재강, 「熱河日記 所載 插入詩의 성격과 기능」, 『伏賢漢文學』8, 1992.
- 정순희, 「박지원 산문의 문체적 특성 일고(一考) -어휘와 주제의 관련 양상을 통해」, 『韓國漢文學研究』42, 2008.
- 정영문, 「홍창한의 『연행일기』 연구」, 『한국문학과예술』, 2010.
- 정은진, 「표암 강세황의 연행체험과 문예활동」, 『漢文學報』25, 2011.
- 정일남, 「『열하일기』 「양엽기」 일고」, 『東方漢文學』35, 2008.
- 정재훈, 「17세기 후반 노론학자의 사상-송시열·김수항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13, 1994.
- 정후수, 「譯官이 닦아 읽던 중국인의 편지, 『海隣尺素』의 가치」, 『한국어 문학연구』59, 2012.
- , 「晚淸 人士들이 李尙迪에게 전해 온 無聲의 메시지 : 奉明反淸 意識을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46, 2012.
- 조영임, 「鄭世規의『燕行日記』에 대한 일고찰」, 『고전문학과교육』24, 2012.
- 조영호, 「歸巖 李元禎의 燕行錄 研究」,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조창록, 「전식(全湜)의 「차행록」과 해로 사행의 체험시」, 『東方漢文學』46, 2011.
- 주승택, 「강위(姜瑋)의 연행록(燕行詩)에 나타난 한중(韓中) 지식인의 교류양상」, 『한국문화연구』11, 2006.
- 진영숙, 「明末의 中國社會와 朝鮮使臣의 外交活動 : 金堉의 『朝京日錄』과 『朝天錄』의 분석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31, 2009.
- 천금매, 「『海隣尺素』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 「18~19世紀 朝.淸文人 交流尺牘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최경자, 「〈熱河日記〉에 나타난 燕巖의 中國認識 考察」,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최두진, 「담헌 홍대용의 연행 중 교우활동과 교육적 의의」, 『教育思想研究』



25, 2011.

최소자, 「18세기 후반 조선지식인 朴趾源의 對外認識」, 『韓國文化研究院論叢』61, 1992.

\_\_\_\_\_, 「조선 후기 진보적 지식인들의 중국방문과 交遊」, 『명청사연구』23, 2005.

\_\_\_\_\_, 「“燕行錄” 연구를 위한 제언」, 『明清史研究』30, 2008.

\_\_\_\_\_, 「18세기 金昌業, 洪大容, 朴趾源의 중국인식」, 『명청사연구』32, 2009.

최윤정, 「명(明), 청(淸) 교체기 조선문사(文士)의 사행체험」, 『한국고전연구』11, 2005.

최은주, 「연행록 자료 집성 및 번역의 현황과 과제」, 『大東漢文學』34, 2011.

최인자, 「연암 <열하일기>에 나타난 글쓰기 발상법의 한 원리」, 『목원국문학』, 1996.

최천집, 「『열하일기』의 표현방식과 그 의도」, 『문학과언어』18, 1997.

한명기, 「명청교체기 동북아 질서와 조선 지배층의 대응」, 『역사와현실』37, 2000.

허권수, 「연암(燕巖)의 북경(北京)에 대한 인식(認識)의 한계」, 『漢文學報』19, 2008.

현진환, 「鶴山 徐浩修의 『熱河紀遊』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홍성남, 「『夢遊燕行錄』 研究 - 19世紀 朝鮮知識人의 意識世界를 中心으로」, 『國文學論集』19, 2003.

황만기, 「청(淸) 김상헌(金尙憲) 《조천록(朝天錄)》 고찰(考察) -한시작품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43, 2009.

# ABSTRACT

## A study on 「Yeonhaengrok」 of Muhadang, Hong Juwon

Lee, Sang Woo

Major in Korean Language & Literature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on 「Yeonhaengrok」 that Muhadang, Hong Juwon went to Chung dynasty four times as an envoy head. This thesis especially focuses on the awareness of Hong Juwon for Chung dynasty. The awareness of Hong Juwon who directly experienced Jungmyohoran and Byungjahoran and witnessed realities of the exchange from Ming to Chung for Chung was a strong hostility. The awareness was reflected to Yeonhaengrok as it is. After Ming dynasty went out of existence, the position of Chung dynasty was strengthened. At that time, they hoped the return of Ming dynasty and didn't recognize Chung dynasty. His awareness is appeared by various poetic aspects.

To examine them, Chapter 2 firstly considered life of Hong Juwon, situation by each trip and organization of 「Yeonhaengrok」. Chapter 3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rip poem and the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First is a sense of shame as the negative awareness and envoy for Chung dynasty. Although Chung dynasty seized the supremacy in a country, Chung

dynasty showed criticism without recognition of Chung dynasty's legitimacy. Also, barbarians he couldn't recognize established it through the conquering war. For the country, he sung the shame for himself who was an envoy.

Second is the lamentation for Ming dynasty and exception for revival. He was inconvenient that Ming, an authentic Han dynasty, was ruined and Chung, barbarians, seized the supremacy in a country. It is expressed by resentment for the sky, lamentation for rise and fall, etc.

Finally, there are several tastes for the arts including advocacy with members so as to endure difficulties with lots of physical and mental difficulties. All of matters were based on his awareness opposed to Chung dynasty.

Hong Juwon is not familiar as he was not introduced in academic world. But, his poetic talents were recognized since he was young. Although he was buma whose politic activities were limited, his diplomatic abilities were recognized. So, they went to there four times for 14 years as an authority of authentic envoy. The research of Hong Juwon's Yeonhaengrok can be data including an aspect of awareness for Chung dynasty of Joseon intellectual people who experienced turbulent period, exchanging period from Ming to Chung, as a status of royal family. Furthermore, it's significant to examine the early aspects of trip to Chung dynasty which has been continued for about 200 years and characteristics of Yeonhaengrok.

**【Key Words】** Hong Juwon, Yeonhaengrok, trip poem, awareness for Chung dynasty